

전략연구 2011 - 08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유 정 규

발 간 사

충청남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3농혁신’을 민선5기 도정 핵심기조로 삼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촌인구의 절대 數가 아니라 ‘활기있는 농업·농촌의 인력 및 리더의 數’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우리 충남도의 농업과 농촌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 농업·농촌지역을 이끌어갈 농업·농촌의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리더로서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도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참여자들과 지역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교육평가시스템 부재, 상호학습조직에 대한 지원부족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대외적인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한 충남도의 능동적 대처,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교육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 육성과 도출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학습자조직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더육성정책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충청남도 및 충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고견을 주신 농어업인, 그리고 연구책임자인 (재)지역재단 유정규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본 연구는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되고 농업·농촌리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도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참여자들과 지역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난 3년간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교육과정을 보면 2009년 6개 과정, 40개 반, 64회, 2010년 6개 과정, 41개 반, 66회, 2011년 5개 과정, 38개 반, 52회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을 통해 총 6,734명(2011년의 계획치)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매년 2,20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에 참여 한 셈이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평가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정도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농업생산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4%, 인간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1.8%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8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이라는 의견이 9%, 80 ~ 89점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32.2%, 70 ~ 79점이라는 의견이 29.8%로 나타나 전체의 71% 정도는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을 70점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나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육비 ‘자부담’ 에 대한 저항감이 컸으며, 마이스터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위수여라는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업기술원 교육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은 교육 방법과 시기, 계획 대비 이수율 문제, 농촌인력육성교육의 미약, 교육평가시스템의 부재, 유사중복과목의 반복적 개설, 상호학습조직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는 낮은 출석률, 교육생 확보의 곤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게 대두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외적인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이다. 먼저,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력육성업무의 총괄부서(경영인력과)가 농업정책국에서 농촌정책국의 이관되었으며, 농촌정책국이 농식품부의 주무국의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주된 업무로 해 왔으나 이제 ‘농촌정책’ 주된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육성사업 역시 ‘농업인력육성’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리더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가져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희망마을 만들기를 삼농혁신의 주요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인력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먼저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유사교육과정의 통합과 간소화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미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참여도가 높은 과목과 참여도가 낮은 과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데도 거의 유사한 교과목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 참가와 무관하게 유사과목이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결과에 대한 교육 참여자의 의견청취와 교육이수 후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시·군의 농업인대학,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대학 등은 유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 참여도(2010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평균 출석률 32%)가 떨어지고 2011년에는 급기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간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인 교육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하고 중앙정부의 연학분담체계를 준용하여 충남도에서도 각 주체의 역할배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성과 도출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교육내용과 성과간의 상호관련성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내용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것 즉, 교육이 교육 그 자체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 참여도가 낮았고, 사업 확보를 위한 억지참여가 다반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교육개편의 원칙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교육성과의 도출이 가능한 교육’을 농업인 교육개편의 큰 방향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육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교육메뉴를 제시하고, 수요자(농업인, 교육 참여 희망자)의 선택·주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예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참여 희망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자조직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농업인력육성이든 농촌인력육성이든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교육은 참여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의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목표그룹을 설정하는 것도 용이치 않다. 또, 교육 참여자의 의지를 자극하고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학습자조직 지원이다. ‘학습’은, ‘교육 과

정에서 획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자기노력의 과정' 이다. 따라서 학습은 교육이 전제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며, 교육 역시 학습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서도 교육과 학습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현장단위의 학습조직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5
3. 연구 추진체계	8
4.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중앙정부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과 동향	13
제1절 농업인력육성교육의 현황	13
1. 학교 농업교육	13
2. 사회 농업교육	19
제2절 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	29
1. 농촌인력육성정책의 경과	29
2. 농촌인력육성정책의 현황	31
3. 농촌인력육성정책의 성과	35
4. 농촌인력육성정책의 한계	39
제3절 최근의 농업·농촌인력 교육체계 개편동향	42
1. 기본방향	42
2. 세부 추진계획	43
3. 향후 추진계획	47
제3장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	52
제1절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현황	52
1. 교육의 목표와 방향	52
2. 교육과정 및 실적	54
3. 교육예산	59
제2절 충남도청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현황	60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60
2.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65
제4장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평가	67

제1절 조사개요	67
1.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대상	67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6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74
1. 교육접근방식 및 참여계기	74
2. 교육기간 및 내용에 관한 분석	80
3. 교육평가 및 성과	84
제3절 전문농업인교육과정의 설문결과 분석	89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89
2. 농업마이스터대학	93
제4절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지역리더 심층인터뷰	96
1. 심층인터뷰 방법 및 내용	96
2. 심층인터뷰의 시사점	111
제5장 충남도 농업·농촌리더육성정책의 개선방안	119
제1절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개선의 기본방향	119
1. 관련정책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119
2.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122
3. 교육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	124
4. 교육성과 도출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도입	125
5. 학습자조직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126
제2절 개선방안	128
1.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의 종합적 점검	128
2.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의 확충	130
3. 교육과정 및 운영의 종합적인 조정	134
4. 관련 주체간의 역할분담	142
5. 상호학습 지원의 확대	143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요약	147
제2절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	158

표 목 차

<표 2-1> 농업계 고등학교(순수 농고) 현황	14
<표 2-2> 농업계 전문대학 현황	16
<표 2-3> 농식품부 지원 하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 교육	20
<표 2-4> 농업마이스터 대학 현황(2010년 말 현재)	21
<표 2-5> 귀농·귀촌 교육현황(2010년)	23
<표 2-6>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 현황	25
<표 2-7> 지자체의 농업인대학 운영현황	26
<표 2-8> 농촌지역개발관련 교육프로그램 (2009)	32
<표 2-9> 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의 구성 및 주요 학습내용(2009)	33
<표 2-10> 중앙정부의 지역리더육성 현황	35
<표 2-11> 교육기관별 역할 및 기능정립(안)	43
<표 3-1>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목표	52
<표 3-2>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방향	53
<표 3-3>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실적(1)	54
<표 3-4>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실적(2)	56
<표 3-5>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 미달실태	57
<표 3-6> 교육시기와 교육이수율의 관계	59
<표 3-7> 충남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예산 추이 (단위: 천원)	60
<표 3-8> 충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현황 (1994~2010)	61
<표 3-9> 충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현황(2010)	65
<표 3-10>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교육과정 체계	66
<표 3-11>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모집현황(2011)	66
<표 4-1>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총 응답자 수 분류 및 각 분류)	69
<표 4-2> 응답자의 영농 종사여부 (총 응답자 수 분류 및 각 분류)	70
<표 4-3> 지역 내 역할과 영농기간과의 상관관계(총 응답자 수 분석)	72
<표 4-4> 교육과정의 의미 분류 및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 빈도 (중복응답)	76
<표 4-5> ‘토론식’교육을 위한 교육참여자의 준비태도	83

<표 4-6>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그 이유	84
<표 4-7> 충청남도 농업·농촌교육에 대한 점수 및 그 이유	87
<표 4-8> 향후 농업·농촌리더교육의 개선방향	88
<표 4-9>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과목 현황	90
<표 4-10>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과목 현황	93
<표 4-11> 인터뷰조사 대상자의 지역분포와 특성	98
<표 5-1> 마을단위 농어촌개발사업의 현황	121
<표 5-2>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9년 말 현재)	121
<표 5-3>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 현황(2010년 말 현재)	121
<표 5-4>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교육프로그램 비교	124
<표 5-5> 전국 대표실습장	133
<표 5-6> 농식품부 지정 충남도내 전국 선도농가 실습장	133
<표 5-7> 회차 당 교육기간 분포	135

그 립 목 차

<그림 4-1> 응답자의 종사작물 (총 응답자 수 분석)	71
<그림 4-2> 응답자의 지역 내 역할 및 위치 (중복응답 가능)	71
<그림 4-3> 농촌개발사업의 시행여부 및 종류 (총 응답자 수 분석)	73
<그림 4-4> 농업·농촌리더교육 정보입수 방법 (총 응답자 수와 최고농과정 분석) ...	74
<그림 4-5> 농업리더와 농촌리더의 의미 구분 정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기술원) ...	76
<그림 4-6>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중복응답)	78
<그림 4-7> 축소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중복응답)	79
<그림 4-8> 적정 교육기간의 선호도	80
<그림 4-9> 적정 교육과정의 선호도	81
<그림 4-10> 적정 교육 수강인원 선호도	82
<그림 4-11> 적정 교육방식의 선호도	82
<그림 4-12>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생각	85
<그림 4-13> 교육 이수 후 얻은 성과	86
<그림 4-14> 충남도 농업·농촌교육이 정책사업 수행에 미치는 효과	86
<그림 4-1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목적 및 만족도	90
<그림 4-16>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장점	91
<그림 4-17>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단점	92
<그림 4-18> 향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개편방향	92
<그림 4-19>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목적 및 만족도	94
<그림 4-20>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장점	94
<그림 4-21> 농업마이스터대학의 단점	95
<그림 4-22> 향후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개편방향	96
<그림 4-23>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지역분포	9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라고 하는 우리농업을 둘러싼 내외적 압력, 급변하는 기후패턴과 그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의 증가는 우리 농가들의 농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생산기술 이외에도 위기관리 능력을 포함한 고도화된 경영관리, 격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리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개발의 성패가 인력육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을 제시한 이래, 2008년 6월에는 「신 농업교육체제」를 발표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현 정부 농업인교육의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신 농업교육체제」에서는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실습형 현장교육,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농업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고, 최근 5년간 농업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은 10배(2005년 35억 원 → 2009년 364억)이상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농정의 범위가 농업에서 농어촌 공간은 물론 식품산업까지 확대되고, 농업인구 및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농어업, 식품제조업, 외식산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만들어진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계획(안)」에서는 ‘농산업·농어촌을 이끄는 인력육성’이라는 비전하에 농업교육을 양적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과정의 통폐합 등 중복과정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어업,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제고와 농어촌 활력창출 지원인력 확보, 농어업·농어촌의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농업인 교육정책들이 너무 짧은 시기에 졸속적으로 도입,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농업인력육성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단위에서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협, 농촌진흥기관,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추진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첫째, 농식품부가 농정목표와 연계하여 공공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위탁 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둘째, 농식품부와 별도로 농촌진흥기관이 자체 계획하에 추진하는 교육 셋째, 농협의 조합원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농업인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을 발족시키고 모든 농업인 교육의 기획, 관리, 평가관련 실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농업인교육은 크게 공모과정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 위탁한 귀농교육이 있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투철한 직업관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년 120여만 명의 농업인에게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등 6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14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에서도 농업인(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원 소집교육, 농촌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원 소집교육은 농협대학, 안성, 창녕, 경주 등의 교육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조합원의 농협 주인의식 고취, 협동조합 운동정신에 투철한 협동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매년 34,00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농촌 현장교육은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 등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

업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교육으로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농협운동 및 사업 교육, 생활 및 기타 교육이 이루어지고, 매년 100만 명 규모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전진되면서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도 크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교육도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생산중심 인력육성교육도 유통과 가공, 새로운 품종의 도입 등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내용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2002년 이후 농촌지역개발 방식에 중앙주도의 하향식·설계농정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공모제방식으로 바뀐에 따라 지역주체의 리더십 함양과 지역리더 육성이 농업인 교육의 한축으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이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업·농촌 인력육성 교육을 2005년부터 농업(산업)인교육과 농촌(지역)리더교육을 분리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농업인교육은 농업정책국 소속의 경영인력과에서 총괄하면서 주로 농업연수원과 농업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해 왔으며, 농촌리더교육은 농촌정책국 소속의 지역개발과(旧 농촌진흥과)에서 총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농식품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정책과가 농식품부의 주무국이 되고 경영인력과가 농업정책국에서 농촌정책국의 편제됨에 따라 향후에는 농업·농촌인력을 총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농업인력양성사업을 대행해 왔던 농업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농업인 교육사업에 발맞춰 다양한 농업인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으로 2011년에 6개 분야(기술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정보교육, 체험교육, 상설교육) 52기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교육비전액 무료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농업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2100명의 농업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실용교육과정으로 귀농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농업생산과 마케팅·인터넷활용 등 경영능력 제고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개발의 리더를 육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동안의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육수료자들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군의

경우,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에 의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외에 자체교육사업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 육성정책의 변화에 따라 충남도에서도 기존의 농업인력 중심에서 농촌지역리더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과 같은 농업인력 육성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농업인교육이 이러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충남도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해 충남도 농업·농촌리더의 육성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되고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과 충남도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마이스터대학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참여자(농업인)와 지역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중앙정부의 농정흐름에 조응하고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온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농업인력육성이나 농촌인력육성과 관련하여 현상을 정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며, 최근에는 벤치농업이나 고소득경영체에 대한 교육과 귀농·귀촌인력의 영농정착지원과 이를 통한 신규농업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전국적 단위의 총론적인 연구들이고, 지역단위에서 정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의 현황과 교육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반응(=

효과)을 파악하고 아울러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충남도에서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해 그동안 실행해 온 교육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은 크게, 농촌지도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행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교육시행 방법에 따라 해당기관이 집적 시행하는 경우와 외부기관(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농촌지도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과 실용교육과정(=귀농인대학과정), 글로벌인재대학과정이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과정은 기술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정보화교육, 체험교육, 상설교육과정 등 6개 과정이 매년 개설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150명이 이수하였다. 실용교육과정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배기술교육, 농촌현장적응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인재대학은 2009년부터 농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역개발리더반과 명품한우반이 운영되고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대학’은 시·군의 특성과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농업 혹은 농촌관광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행정기관(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도에서 시행하는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는데,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문농업 CEO양성’이 주목적이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전문농업인육성’이 주목적이다.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이론 중심의 주

입식 교육을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공주대학교와 연암대학에 전공학과별로 2년간 10개 품목(딸기, 시설채소, 인삼, 사과, 배, 버섯, 친환경경종, 친환경채소, 한우, 양돈) 별 과정이 운영하고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에 5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품목별로 1년인데, 교육내용은 충남 마이스터대학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각 교육과정 중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즉,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과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충남 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연구범위 및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 농업·농촌리더육성교육의 전체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연구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연구 초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한다.

2) 연구방법

첫째, 문헌조사이다.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검토하여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내실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전국단위 혹은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혹은 시·군단위의 농업인교육은 그 방향과 내용,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연구의 검토와 중앙정부의 정책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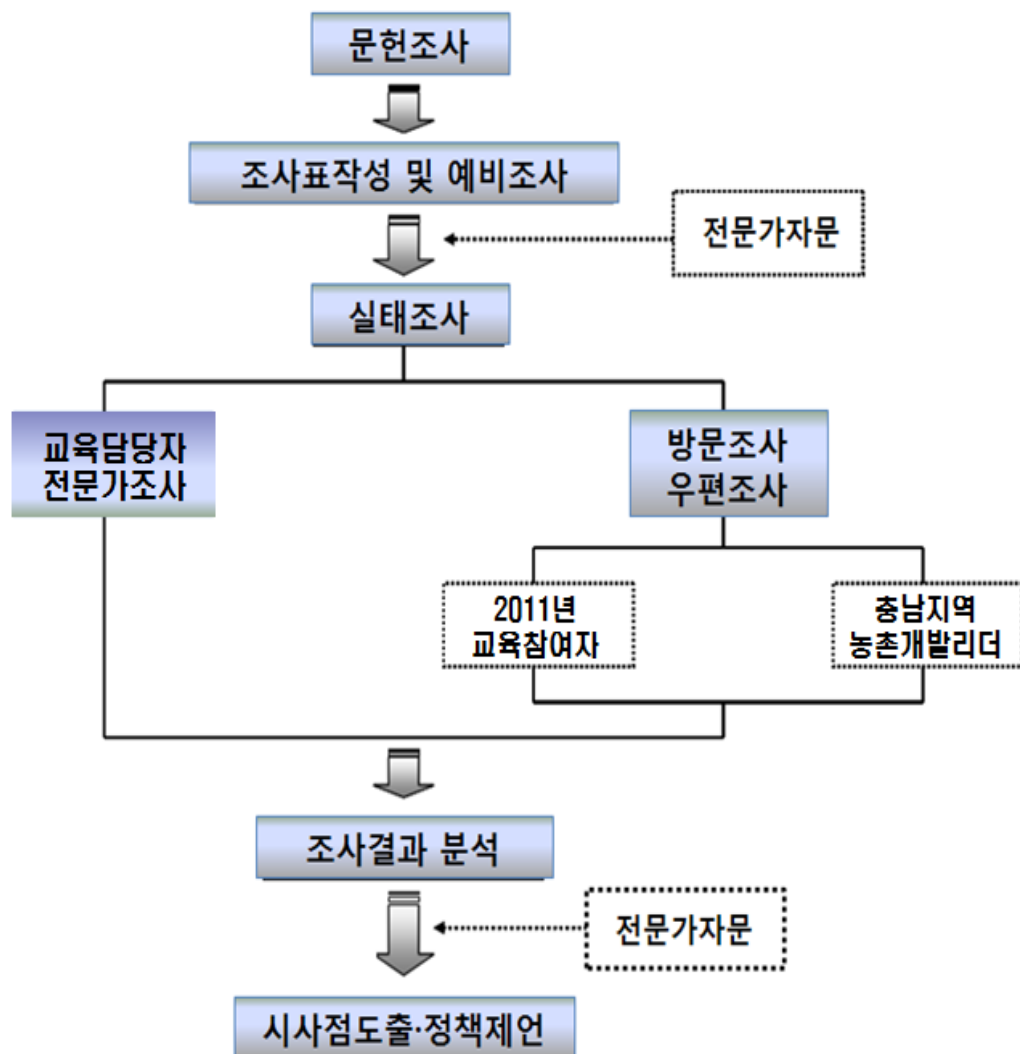
둘째, 설문조사이다. 설문대상은 2011년 도 농업기술원과 도(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마이스터대학의 교육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교육참여자, 지역별 농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리더 등이며, 조사방법은 각 교육과정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종료 시에 현장을 방문,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한다. 조사절차는 문헌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표를 만들어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표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직접 교육현장과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는 가급적 답변과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관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필요시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조사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심층인터뷰이다.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영농조직의 책임자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층인터뷰의 시사점을 정리 도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내용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논거로 하였다.

넷째, 자문위원회 운영이다. 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역량강화와 관련한 전문가들,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에 적절하게 자문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내실화와 전문성, 실천성을 높이고자 했다.

3. 연구 추진체계



4. 선행연구 검토

농업·농촌인력육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①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연구와 ②농촌지역리더육성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③고소득경영체 혹은 벤처농업인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연구, ④귀농·귀촌인교육과 도시민의 창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1) 농업인력 육성교육에 대한 연구

농업인력 육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학교교육과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양자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강대구 외(2008), 「농업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농식품부)와 마상진·박대식(2008),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대표적이며, 양자를 포괄하고 있는 연구로는 마상진·김영생(2005), 「농업인력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선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모 외(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마상진(2008), 「농업인의 전문역량강화」(『농업동향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2010), 「농업교육의 반성과 과제」(『농정연구통권35호』 농정연구센터), 마상진·박성재·김강호(2011), 「농림수산식품(분야)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대구 외(2008)는 농업계고등학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 특성화 고등학교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정부에서 농업분야의 특성화고교를 위탁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적절한 운영모형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운영원칙, 농업교육의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상진(2008)은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별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담당인력이 충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효과적인 홍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실시시간 과 장소, 강사, 교수학습방법 설정,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각 교육·훈련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제 강화, 상호학습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상진(2010)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평가·반성하고 향후의 가능성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 필자는 농업교육을 미래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교육과 현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개발하는 사회농업교육을 구분하고, 고교와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농업교육은 대부분이 농업생산보다는 생명공학, 정보공학, 환경공학 등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사회교육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 교육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돈 버는 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적 삶이나 인문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인력육성중심의 농업계 전문대학 교육, 농대의 영농정착교육과정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대학, 농업인들의 높은 학습욕구 등을 들어 농업교육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향후의 추진과제로서 유·초·중등단계의 농업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대학중심의 농업전문인력 육성체제 정립,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교육 개선, 농업교육 지원기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농촌지역리더교육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리더교육에 관한 연구는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학습체제 구축, 지역발전과정에 대한 지역리더의 참여방안, 평생교육관점에서 지역역량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등으로 대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농촌지역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인데, 대표적으로는 박진도·황수철·양병찬·유정규(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농정연구센터), 유정규·박경·정재호·송두범(2006), 「충청남도 농촌지역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충남발전연구원), 소

순열·유정규·황영모(2008), 「농업경영리더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농촌진흥청) 등이 있고 둘째,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경(2005),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지역재단)과 유정규(2009), 「새로운 지역발전시대의 지역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제2차 정책토론회자료집』, 농어업희생을 위한 국민의원연구모임·지역재단) 등이 있으며 셋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체계/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양병찬(2005),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학습체계구축」(지역재단), 최경은(2006), 「농촌지역발전과 학습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이고 넷째, 지역발전과정에 대한 지역리더의 참여방안과 관련해서는 정하성·우룡(1988),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1집), 정득진(1990), 「농촌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요인」(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송두범·김남선(1991),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연구』 제10집,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송미령·박시현(2002), 「주민자율적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성과분석」(『국토계획』 제37권제1호), 유정규·황수철(2004), 「지역리더의 농정참여실태 및 개선방안」 등이 있다.

박진도·황수철·양병찬·유정규(2004)은 2002년 이후 본격화된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리더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2005년부터 농식품부(당시 농림부)에서 교육과정으로 채택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 프로그램이며 이후 농촌지역개발리더 육성교육의 기초가 된 연구이며, 유정규·박경·정재호·송두범(2006)은 충청도 내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농촌지역리더 육성프로그램과 국내외의 마을가꾸기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태를 조사한 후, 박진도·황수철·양병찬·유정규(2004)를 토대로 충청남도 농촌리더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박경(2005)은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의 개념과 지역개발을 위해 왜 지역역량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역량배양의 방법으로써 서구의 역량강화프로그램(교육훈련에 초점을 둔 미국 미시간 주 농업리더십프로그램과 실천을 통한학습을 강조하는 EU의 LEADER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재정립을 통한 지방역량강화, 지자체의 주체적인 노력,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역협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상향식 파일럿 사업 시행, 상향식 마을가꾸기사

업의 내실 있는 추진, 지자체 단위의 독자적인 역량배양프로그램 시행, 참여적 상향식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파트너십 추진체제의 정비,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양병찬(2005)은 주민주도의 상향식지역발전전략 하에서는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상호학습체제 운영사례(장성아카데미, 진주시 이반성면 청년회, 옥천군의 안남어머니학교, 홍성군의 문당리)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학습체제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3) 기타 농업·농촌인력 육성교육에 관한 연구

고소득경영체 혹은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연구로는 농촌진흥청(2007), 「농업경영비즈니스의 성공조건」, 민승규·양주환(2008),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삼성경제연구소)과 서종석·김석현·조규대·강혜정(2009), 「고소득 농업경영체 성공요인 분석」(『농업경제연구』 제50권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서종석·김사균(2010),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육성정책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귀농·귀촌인교육과 도시민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는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 안덕현(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농식품부),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강대구(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 연구」(농식품부), (사)지역농업연구원·(주)지역파트너(2007),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구축 방안」(진안군), 김철규 외(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한국사회학회/농식품부) 등이 있다.

제2장 중앙정부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과 동향

제1절 농업인력육성교육의 현황¹⁾

농업인력육성교육²⁾은 크게 학교 농업교육과 사회 농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미래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농업교육과 현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개발하는 사회 농업교육은 교육 대상 뿐 아니라 교육 주체, 교육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력육성교육을 학교 농업교육과 사회 농업교육의 구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학교 농업교육

1)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는 일제시대 4년제 농업학교, 농림학교 등이 해방 후 6년제 농업중학교로 바뀐 후, 1951년 6-3-3-4학제 확립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전 교과목의 30%이상을 농업 과목으로 하는 학교에 대하여 농업고등학교 명칭을 붙이기 시작한데서 출발하였다. 1960년

1) 마상진(2010.8), 「농업교육의 반성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월례발표자료 참조

2) ‘농업인력육성교육’이란 정책용어는 아니지만 좁게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지만 넓게는 ‘농업교육’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교육은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하고, 또 개인이 농업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농업 관계직에 관련된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농업직을 택하고 그 직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해, 판단력,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여 초임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미 농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 교육의 일부’로 정의함. 송해균 외(1987) 참조

에는 모든 농업계 고등학교가 순수 농고였고, 그 수는 1969년 133개까지 이르렀다가 이후 순수 농고는 종합고등학교 내지는 실업고등학교로 전환하여 농업관련 학과 이외에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농업계 고등학교³⁾는 2009년 기준 전국에 71개가 존재한다.

2010년 현재, 농업계 학과를 위주로 개설하고 있는 순수 농고는 동래 원예고등학교,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유성 생명과학고등학교,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고양고등학교, 발안 바이오과학고등학교,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용인 바이오고등학교, 홍천 농업고등학교, 청주 농업고등학교, 충주 농업고등학교, 보은 자영고등학교, 진천 생명과학고등학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서산중앙고등학교, 천안 제일고등학교, 부여 산업과학고등학교, 김제 자영고등학교,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호남 원예고등학교,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전남 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경남 자영고등학교,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등 29개이고, 이들 학교를 통해 졸업한 학생은 4,896명(2009년 졸업생)이다(<표 2-1> 참조).

<표 2-1> 농업계 고등학교(순수 농고) 현황

학교명	개설학과	졸업자
동래원예고등학교	공통과*, 환경조경과, 생활원예과, 생물공학과, 식품가공과	186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유통정보과, 생태조경과, 산업기계과, 응용화학과, 과학과, 바이오식품가공과	269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애완동물과, 식물과학과, 식품과학과, 조리과학과	203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산업과학과, 생명과학과	293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유통정보과, 생활원예과, 생명과학과, 애완동물과, 식품가공과, 골프관리과	140
고양고등학교	정보전자과, 화훼장식, 애완동물과, 식품가공과	288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산업기계과**, 동물자원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기능성식품과학과, 바이오식품과학과, 푸드스타일링과, 레저생명산업과	109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산업기계과, 생물과학과, 식물자원과, 식품산업과	335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조경과, 자영축산과, 자영원예과, 자영식품산업과	133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원예과**, 환경보건과**, 식품가공과**, 조경디자인과, 바이오식품, 플라워디자인과	63
홍천농업고등학교	농업경영과, 식품가공과	98
청주농업고등학교	보통과*, 농업유통정보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287

3) 농업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순수 농고이외에, 가사실업계 고교, 종합 고등학교 중 일부가 여기에 포함됨

	생활원예과, 동물자원과, 산림환경자원과, 식품가공과, 골프환경과	
충주농업고등학교	농업기계과 ^{**} , 원예과 ^{**} , 동물자원과 ^{**} , 식품가공과 ^{**} , 조경과, 생명과학과, 환경보건과, 식품생명과학과	162
보은자영고등학교	시설원예과, 식품가공과	86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원예과 ^{**} , 농업기계과, 정보통신과, 바이오원예과, 생물자원과	143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농업경영과, 원예경영과, 축산경영과, 유통정보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221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과*, 인문과정, 산업조경과, 원예조경과, 산업기계과, 전기과, 컴퓨터제어기계과, 생활원예과, 생물산업기계과, 관광조리과	211
천안제일고등학교	공통과*, 산업유통정보과, 원예조경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토목정보과, 토지행정과, 산업기계과, 농공과, 애완동물과, 동물자원과, 식물자원과, 관광조리과, 식품가공과	322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자동차과, 건설정보과, 식물자원가공과	66
김제자영고등학교	농업토목과 ^{**} , 농업기계과 ^{**} , 자영농과 ^{**} , 자영축산과 ^{**} , 자영원예과 ^{**} , 농산업기계과, 동물자원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112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필축산과	23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과 ^{**} , 농업유통정보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산업기계과, 원예과, 애완동물과, 식량자원과학과, 식품가공과, 골프경영관리과	250
호남원예고등학교	바이오생명과학과, 화훼장식조경과, 생물산업정보과, 식품가공과	94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조경과 ^{**} , 농업기계과 ^{**} , 농업전산과 ^{**} , 원예과 ^{**} , 생물유통정보과, 조경인테리어과, 산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플라워디자인과	75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자영과	127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농업유통정보과, 산업기계기술과, 식량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135
경남자영고등학교	자영과	66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공통과*, 농산업기계과, 국제농축산학과, 도시원예과, 식품가공과	223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생명산업과, 자동차과, 전자컴퓨터과, 인테리어디자인과	176
합 계		4,896

*) 1학년만 개설된 학과

**) 2010년부터 개설되지 않는 학과

※ 졸업자는 2009년 기준임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전문계 고교 현황」 2010.

2)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전문대학은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1962년)에 따라 농고에서 5년제 농업고 등전문학교로 바뀐 뒤, 1970년을 전후하여 2년제 농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이들 농업전문학교는 이후 농업전문대학(1979년)으로 바뀌었고, 상당수가 산업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농업계 전문대학은 1970년 후반 이후부터 생겨난 대학들이다.

<표 2-2> 농업계 전문대학 현황

대학	학과(전공)	정원(명)	
		전체	생산관련과
한국농업대학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채소학과*, 과수학과*, 화훼학과*, 대가축학과*, 중소가축학과*	300	300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원예계열(채소경영, 과수경영, 화훼경영)* 동물자원계열(낙농한우경영, 양돈양계경영, 축산식품경영)*	90	90
익산대학	농업경영과*, 동물자원과*, 환경원예디자인*, 특용작물가공, 녹지조경, 약재개발	220	110
구미1대학	원예산업계열*(원예조경, 미래농촌지도자지식농업인)	66	
서라벌대학	친환경농업기술과*, 애완동물보건관리	90	30
신구대학	식물응용과*, 자원동물과*, 환경조경	240	240
전남과학대학	화훼원예과*, 전통약재개발, 애완동물관리	60	30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 친환경원예과*, 화훼장식, 환경조경, 동물보호	360	240
합 계		766	1,106

*) 농업 생산관련학과

자료 : 마상진(2008),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전문대학 137개 중에 농업계 학과⁴⁾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26개이고, 이중 농학, 원예, 축산 등 전통적인 농업 생산분야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농업대학⁵⁾,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익산대학⁶⁾, 구미1대학, 서라벌대학, 신구대학, 전남과학대학, 천안연암대학 등 8개에 불과하다. 농업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3,126명이지만, 농업 생산 관련 학과로 한정하였을 경우 총 1,106명(2008년 기준)이다(<표 2-2> 참조).

4) 여기서 농업계 학과란 농업 생산(농학, 원예, 축산) 학과, 농업관련 서비스(조경, 식품, 애완동물 등) 관련 학과를 의미함

5)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함

6) 익산대학은 2008년 전북대학교와 통합함

3) 4년제 농업계 대학

현재의 농업계 4년제 대학은 공립의 경우 해방 전 농업전문학교, 농림전문학교가 해방 이후 국립대학의 농과대학으로 개편되거나⁷⁾, 해방 이후 생겨난 초급농과대학이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된 데에서 출발⁸⁾하는데, 현재 농업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37개이지만, 농업계 단과대학이 있는 학교는 27개이다(2008년 기준).

국립으로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상주대학교⁹⁾, 진주산업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17개이고, 사립으로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10개가 있다. 4년제 농업계 대학의 학생정원은 9,147명이었지만, 이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농업 생산(농학, 원예, 축산) 관련 학과의 정원은 2,470명에 지나지 않는다.

4) 학교 농업교육의 한계와 과제

학교 농업교육이 직면한 기본적인 과제는 농업계 학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 인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학교 농업교육은 양적 감소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농업계 학교가 전통적인 농업학교의 명칭을 버리고 산업 구분이 모호한 명칭을 택하고 있어, 어떤 학교와 학과가 농업계 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가령, 단과대학의 명칭을 보면 농과대학은 1992년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의 변경이 가장 많고, 이밖에 농업생명환경대학, 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임과대학은 산림과학대학이나 산림환경과학대학으로, 축산대학은 동물자원과학대학을 거쳐 동물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과(전공)의

7)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의 농과대학 사례

8)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의 농과대학의 사례

9) 2008년 경북대학교와 통합함

경우 1994년 교육부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학과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1995년 대학모형의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학부제가 도입되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농학계 대학 내부의 변화 노력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농업계 학과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단과대학 명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되었는데, 전통적인 학과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는 식품공학과 정도이고, 농학과는 식물자원학, 작물생산공학, 작물생명과학, 식물응용과학, 식물자원응용공학 등으로, 원예학과는 유사학과와의 통합을 통해 식물응용과학, 식물생명과학 등으로 변화하였다.

교육목적과 관련하여서도 농업계 학교는 전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부터 교육기관의 성격을 ‘중견 농업인’ 양성기관에서 ‘농생명 산업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농생명 산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직업기초 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상황이다(이용환 등, 2004). 4년제 농업계 대학의 경우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과들의 기본 지향방향은 생산농업분야보다는 생명공학(BT), 정보공학(IT), 나노공학(NT), 환경공학(ET) 등 농업관련 산업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영농 현장에 대한 기여보다는 논문 편수 위주의 대학 및 학과, 그리고 교수평가 체제 역시 지역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학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대학(WCU)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 생산농업을 유지하는 학과는 학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탈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학 교수별 전공세분화로 인해 개별학점 위주 그리고 세부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어 복잡 다양한 영농현장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위주의 강의와 실험교과로 영농현장에 적합한 인력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계 4년제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영농인력은 매년 200여명 수준으로 한국농수산대학(한국농업대학) 1개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2. 사회 농업교육

사회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은 광복이후 미군정하의 농업기술교육령에 따라 설치된 농사개량원¹⁰⁾, 각도의 지방교도국과 군의 농사교도소의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활동 그리고 1950년대 대한금융조합연합회¹¹⁾나 대한수리조합연합회¹²⁾의 농사기술지도, 생활개선지도 활동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협, 농촌진흥기관,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현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농업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인 교육을 시행하는 주요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첫째, 농식품부가 농정목표와 연계하여 공공이나 민간의 단체를 통해 위탁 또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둘째, 농식품부와 별도로 농촌진흥기관이 자체 계획 하에 추진하는 교육 셋째, 농협의 조합원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농식품부/농업인재개발원의 농업교육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농업인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을 발족시키고 모든 농업인 교육의 기획, 관리, 평가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크게 공모과정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 위탁한 귀농교육이 있다.

먼저 정책목표와 연계된 공모과정 교육에는 창업·경영·마케팅 분야에 12개 기관(14개 과정), 친환경·품목기술 분야에 11개 기관(13개 과정), 조직화·리더십·농촌 분야에 11개 기관(12개 과정)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591명(2010년 기준)의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표 2-3> 참조).

10) 농촌진흥청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11) 농협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1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표 2-3> 농식품부 지원 하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 교육

분야	기관명	과정명
창업·경영·마케팅 (683명)	충북농업연구원	농업인 인터넷 상거래 운영자과정
	한국농업CEO연합회	농수식품경영체 실무자과정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전업농 교육경영 과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HIGH-UP 농식품 벤처사업 성공비법
	농촌개발원농업회사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과정
	농수산무역신문	농식품수출 전문가과정
	인포마스터	Real-Business 전문가 마스터과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경영체 경영회계과정
		전업농 전문경영과정
	이지탐	화훼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촉진 전문가 과정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업인 초급분야
	한국여성발명협회	우리농촌 지적재산권 갖기
친환경· 품목기술 (985명)	에리트경영연구소	농업인 경영전문가과정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 품목기술심화과정
	강원대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친환경유기농업 아카데미과정
	한국신지식농업인회	감와인 제조과정
		매실 가공(응용) 실무교육
	경남과화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베드딸기 재배 신기술재교육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고품질 조경수 재배과정
		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식품 가공리더 육성과정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원예환경제어 맞춤형 과정
	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	친환경 축산농가기술 및 HACCP교육 육성과정
	농경과 원예(주)	친환경먹거리를 선도하는 힐링푸드메뉴개발 전문가과정
조직화· 리더십· 농촌 (4923명)	한국종자연구회	식물신품종보호 지적재산권 과정
	전북지역농업연구원	농업·농촌 핵심리더 교육과정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
	한국양돈기술원/지역아카데미	한계농촌지역개발과 어메니티 활성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K-melon 조직화 프로그램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를 접목한 농촌관광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혁신지도자 리더십 육성과정
명소IMC	도농교류형 영농조합법인 운영실무과정
부래미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마을축제 리더양성캠프(초-중-고급과정)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리더 및 실무자교육
사회적기업 이장	농정 거버넌스 주체 역량강화 교육

자료: 농업인재개발원, 내부자료, 2010.

주) 위의 교육 중 상당부분은 농촌인력육성과정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시행주관에 따른 분류이므로 함께 검토하기로 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부터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시작되었는데, 전국 9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교육·지도기관(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의 상호협조체제를 기반으로 한 개씩 설립되어 있고, 이를 통해 축산, 식량작물, 과수, 원예, 특용작물, 친환경과 등 22개 전공에 2,199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당초 4년 과정으로 출발하였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는 2년제로 축소·운영되고 있다(<표 2-4> 참조).

<표 2-4> 농업마이스터 대학 현황(2010년 말 현재)

대학	캠퍼스	전공	교육 인원	대학	캠퍼스	전공	교육 인원
경기농업마 이스터대학 (245명)	한국농수산대학	수도작	21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 (238명)	전북인력개발원	멜론수박	11
		인삼	24			한우	29
		버섯	26			양돈	27
		시설채소	26			사과	27
		친환경채소	29			포도	26
		사과	23			순천대	친환경단감
		한우	24		청정인삼		19
	환경대	포도	24	친환경한우	29		
		양돈	20	전남농업 마이스터 대학 (296명)	전남대	한우	30
농협대	화훼	28	버섯			24	
	한우1	28	배			27	
강원농업마 이스터대학 (219명)	강원대	친환경채소	25		목포대	화훼(장미)	24
		인삼	29			조미채소	23
		시설채소	26		온실작물연구소	딸기	22
		상지대	한우2			28	시설채소(토마토)

충북농업마 이스터대학 (262명)	강릉대	친환경경종	29	경북농업 마이스터 대학 (278명)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경종	26
		파프리카	27			양돈과정	26
		감자	27			영남대	복숭아
	충북농업연구원	딸기	25		안동대	한우	28
		포도	29			고추	18
		수박	28			마늘	30
		고추	18			경북농업기술원	친환경채소
	충북대	인삼	28		경북대학교	배	20
		한우	32			참외	30
		건국대	사과			32	사과
양계	29		포도	33			
흙살림	경종	23		버섯	27		
	채소	18					
충남농업마 이스터대학 (269명)	충남대	딸기	24	경남농업 마이스터 대학 (247명)	경남농업기술원	시설딸기	29
		시설채소	25			참다래	21
		인삼	34			경상대	토마토 파프리카
	공주대	버섯	29		화훼		19
		친환경채소	26		버섯	21	
		친환경경종	30		진주산업대	고추	29
		사과	30			사과	29
	한우	29	한우			28	
	천안연암대	양돈	22		부산대	양돈	19
		배	20			단감	26
전북농업마 이스터대학 (238명)	전북인력개발원	친환경수도작	28	제주농업 마이스터 대학 (145명)	제주대	감귤	24
		버섯	26			친환경과수	31
		딸기	22		제주발전연구소	아열대과수	25
		토마토	21			한농연 제주지부	한우
		파프리카	21		제주축협	양돈	34
		시설고추				합계	

자료: 농업인재개발원. 2010. 내부자료

2010년부터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귀농교육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은 권역별, 분야별 맞춤형교육운영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제공하며(<표 2-5> 참조), 온라인 교육은 귀농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uiturn.com/>)를 통해 귀농탐색, 준비 초기단계의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표 2-5> 귀농·귀촌 교육현황(2010년)

구분	기관명	분야(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실 습 형	경주환경 농업교육원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의 과채류의 재배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영농기술 습득, 자연자재를 이용한 토양관리 및 병충해 방제 방법 학습, 생산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방법 터득, 농기계 조작방법과 정비 방법 터득	35
	그린투어 컨설팅	농촌의 현실과 바람직한 귀농귀촌 정착방안, 지역선택의 중요성과 선택방법, 귀농귀촌 성공사례의 케이스터디, 지역내 멘토와 지역사회와 협력 및 기여 방안, 귀농귀촌 목표와 사업계획 작성	30 (1기수)
	농어촌빈집 주인찾기 사업단	자신에 알맞은 지역선정과 평가, 농어촌의 빈집 찾기, 빈집 평가, 설계도 그리기, 예산계획, 공사 계획, 전기 배선, 등기구 교체요령 안전수칙, 상·하수도 배관점검 및 교체 요령, 각종 목공장비 다루기, 생태화장실 만들기 등	25 (3기수)
	명소-IMC	농촌의 생태적·자급자족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목공구와 목공기계 사용법을 익힘. 목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 (3기수)
	부산귀농학교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참가자 스스로 농촌에서 자립하여 살수 있도록 가이드역할에 초점, 귀농선배와 귀농희망자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 산야초 기행, 탐방(산나물 들나물 캐기, 효소담그기 실습 등)	15 (1기수)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참가자 스스로 농촌에서 자립하여 살수 있도록 가이드역할에 초점, 귀농선배와 귀농희망자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 생태 집짓기 체험과정(흙벽쌓기, 구들농기 등)	15 (1기수)
	(사)전국농업 기술자협회	이론(40%)과 실습·체험·견학(60%)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쉽게 농업·농촌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벼농사, 채소, 농기계실습, 파수재배, 마케팅 등 종합적인 교육	25 (1기수)
	에이티알앤디	일반강의와 실습의 구성으로 귀농성공을 위한 마인드 형성 방법론, 귀농경영 자금 운영관리,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유통 방법론 등의 이론에서부터 농기계 운용실습, 과채류, 엽채류, 사과, 딸기, 배, 포도, 병충해관리 등 종합적인 실습 병행 교육	30 (1기수)
	전국귀농 운동본부	토양학과 시비법, 작물이론, 축력 및 인력의 효과적 사용과 연장활용, 전통농업의 재해석과 신농법의 적용, 윤작을 기초로 한 작부체계와 농사력	20 (1기수)
		환경과 에너지 위기, 자연건강, 대안교육, 전통농업, 농촌생활기술, 직거래와 판로, 농가방문과 실습	50~80 (7기수)
		적정기술과 대안에너지, 농부가 알아야 할 토양학과 퇴비	30 (2기수)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한국 구들의 구조 이해-함실,고래,회굴,굴뚝,구들돌마감,한지마감 등, DIY통나무 사랑방만들기(집짓기두레), 귀농, 귀촌정보-황토구들마을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 소개(6동)-강원도 평창의 농업현황(감자,잡곡을중심으로)	15 (4기수)
	(사)무진장좋은 마을네트워크	귀농귀촌 선배와의 대화를 통한 농촌의 현실이해,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가공법 배우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식품위생법 배우기,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창업 방안 모색	20 (1기수)

합 숙 형	귀농영농 조합법인	귀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 황토흙집과 농산물 가공(발효) 노하우 습득, 귀농인의 황토 흙집 가공, 성공, 실패, 사례분석,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인프라 구축	30 (4기수)
	농협중앙회	도시직장인 귀농귀촌교육으로 야간을 이용한 교육·실습, 토론, 현장체험을 병행 운영, 기초적인 영농기술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귀농귀촌희망자의 현장적응력 제고	40 (2기수)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과수중심의 합숙형 교육으로 귀농정책, 지원계획, 지자체 지원제도 성공사례, 농기계실습, 토양관리, 과원관리 기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기술 및 현장맞춤형교육, 과수경영설계, 농장경영분석, 전자상거래	25 (1기수)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원예(채소) 중심의 합숙형 교육으로 시설원예(채소류)재배기술 및 수확후관리기술, 농산물 유통·가공 실습 및 전자상거래(마케팅), 선진농가 견학 및 현장 실습(농기계실습포함), 농업기술, 기본교육 및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25 (1기수)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버섯중심 합숙형교육으로 버섯산업의 이해, 재배기술의 이해, 버섯가공이용기술의 이해, 버섯 유통마케팅 기술의 이해, 창업에 따른 실무교육, 귀농계획서 작성을 통한 농업 창업교육	30 (1기수)
	(재)한국농촌 문화연구회	약용작물 중심 합숙형교육으로 한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제시, 고품질 한약재생산을 위한 약용작물 생산 및 저장기술(재배-가공), 한약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상품개발 기술	30 (1기수)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	과수 중심 합숙형교육으로 과수원 개원 및 시설설비 방법, 4대 과수 및 특용과수 특성 및 재배관리, 선진농가 및 과수유통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교육, 수별 영농정책 성공사례 특강, 농업기초기술 향상을 위한 기초이론교육	20 (1기수)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원예채소 중심 합숙형교육으로, 채소재배의 이론과 실습, 농업정책과 전망, 가공의 실제, 농업경영전략, 농업생산시설과 농자재, 사례로 보는 귀농성공요인 분석, 작물재배론, 친환경농업 등 귀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25 (2기수)

자료: 천안 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내부자료, 2010.

2) 농촌진흥기관의 농업 교육

농촌진흥기관에서는 투철한 직업관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년 120여만 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등 6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14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2-6> 참조)

<표 2-6>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 현황

구분	과 정 별	기 간	실적(명)
농 촌 진 흥 청	소 계		1,243
	농업인 교육 ¹⁾	2일~8개월	948
	소비자 교육 ³⁾	2일~8개월	295
도 원 농 업 기 술 원	소 계		23,881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¹⁾	1~2일	7,107
	전문농업정보교육 ⁴⁾	2~3일	1,360
	기계화영농사교육 ⁴⁾	2주	696
	신규 농업인 농기계교육 ⁴⁾	1주	30
	일반 농기계교육 ⁴⁾	1~3일	4,140
	여성농업인과제교육 ²⁾	1~2일	10,548
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계		1,182,380
	농업인대학 교육	20~40일	8,766
	품목별 상설교육 ¹⁾	1일	90,173
	당면과제 현장교육 ⁴⁾	1~2일	202,341
	수출품목 교육 ¹⁾	3일	13,158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⁴⁾	1일	395,792
	GAP교육 ⁴⁾	1~2일	35,091
	정보화 교육 II ²⁾	2~3일	10,879
	농산물 가공 II ²⁾	2~3일	5,098
	농기계 II ⁴⁾	2~3일	32,113
	정보화교육 I ²⁾	1~2일	13,948
	농산물가공 I ²⁾	1~2일	13,926
	취미교양교육 ²⁾	1~2일	84,366
	농기계 I ⁴⁾	1~2일	29,786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²⁾	1~2일	133,375
	초중고생 교육 ³⁾	1~2일	58,744
	소비자 교육 ³⁾	1~2일	54,824
합 계			1,207,504

자료 : 농촌진흥청. 2010. 농촌지도사업보고서.

주 : 1) 품목별 전문교육, 2) 평생교육, 3) 농심교육, 4) 실용교육을 의미함

3) 농협의 농업교육

농협에서도 교육원 소집교육, 농촌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원 소집교육은 농

협대학, 안성, 창녕, 경주 등의 교육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조합원의 농협 주인의식 고취, 협동조합운동정신에 투철한 협동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매년 34,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농촌 현장교육은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 등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교육으로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농협운동 및 사업 교육, 생활 및 기타 교육이 이루어지고, 매년 100만 명 규모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대학’

농업인대학은 강화군의 ‘환경농업대학’(1999)을 필두로 2009년 말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농업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009년 기준으로 116개(지방비 11개)¹³⁾ 대학 230개 과정이 실시되었고, 입학인원은 10,143명, 수료인원은 8,766명으로 약 참여자의 86.4%가 저체과정을 이수하였다(<표 2-7>) 참조).

<표 2-7> 지자체의 농업인대학 운영현황

구분	대학수	과정수	입학 인원(명)	수료 인원(명)	지 역
경기	15(1)	43	1,677	1,453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지방비)
강원	10(1)	15	651	559	농업기술원, 원주(2) ^{**} , 강릉(2), 삼척, 홍천, 정선, 화천, 양구, 양양, 영월(지방비)
충북	9	20	770	682	제천, 보은, 옥천, 영동(2),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	15	28	1,188	1,038	천안, 공주, 보령(2),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2),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전북	13	27	1,225	97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17(5)	35	1,668	1,462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화순(2), 장흥,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전남도원·강진·신안·함평·무안(지방비)
경북	21(3)	31	1,465	1,307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예천,

13) 국비지원 개소수는 110개소이지만, 시군에 따라 2개소 예산을 지원하여 국비지원으로 운영하는 실제 농업인대학 개소수는 105개이며, 지방비로 운영하는 대학 개소수는 11개로 총 116개소.

					봉화, 울진, 영천·군위·청송(지방비)
경남	11(1)	18	816	765	창원(2), 진주, 사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합천, 함양, 거창(지방비)
제주	1	3	318	221	
부산	1	1	32	32	
인천(강화)	1	5	174	145	
광주	1	2	94	73	
대전	1	2	65	54	
계	116(11)*	230	10,143	8,766	해당 시군

*) 팔호안의 숫자는 지방비로 운영되는 대학 수

**) 시군에 2개소 사업을 배정한 곳은 7개소임. 강원 2개소(원주, 강릉), 충북 1개소(영동), 충남 2개소(보령, 부여), 전남 1개소(화순), 경남 1개소(창원)이며, 충남은 초기 14개소를 지원받았으나 도에서 15개소(논산 추가)를 지원하였고, 또한 추경에 의한 추가지원(2개소)은 기배정한 보령, 부여에 중복 지원함. 또한 '06~'08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역인 강릉, 영동, 화순, 창원은 '09년부터 농업인대학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국비 50 → 15백만원으로 하향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 과정 지원함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보고서」 2010.

농업인 대학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기존의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해 오던 단기성 교육 프로그램 외에 지역의 특산물과 농촌관광 등을 중심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체계적 준비과정 없이 지자체들이 무조건으로 농업인 대학을 설립하여 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¹⁴⁾, 기존 농업인 교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개월 이상의 비교적 장기 교육 운영으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 교육(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대학에서는 기술교육 이외에도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재미 있는 농업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교육 종료 이후에도 사후 관리 프로그램(학습조직, 컨설팅)을 운영하고, 영농 현장에서의 실천 조직(작목반, 법인)과 연계를 통해 교육한 내용이 영농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특히 현장 농민들을 잘 이해하는 현장 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농

14) 교육생간의 연령 차이, 기술 수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부족, 타교육들간의 중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체성, 전국 또는 광역단위 타 시도간 교류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단위 교육의 관리체계 마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업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시군 단위로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 농업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 농업교육의 한계와 과제

이상 농식품부, 농촌진흥기관, 농협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회 농업교육 외에 농업연수원의 농정시책 관련 교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교육,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정보 교육 그리고 농식품부 내에서도 품목 단위 경제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등이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그램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마상진, 2010).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현장요구를 수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재를 개발해야 하며, 교육내용에 걸맞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체계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차기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이수자들에게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현장 컨설팅 연계나 학습조직 지원 등 사후 지도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야 하다.

그렇지만 현실의 사회 농업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이를 강의실에서 농업인과 만나게 해주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프로그램이 일회적, 이벤트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프로그램간 내용의 연계는 매우 요원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현장 강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교육단계 별로 보다 정교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이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나 기타 농업 관련기관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인의 신기술 습득, 경영 능력 제고 등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인의 인간성 회복과 자연·환경과의 교감 등 풍요로운 삶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것을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여러 농업경영과 관련된 도전적인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라 지쳐있는 시기에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를 고려해 볼 때, 수십 년 동안 찌들어온 돈만 중히 여기는 경제적 삶보다는 농업 이외의 다른 것, 예를 들어 농업·농촌의 가치와 철학, 중산층 도시민들이 즐기는 교양적 삶, 인문학의 경험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¹⁵⁾ 농업인들이 직업적 삶으로서 농업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교양적 교육이 그동안 너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농업교육을 너무 취농·귀농을 앞둔 사람들(농업계 학생 포함)이나 현행 농업인의 전문성 개발에만 초점이 두어 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잠재인력으로서의 일반 학생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이 부재하고, 또한 은퇴를 앞둔 고령 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2절 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

1. 농촌인력(=지역리더) 육성정책의 경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리더¹⁶⁾육성’이 독자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차 농림

15) 마상진. (2008. 1. 18). 인문학을 통한 자신감 회복. KREI 논단.

16) 지역개발 특히,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리더”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2004년 (재)지역재단이 창립되고, 지역리더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터인데, 당시 대부분의 반응은 ‘지역지도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새롭게 ‘지역리더’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냉소 그 자체였음. 하지만, 당시 지역재단에서는 과거 관 주도 시절의 새마을(운동)지도자나 마을이장으로 대표되는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적인 소양과 자질을 가진 ‘지도자’로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정책 환경에 걸맞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역리더’를 주창하고, 지역리더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농정연구센터(2004) 참조), 이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정착화되어 아직도 시행되고 있음(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이에 따라 이제 ‘지역리더’라는 용어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산업인력으로서 농업인력육성과 지역개발인력으로서 지역리더육성을 분리하여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농림부),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농촌진흥청), 아름마을가꾸기사업(행자부) 등 이른바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력육성과 구별되는 내용과 방식의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이라는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대규모 농촌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에 지역리더육성과정의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추진과제로 "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양성, 전문가집단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채택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농산어촌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개발리더 양성을 위해 ①마을이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에 필요한 지역발전 비전 제시, 지역발전 프로그램 기획, 지역경영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역량 배양하고, ②마을주민, 공무원, 유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 등을 교육하여 초급수준의 지역리더를 육성하며, ③교육수료자에 대한 교육학점관리제를 실시하고 교육수료 내용 등을 기초로 단계별 인적자원역량을 구분·관리하는 등 지역개발분야 교육을 수료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며, ④여성의 지역개발역량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교육수료자 비율을 2005년 8%에서 2009년 30%로 확대하고, ⑤대학, 교육컨설팅업체,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전문기관간 교육내용 조정 및 장기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개발리더, 마을주민을 지원할 외부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①지역개발분야별 전문가 풀 구축 및 농산어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개발인재뱅크를 마련하여 지역개발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DB화하고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등을 쉽게 찾아서 지역개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검색 및

행정기관에서조차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용되고 있음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②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contest’ 개최, ‘고향 가꾸기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③농산어촌 지역개발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은퇴자,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 인턴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개발역량을 갖춘 마을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인적자원이 포함되도록 사업지침을 수정하고,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인적자원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사업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적자원 충원을 사업대상 선정 시 의무화 하였다.

넷째,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①지역리더, 관련전문가, 출향인 등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의 인적자원을 총괄 대표하는 新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하고 이를 위해 新직업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新직업군 전국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구축,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며, ②지역개발 CEO제도 등 지역개발 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군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1단계(2005년)로 농촌지역개발전문인력을 100명 육성하고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를 구성하며, 2단계(2006~08)로 농촌지역개발전문인력을 2,000명 육성하고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를 마련·운영하고, 3단계(2009)로 농촌지역개발전문인력을 2,500명 육성하고 지역개발 新직업군을 활성화시킨다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 기본계획’에 나타난 농촌지역개발인력 육성계획은 2005년 4월,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에 의해 리더양성교육,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공무원특별교육 등 교육과정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었다.

2. 농촌인력(=지역리더)육성을 위한 정책현황

농촌인력육성사업은 2010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향토음식개발과정,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과정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지자체단위에서도 지역개발 리더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표 2-8> 농촌지역개발관련 교육프로그램 (2009)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리더십육성과정	○ 교육인원 : 300명(2박3일, 12회) - 농어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 250명 -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육성과정 : 50명	
향토음식개발과정	○ 교육인원 : 250명 - 향토음식개발·농가식당운영과정 : 150명 - 향토음식개발 기초과정 : 100명	
녹색농촌체험 동기화과정	○ 교육인원 : 1,140명 -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 과정	

여기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역리더육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농촌 인력(지역리더)육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프로그램(2009년)의 개요를 보면, ①교육목적은 지역주민, 지방공무원과 더불어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을 가지고 도농교류활동 및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지역리더 양성하는 동시에 기초생활환경, 농촌관광, 경관보전, 향토산업 등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분야에서 기획력, 수행능력 등 복합지식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며, ②교육인원은 300명(농어촌지역개발 250명, 도농교류활성화 50명)이고, ③교육기간은 농어촌지역개발과정 2박3일(10회), 도농교류활성화과정 2박3일(2회)이며, ④교육대상은 농어촌지역개발분야의 경우, 농어촌지역개발사업관련 지역리더(추진위원, 부녀회장 등) 및 업무담당 공무원, 이전단계 교육이수자 등이며 도농교류활성화 분야의 경우는 농촌체험마을사업 지역리더(추진위원, 부녀회장 등) 및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다. 또, ⑤교육과정은 농어촌지역개발과정과 도농교류활성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은 리더로서의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한 「리더 동기화과정」, 리더 기본자질 향상을 위한 「실천리더 양성과정」과 사업적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혁신리더 양성과정」, 「리더양성 워크숍」 총 4단계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육성과정’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력(=지역리더)육성사업은 2005년 4월에 발표된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개편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2004년에 개발된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표 2-9> 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의 구성 및 주요 학습내용(2009)

구 분	Module	주요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인원
도농교류 활성화	기초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관련 법령 및 정책 ○고객 성향분석: 기업체, 병원, 학교, 유통회사 등 ○고객만족 서비스 기법 ○1인 1촌 전문가 활용방안 ○도농교류 사례(1사1촌, 1교1촌 등) 	강의, 토의,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브랜드 개발 ○농산물 유통기법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유통기법 ○마을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 성공 사례 	강의, 토의,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진단 및 리더십의 이해 > ○농업·농촌 환경변화의 이해 ○나의 행동유형 진단 및 특성 이해 ○교류분석을 통한 관계훈련 워크숍 ○팀별 비전 만들기 워크숍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60명 (통합)
	실천리더 양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 > ○체계적 사고개발 훈련 ○학습지향성 개발 훈련 ○성취지향성 개발 훈련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50명 (각25 명, 2회)
	실천리더 양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관리 > ○조직의 이해와 조직력 개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조직운영 사례 분석 ○권한위임 역량 개발 훈련 ○영향력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40명 (각20 명, 2회)
	혁신리더 양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리 및 개발기획 > ○어메니티 및 지역자원의 이해 ○자원 조사 분석 ○지역개발계획 사례 분석 및 실습 ○원칙중심사고 개발 훈련 ○투명한 관리 역량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30명 (각15 명, 2회)

혁신리더 양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관리 > ○ 창의적 개선 역량 개발 훈련 ○ 지속적 도전 역량 개발 훈련 ○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30명 (각15 명, 2회)
리더양성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영 리더십 및 네트워킹 > ○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 이해 ○ 지역경영의 이해 ○ 리더양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토론 및 평가 ○ 농촌지역리더 네트워크 구성 	토론, 현장견 학	1박2일	40명 (통합)

자료: 2009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제안공고

2005~2010년,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리더육성과정의 수료자는 총 28,013명인데, 과정별로 보면, 리더양성과정 수료자가 전체의 3,462명이고 동기화과정 수료자가 17,960명이며 사업주제별특화과정 수료자가 6,591명이다. 각 과정의 수료자비율을 보면 리더양성과정이 12.4%, 동기화과정이 64.1%, 사업주제별특화과정이 23.5%이다(<표 2-10>).

그러나 이 숫자는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데 첫째, 각 과정마다 교육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농어촌마을리더과정의 경우는 동일인이 2박3일 과정을 6회 이수해야 하는 반면에 동기화 과정은 2박3일, 1회만 이수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시간 교육과정도 있는데, 모든 과정의 이수자를 동일하게 1인으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수료인원이 연인원이라는 것이다. 가령, 2007년의 농어촌마을리더 362명은 30명단위로 두 개반이 6회씩으로 구성된 과정교육을 수료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60명에 지나지 않으며, 해외선진지견학 인원은 각 과정의 이수자 중에서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산된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화과정을 이수해야만 다음 과정의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지역리더의 실제 인원은 <표 2-10>에 제시된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0> 중앙정부의 지역리더육성 현황 (연인원, 단위:명)

과정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계
1. 리더양성과정							
◇ 농어촌마을리더	240	290	362	377	420	650	2,339
◇ 마을사무장		175	137	148	238	425	1,123
소계	240	465	499	525	658	1,075	3,462
2. 동기화과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73	589	3,449	3,683	4,036		12,630
◇ 녹색농촌체험마을			1,275	1,515	1,180	600	4,570
◇ 신문화공간조성					690	70	760
소계	873	589	4,724	5,198	5,906	670	17,960
3.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 향토음식개발과정			135	294	269		698
◇ 농어촌문화과정				102	104	50	256
◇ 마을경영과정		89			128		217
◇ 국내/국외선진지견학	43	454	1,124	38	30		1,689
◇ 이민여성농업인농촌정착					739	1,200	1,939
◇ 교육과정 편성담당자					56		56
◇ 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138	156				294
◇ 농촌마을가꾸기			137				137
◇ 전원생활체험		225	490	536			1,251
소계	43	906	2,042	970	1,380	1,250	6,591
계	1,156	1,960	7,265	6,693	7,944	2,995	28,01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역량강화팀 내부자료

3. 중앙정부 농촌인력(=지역리더) 육성사업의 성과

1) 거시적인 성과

첫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이후,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추진방식이 중앙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으로 변화함

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소양과 자질, 능력을 갖춘 지역리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앙정부의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리더육성정책은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인적역량을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리더교육의 이수 여부를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의 중요성,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농촌지역리더육성이라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은 이전의 혼재되어 있던 농업인력 육성사업과 지역개발인력 육성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부분 농업이라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¹⁷⁾, 2005년도 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전까지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특히 농촌지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라는 관점에서 접근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에서도 그간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을 일부 시행해 왔지만 이것도 농촌지역사회 전체를 염두에 둔 역량강화 관점의 교육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많은 농촌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농업인의 생산기술이나 경영안정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이 개인의 영농기술이나 농가경영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는 기여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가 지역에 공유·전파되고 지역농업활성화 나아가 지역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행정 혹은 농협 등의 권유와 부탁에 의한 ‘시간 때우기’식 혹은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예산과 시간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리더가 육성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개발

17)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인교육은 개별 농업경영단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경영이나 마케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업인교육은 여전히 영농기술교육과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리더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역개발리더육성과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리더육성사업은 상향식지역개발을 위한 인적자본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지역리더육성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 2-9>에서 보듯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형식적으로는 25,000여명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지역개발리더과정을 이수하였다. 물론, 그중에서 지역리더의 육성이라고 하기 곤란한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사람이 여러 과정을 중복 이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양성과정’과 ‘동기화과정’은 이전의 농업인 교육과정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었고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직간접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역리더육성정책은 지역리더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신활력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촉진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05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은 마케팅·유통 및 영농기술이나 품목별 전문교육 내지 품목별 전문리더 양성(지역농업 혁신리더 아카데미,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농업테크노파크 RIS사업 등), 혹은 부분별 리더육성교육(농촌여성평생교육)이 중심이었으며 농촌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역리더’교육은 거의 없었다.

시·군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사업은 대부분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군민들의 문화, 사회, 건강, 생활, 운동 등 취미생활과 같은 교육과정 중심이었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역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작목별 영농기술교육이 중심이었으며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를 길러내는 농촌인력으로서 지역리더 양성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가 되면 전통적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도 토론식 강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내용, 전문성의 충실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고, 농

촌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농업을 전체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지역리더를 길러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¹⁸⁾

다섯째, 지역리더상호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의 모든 교육과정이 전국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리더들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지역리더들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제점과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러운 정보교환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미시적 성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역리더)교육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을 경험하게 하였는데, 운영방식은 일방적 강의보다 사례발표, 워크숍, 분임토론(토의) 등으로 운영되어 강의식으로 운영되던 기존 교육과 달리 참가자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 학습하며 배우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도 농촌지역리더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일해 나가기 위한 리더십 발휘 기법(skill)을 습득하며, 그들 스스로 농촌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어서 참신하게 받아 들여졌다.

교육진행방식과 교육내용의 참신성은 교육과정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의 운영기관은 거의 매년 바뀌었으며¹⁹⁾, 프로그램

18)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옥천군의 향수30리 아카데미가 있다. 향수30리 아카데미는 옥천군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육과정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시행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공직자리더과정, 귀농·귀촌인과정, 지역혁신리더과정, 마을해설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로 2박3일 4회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9)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의 운영기관은 2005년 (사)농정연구센터/(재)지역재단, 2006년 (주)지역아카데미, 2007·8년 (재)지역재단, 2009년 (주)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직영)로 바뀌어 왔으며, 교육프로그램은 2004년의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을 중심으로 2006년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으며, 운영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틀은 2004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램의 내용이나 구성도 부분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교육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운영기관이나 교육내용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2005년도의 경우, 리더십육성과정과 사업주제별 특화교육 모두 타교육과의 차별화와 교육만족도에 있어 8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분임토의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주민참여’나 ‘민관협치’ 등의 필요성에 공감도가 높았으며, 2007년도의 경우, 1~6회의 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모두 ‘만족’ 이상이라는 응답이 86%로 매우 높았고, 본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를 상회했다.²⁰⁾

한편,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리더육성사업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리더교육’의 필요성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개발사업 선정 시에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과정의 수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역량의 강화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4. 농촌인력(=지역리더) 육성정책의 한계

이상에서와 같이 농촌인력(=지역리더)육성정책은 첫째, 종래의 품목별, 전문 분야별 기술교육과 달리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지역리더육성교육으로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둘째, 교육방법도 일방적 강의방법에서 벗어나 사례발표, 워크숍, 분과토론 등 피교육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도입되었고 셋째, 단기적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최소 2~3개월의 장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넷째, 교육 내용도 단계별 수준별로 체계화된 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교육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리더교육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도 발견되고 있다.²¹⁾

왔다고 할 수 있음

20)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현, 한국농어촌공사 역량강화팀) 내부자료, 「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사업 결과보고서」 각년도.

21) 유정규·박경·정재호·송두범(2006),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방방안」

첫째, 리더 교육은 피교육생의 장기적인 태도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므로 소득증대나 영농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교육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수준이 제고되기 전까지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농촌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역량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론식 강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교육 스태프들이 필요하고 또 태도와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열정과 철학이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전문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민간교육기관에 맡길 경우에도 경험과 철학을 갖춘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셋째, 리더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실천지향적(action-oriented), 태도 변화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농식품부(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이나 몇몇 지자체의 리더프로그램은 이런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선진사례 견학, 지역경영과 마케팅, 기획력 등 리더십 교육에 필요한 기본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내용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에 미흡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지역특성과 교육대상자들의 요구, 교육대상자들의 선정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시·군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되리라 보이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현재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리더교육은 전국 공통의 표준적인 모델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리더교육은 본래 지역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각 지방에서도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상 아직 지역단위에서 리더교육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인식이 부족하므로 현재는 중앙이 담당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농촌지역리더교육은 발상의 전환, 새로운 리더십 기법의 습득, 자기확신의 고취 등을 통해 수료자들이 교육 이후에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리더 육성프로그램들은 교육수료자 간에 동기회 구성 등 참여자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있으나 교육위탁기관이 교육 후 사후관리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비용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탁기관의 개별적인 의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체계화된 사후관리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참여자가 겪고 있는 교육피로증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신활력사업의 시행(2005),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이 하향식·설계주의 방식에서 상향식 공모제로 바뀜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크게 늘어났고, 이제 ‘정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유치를 위한 각종 교육, 지역주민 본인의 생업과 관련한 교육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제 ‘교육피로증’이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교육피로증’의 확산은 주민들의 교육 참여의지를 약화시키고 교육효과도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피로증’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²²⁾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지역주민이 교육 참여에 특별한 유인과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은 큰 문제

22) 그 원인으로는 첫째, 교육이 양적 과다와 교육참여 대상의 양적 과소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즉,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량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은데다 농촌지역사회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할 수 대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참여기회와 부담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교육참여자들에게 교육피로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둘째, 교육의 질적 약화를 지적할 수 있음.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육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교육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셋째,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지역(=마을)전체의 변화 발전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따라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음. 넷째, 교육과 실천을 연계하는 통합적 인식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음. 다시 말해 교육내용을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뒷받침이 약하다는 점 또한 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와 연계된 정책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교육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교육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것임. 유정규(2009), 「새로운 지역발전시대 지역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2회 지역정책토론회, (제)지역재단.

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주민들의 교육참여를 촉진하고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제3절 최근의 농업·농촌인력 교육체계 개편동향

-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을 중심으로 -

1. 기본방향

첫째, 교육기관의 기능에 따른 전문교육 추진이다. 기관별 비전과 전략, 정책에 따라 체계적인 조율과 조정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과 프로그램의 중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정립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간다. 이를 위해 농어촌교육심의회 위상을 강화하여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교육운영 표준지침을 제정과 교육전문기관을 지정·인증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운영한다. 현재, 농업 농촌관련 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운영전략이 상이하여 교육의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실적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향후에는 성과중심·상시 평가 교육운영으로 실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운영 점검 및 평가체계 확립과 환류강화 그리고 분야별 교육운영 내실화와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셋째,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교육 추진이다.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서 모니터링, 초중등학생의 현장학습을 농어촌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2. 세부 추진계획

1) 교육추진체계의 재정립

첫째, 교육기관별 역할 재정립이다.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농어촌교육심의회’로 격상하여 범농수산식품분야의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을 심의 조정하도록 기능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농어촌교육심의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육기관장 및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하며, 농식품부의 각 실·국, 농진청과 산림청, 지자체 등의 교육계획을 심사하고 운영 평가, 과정조정, 교육이력 공동활용, 익년도 계획 승인 등 농어촌교육기관의 컨트롤 타원 역할을 담당한다. 부설기구로서 ‘농어촌교육포럼’ 및 ‘농어업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소통을 강화토록 한다. 교육기관별 장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역할을 명확히 한다. (<표 2-11>참조)

<표 2-11> 교육기관별 역할 및 기능정립(안)

구 분		현 황	개편(안)
농 식 품 부	경영인력과	-농업인, 농업학교 교육 총괄 *농업인단체, 민간기관, 대학 등 위탁교육 운영(마이스터 포함) -인력육성 정책 총괄	-인력육성 정책 총괄 -교육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계획 총 괄·조정 -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광역/전국단위 교육과정 운영(위탁방식)
	품목· 사업과	-품목특화교육 (자조금, 기금)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연계 특화교육
	농수산식품 연수원	-농업관련 공무원 교육 -소비자, 여성농업인 교육	-농어업관련 공무원 교육 특화 -농어업인 단체 임직원 교육(정책교육)
농 촌 진 흥 청	기술연수와	-시험연구, 지도공무원 교육 -시군단위 수요가 부족한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농업 기술교육 전문강사 양성(강소농) -최신 기술중심 지도훈련 -시험연구, 지도사업 종사자 교육
	지도개발과	-도기술원, 시군기술센터 교육관리 (농업인대학, 새해영농교육 등)	-기술원, 기술센터 기술교육 총괄운영 (농업인대학, 새해영농교육 등) -기술원, 기술센터 교육 평가
지자체		-초보기술, 경영, 취미교양 등 중 합교육	-정책전달 교육 -지역특화 교육 (분야별, 품목별)

농업인재 개발원		-평가, 사업관리 등 지원	-정책 개발, 평가, 집행 지원(연구조사 포함) -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평생학습·교육이력관리 등 포함) -신규 수요 및 모델 개발
공 공 기 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위원, 농식품부위탁 도 농교류, 농촌개발 교육	-지역개발 교육 등 기관특화영역 운영
	유통공사	-유통,농식품부 위탁 식품교육	-유통, 식품교육 등 기관특화교육 운 영(기존 교육 중복 조정)
	농협중앙회	-조합원교육	-품목별 조직화, 경제사업활성화 교육 등 특화(조합원 중심)
학 교	농수고, 농수산대학	-일반 실습교육 -멘토링 등 농고특성화교육	-현장위주 최신정보 학습, 훈련 -리더십, 창업 등 자긍심 고취
	농 어 업 계 대학	-일반 대학교육 -농촌체험등 농대활성화교육	-직업체험, 창업과정 운영 -농수산업 R&D 인력 유도
민간·단체		-단체별 개별 과정운영	-정책연계, 단체별 특성 반영 전문화 교육

자료: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2011.8), 「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
계 개편계획(안)」

둘째, 교육체계 정착지원이다. 범 농수산식품분야의 교육에 적용하는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하고, ‘표준지침’ 준수여부 및 교육정보(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검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기획, 교육생 능력향상방법, 교육기관의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교육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성과 측정 및 우수교육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교육시설의 수준과 확보 현황, 운영자의 역량 수준, 자체강사 확보 정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농어업교육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하며, 전문기관지정은 매년 실시하되 인증유효기관의 3년으로 한다. 또한, 교육우수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교육 우수기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교육성과의 공유를 위한 ‘농어업교육성과 전진대회’(농어업교육성과공모전, 교육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교육수강 수기 공모전 및 발표 등)를 매년 개최한다.

2) 분야별 교육 내실화

첫째, 수요자 중심의 자율 교육체계 구축이다. 정책목표에 적합한 표준화교육으로 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표준화, 표준교재개발, 강사pool, 역량진단도구 개발 등을 추진하며, 모든 교과목에 지역개발, 회계·IT, 기장생활화, 비영절감 등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품목단체, 자조금단체의 자율적인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설계지원, 교육운영사례 등을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토록 한다. 품목·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조합, 품목별연구회, 작목반, 법인경영체 등 기존 조직 및 농어업회의소, 지역공동체, 지역개발사업단 등이 상호연계하여 자율적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활동지원 및 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중으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확산시켜 나간다.

둘째,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현장중심 교육이다. 수요자(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 등)가 희망하는 교육을 주문받아 당해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 구성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단체, 지역주민 중 역량수준과 교육목적이 유사한 동일집단으로 구성한다. 교육희망자의 역량, 역할과 수준을 반영한 역량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진단을 통해 필요한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생산기술습득, 마케팅·경영위주의 교육을 지역개발, 지역산업육성, 농어업공동체 육성,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등의 확대하며,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현장중심의 실습형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내용의 다각화와 교육방법의 다양화(교육프로그램과 교육생의 역량을 고려하여 토론식, 체험식, 사이버강의 등 적용)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농어업인, 지역주민 교육에 적합한 교육방법 및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교육기관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실습교육, 액션러닝, 코칭, 학습조직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교육인프라 확충

첫째, 교육시설의 확충이다. 실습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현장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확보(현장실습교육장은 ‘신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전국 대표실습장 8개소, 선도농가실습장 57곳이 지정되어 있음. 2011년 8월 현재)토록 하며, 이를 위해 품목수요, 교육운영기관수요를 조사하여 실습교육 요건을 갖춘 기존교육시설 위주로 실습교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한다. 교육장, 실습시설, 교재, 강사 등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 운영인프라 확충이다. 강의교수의 능력향상과 품목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농어업교육기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농어업인의 행동이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강의능력을 향상시키며, 품목·분야별로 경영능력, 기술력, 창의력 등 역량이 있는 노어업인, 지역주민, 연구자, 유관기관 종사자를 현장전문가로 추천토록 하고, 강의교수의 정보를 DB화하여 교육기관간 공유한다. 선행학습과 보습교육을 위한 사이버농어업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농업교육포털(AgriEDU)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집합교육에 필요한 선행학습, 보습교육과 기초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통합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교육기반, 교육과정 등 정보공유와 교육과정의 중복 예방 및 이력관리를 위한 농업교육포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인력, 수요,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 교육통계와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셋째, 학교교육의 내실화 지원이다. 농어업계 학교(자영농, 수산고 등)의 현장교육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실습교육장을 인근 농어업인, 도시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간다. 신기술·신사업, 미래성장동력 사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련학과 중심으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직업 탐색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농수산계열 대학생의 농수산업분야 진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농수산업 발전방향과 연계한 학교 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대국민 농어업·농어촌 가치 이해 제고 교육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교과서 중 농어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정정하고 농어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며,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재(인증도서)를 개발, 보급해 나간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수업(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농어업·농어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에서 농어업·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둘째,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확대 및 귀농·귀촌교육 강화한다. 우수농장 방문, 농수산물 생산, 농어촌어메니티현장 방문 뿐만 아니라 농촌정착 우수사례 가정방문 과정, 전원생활 안내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수산물 생산·판매의 귀농중심의 교육에서 농어촌 생활체험 등 귀촌 교육으로 확대해 나간다.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기술센터 직원 및 재능기부 희망자로 '도시농업 및 초·중등 학교농장 운영 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도시지역의 도시농업, 학교농장 현장에 기술을 지원토록 한다.

셋째, 재능기부자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이해 증진교육을 시행한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인터넷·스마트폰 등 IT를 활용하여 재능기부 참여(스마일 농어촌운동) 이전에 농어업·농어촌 이해 기회를 제공하고, SNS를 활용하여 재능기부 소감을 후발 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3. 향후 추진계획

1) 교육추진체계 정립

중항목	세부업무	담당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교육기관 별 역할 정립	교육기관 별 역할 정립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교육심의회 지침 개정 농어업교육기관협의회 신설 운영 '12년 교육계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교육 전문가 포럼 시범운영 농어업교육기관협의회 운영 '13년 교육계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 및 협의회 운영 고도화 차년도 교육계획 심의

교육체계 정착지원	교육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농식품부 (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운영 표준 지침 제정 ◦ 농어업교육 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범 운영 ◦ 농어업교육 성과측정 및 우수교육 확산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확산 ◦ 농어업교육 성과측정 및 우수교육 확산
	교육기관 위상강화	농식품부 (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우수기관 인증 관련 체계 정립 ◦ 농어업교육 성과 전진대회 운영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우수기관 인증 및 지정 시범운영 및 개선 ◦ 농어업교육 성과 전진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우수기관 인증 및 지정 확대 운영 ◦ 농어업교육 성과 전진대회 지속 개최(매년)

2) 분야별 교육 내실화

중항목	세부업무	담당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수요자중심 자율 교육체계 구축	목표지향적 교육운영	농식품부 (인력과, 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교육 운영 지침 마련 ◦ 실국, 단체 등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교육 시범 운영 : 교육내용 표준화, 표준교재, 역량진단 도구 등 ◦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교육 지속 운영 및 단계적 확대 ◦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확대
	자율적 교육 운영체계 구축	농식품부 (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협회 교육운영 지원 (교육운영 여건 조성) 방안 수립 ◦ 교육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지침 수립 ◦ 농어업교육운영자 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담당자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공유 시범 운영 ◦ 농어업교육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범 운영 ◦ 농어업교육운영자 과정 시범 운영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담당자 동기부여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 확대 ◦ 농어업교육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확대 ◦ 농어업교육운영자 과정 확대 운영
	학습조직 지원	농식품부 (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조직 지원 체계 구축 ◦ 학습조직활동 지원 운영모델 개발(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조직 활동 시범 운영 점검 및 본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조직 활동 운영 사업 확대
눈높이 맞춤형 현장 중심교육	주문형 교육	농어업교육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형 농어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주문형 교육 수요 조사 실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형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 우수사례발굴을 통한

				◦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현장중심 실습교육으로 운영	교육방법 공유
	맞춤형 교육	농식품부 (인재원)	◦ 농어업인 역량모델 개선 ◦ 농어업·농어촌 관련 분야 교육수요 조사 실시 ◦ 농업인 성장단계별 품목교육경로 개발 및 시범운영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품목교육경로 확대 개발) ◦ 직무역량외의 타 영역 신수요를 반영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귀농귀촌 교육 내실화	농식품부 (인재원) 관련기관	◦ 귀농·귀촌교육의 실태 조사 실시 ◦ 귀농·귀촌교육 평가 체계 정립	◦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품질 평가 시범 실시	◦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품질 평가 확대

(3)교육인프라 확충

중항목	세부업무	관련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교육시설 확충	교육시설 공동활용 체계 구축	농식품부 (인재원)	◦ 지역단위 농업선진국 현장실습시설 조사 ◦ 지역별 현장실습교육장 실태 조사 및 DB 구축	◦ 지역별 현장실습시설 확충대상 선정 및 지원 ◦ 실습교육장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	◦ 현장실습시설 평가, 안정화 ◦ 현장실습교육장 확대 운영
교육운영 인프라 확충	현장교수 발굴 및 능력 향상	농식품부 (인재원)	◦ 현장교수 DB 구축 ◦ 농어촌 활성화 현장교수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확충	◦ 현장교수 DB 확보 및 공유 ◦ 농어촌 활성화 현장교수 아카데미 운영 및 보완	◦ 현장교수 DB 확보 및 공유 ◦ 수요조사를 통한 농어촌 활성화 현장교수 아카데미 과정 지속 운영
	농업교육포털 기능 강화	농식품부 (인재원)	◦ 각 기관별 교육정보 실태조사 ◦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 농업교육포털 기능개선을 통한 교육정보 DB 구축 및 일괄검색 서비스 제공 ◦ 사이버농어업교육 체계 정비 및 콘텐츠 개발 ◦ 온·오프라인 통합과정개발	◦ 기능확충 및 교육이력 정보 제공 ◦ 사이버농어업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콘텐츠 지속적 확충
	농어업교육	농식품부	◦ 농어업교육 수요조사	◦ 교육프로그램별 수요조사	◦ 교육프로그램별 수요조

	수요조사 운영	(인재원)	계획 및 운영 ◦농업교육 실태조사	를 통한 향후 교육계획 에 반영	사지속 추진 ◦농업교육실태조사(2년)추진
학교교육 지원	실습시설 확충	농식품부 (인재원)	◦농업선진국 현장교육 도입을 위한 지역단 위 실습시설확충 수 요 조사	◦농업선진국 현장교육 지역단위 실습시설 시 범 확충 및 평가	◦농업선진국 현장교육 지역단위 실습시설 보 완 및 지속 확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관련고등 학교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서 및 가치함양 교 육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특 성화 교육프로그램 시 범운영 ◦정서 및 가치함양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안 정화 ◦정서 및 가치함양 교육 프로그램 안정화
		농식품부, 관련대학 (교과부 등)	◦계약학과 운영 방안 검 토 ◦직업발굴을 위한 프 로그램(jobmap) 평가 ◦농어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연계기능분야 계약학과 시범운영(관련기관 협 의) ◦직업발굴을 위한 프로 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전문가 양성 프 그램 시범운영 및 평가	◦계약학과 확대 운영 ◦직업발굴을 위한 프로 그램 지속 운영 ◦농어촌 전문가 양성 프 로그램 확대
	농수산식품 MBA설립	농식품부 (관련대학)	◦농수산식품MBA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타당성 검토 및 법규 검 토	◦농수산식품MBA설립 준비	◦농수산식품MBA 설립 및 운영
	한국농수 산대학 전문성 강화	농식품부 한국농수 산대학	◦농수산대학 교육과정 개편 : 전문성강화 및 신규학과설치	◦개편된 교육과정 운영 및 보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과정 보완 및 운영

4) 대국민 농업·농어촌 가치 이해 제고 교육

중항목	세부업무	관련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농어업· 농어촌 가 치 이해 제고 교육	청소년 농어촌 가치 이해 교육	농식품부 (인재원), 교과부	◦초·중고생 교재에 제시 된 농어촌 관련 내용 분석	◦농어촌에 대한 올바른 가 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에 반영(교과부) ◦관련 교재 개발 및 보급	◦초·중고생 교재의 지속적 모니터링 ◦관련 교재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어업교육	◦초·중·고·대생 현장수업과	◦1학교 1체험 운동 전개	◦1학교 1체험 운동 확대

		관련 기관	농어촌체험 연계 방안 검토		
도시민 대상 교육	농어업교육 관련 기관	◦ 소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분석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체계화 실시	◦ 우수농장 방문, 농어촌 어메니티 등 교육과정 운영 ◦ 도시농업 및 초·중등학교 농장운영 지원단 구성	◦ 교육과정 평가 보완 및 확대 ◦ 청소년 농어촌 가치교육과 연계 ◦ 도시농업 및 학교 농장운영 지원단 활동 지속	
재능기부자 대상 이해증진 교육	농어업교육 관련 기관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농어촌·농어촌 분야 재능기부 홍보 실시	◦ 농어촌·농어촌 분야 재능기부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 평가 보완 및 확대 ◦ SNS를 활용한 재능기부 경험 공유를 통한 확산 유도	

제3장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

제1절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현황

1. 교육의 목표와 방향

1) 교육 목표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목표는 “충남 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농업경영인 육성”이다(<표 3-1>).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은 정예농업인 혹은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에 집중해 왔다. 이는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원 스스로 농업인력과 농촌인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1>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목표

2009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기술 능력배양 ○ 농업 신기술·기능습득으로 신지식농업인 양성 ○ 농업경영 및 유통 등 마케팅 능력배양 ○ 정보화마인드 강화를 위한 정보처리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생산에서 경영능력 및 유통마인드 배양 ○ 정보화 마케팅 마인드 강화를 위한 능력 향상 ○ 경쟁력있는 품목과 해외농업 등 연중 교육운영 ○ <u>마을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마을리더 육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선진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육성 ○ 고품질 생산에서 경영능력 및 유통마인드 배양 ○ 친환경농업과 돈 버는 농업이 실현가능한 인력양성

자료 : 충남 도 농업기술원

농촌인력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리더’육성에 대한 관심은 2010년부터이지만 2011년에는 다시 농업인력육성으로 회귀하였다. 하지만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발굴과 활용, 도농교류/농촌관광인력의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활성화 등을 주도해 나갈 농촌인력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교육 방향

전체적인 교육방향은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화교육,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가공·유통·마케팅교육, 농기계 수리 및 안전관리교육, 친환경농업교육 등으로 설정되어 왔다. 다만, 예년과 달리 2010년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리더의 양성’이 주요교육 방향으로 설정된 점이 특이하다.

<표 3-2>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방향

2009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 대학생, 여성 등 전문인력 육성 교육강화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 농기계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능력 향상과 안전운전 ○ 농업환경변화에 맞는 가공·유통 등 종합 마케팅 교육 ○ 정보화 프로그램 보강 및 확대로 정보농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위주 교육에서 농산물유통 마케팅교육 강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과편성 및 교육운영 ○ 농기계 자가정비 수리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 경쟁력있고 돈 버는 교과편성으로 핵심리더 육성 ○ <u>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있는 지역리더 양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위주 교육에서 농산물유통 마케팅교육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경쟁력있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중 교육 추진 ○ 친환경농업과 돈 되는 교과편성으로 핵심리더 육성 ○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가공 유통 혼성교육 확산

자료 : 충남 도 농업기술원

2. 교육과정 및 실적

충남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전문기술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정보교육, 체험교육, 상설교육 등 6개과정이 매년 개설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한 교육과정분류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보면, 매년 계획인원의 약 114%정도가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6개과정 40개반 64회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2,228명이 수료하여 계획(1,951명) 대비 114.2%, 2010년에는 6개과정 14개반 62회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2,406명이 수료했으며 이는 당초 교육계획(2,100명) 대비 114.6%에 해당한다. 2011년의 도 농업기술원의 인력육성계획인원은 2,100명이다.

<표 3-3>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실적(1)

과정	반 별		2009년					2010년				
			인원	일수	교육 기간	실적	비율	인원	일수	교육 기간	실적	비율
합 계			1,950	159	-	2,228	114%	2,100	162	-	2,406	115%
전문 기술 교육	소 계		541	24	-	566	105%	650	34	-	716	110%
	고품질쌀생산·유통반		31	3	3.11~3.13	26	84%	30	3	3.10~3.12	44	147%
	약초, 인삼반		23	2	6.4~6.5	29	126%	25	2	3.23~3.24	26	104%
	농수산물수출 실무반		60	3	4.8~4.10	64	107%	-	-	-	-	-
	농산물유통반		-	-	-	-	-	40	3	4.7~4. 9	34	85%
	자생화, 허브반		31	3	4.22~4.24	38	123%	30	3	4.21~4.23	45	150%
	농업재해대책 공무원반		220	1	6.5	235	107%	220	1	5.20	266	121%
	친환경농업 기초반		31	2	7.23~7.24	33	106%	30	2	8.26~8.27	34	113%
	분재·조경수반		31	2	6.11~6.12	41	132%	30	2	6.8~6.9	43	143%
	농촌문화관광광반		31	3	7.15~7.17	30	97%	31	3	7.14~7.16	31	100%
	양송이버섯 전문반		30	2	10.8~10.9	24	80%	-	-	-	-	-
	표고버섯반		-	-	-	-	-	30	2	11.16~11.17	25	83%
	생활원예반		30	2	10.29~10.30	25	83%	31	2	10.28~10.29	34	110%
	GAP 실무반		23	1	11.20	21	91%	23	1	11.19	15	65%
	신규귀농반		-	-	-	-	-	40	3	6.23~6.25	26	65%
해외농업반		-	-	-	-	-	30	3	7.21~7.23	29	97%	
	지역리더반	1기	-	-	-	-	-	30	2	2.23~2.24	39	130%
		2기	-	-	-	-	-	30	2	11.25~11.26	25	83%
농 기 계 교육	소 계		410	64	-	486	119%	430	60	-	458	107%
	영농사양성반	1기	27	10	2.9~2.20	36	133%	34	10	2.1~2.12	35	103%
		2기	27	10	6.29~7.10	28	104%	33	10	6.28~7. 9	23	70%
		3기	26	10	11.2~11.13	30	115%	33	10	11.1~11.12	31	94%
	트랙터반		30	3	3.25~3.27	39	130%	-	-	-	-	-
	여성농기계반		20	2	8.19~8.20	16	80%	-	-	-	-	-
콤바인반		30	3	9.2~9.4	30	100%	-	-	-	-	-	

	경운정지기반		-	-	-	-	-	30	3	3.24~3.26	30	100%	
	수확기반		-	-	-	-	-	30	3	9.1~9.3	24	80%	
	농기계 대학반	이앙기	20	1	5.7	20	100%	20	1	10.6	20	100%	
		트랙터	1기	25	1	5.11	28	112%	25	1	5.31	26	104%
			2기	20	1	5.21	25	125%	20	1	10.27	20	100%
		원동기	20	1	10.8	23	115%	20	1	10.7	20	100%	
		콤바인	1기	25	1	9.28	24	96%	25	1	9.28	26	104%
	2기		20	1	10.29	23	115%	20	1	10.28	20	100%	
	소형농기계반		30	2	3.9~3.10	31	103%	30	2	3.15~3.16	40	133%	
	오지반		25	1	4.2	33	132%	30	1	4.6	45	150%	
	도서지역반		25	2	4.14~4.15	61	244%	30	2	4.20~4.21	48	160%	
	농기계공무원반		20	5	4.27~5.1	16	80%	30	3	6.14~6.16	21	70%	
농기계기능사반		20	10	11.30~12.11	23	115%	20	10	11.29~12.10	29	145%		
경영 교육	소 계		375	8	-	387	103%	250	3	-	214	86%	
	농업경영, 유통		300	5	3.24,6.12,6.26, 7.3, 8.28	303	101%	-	-	-	-	-	
	농기업마케팅반		75	3	3.31,4.6,6.23	84	112%	250	3	6.21,8.12,8.14	214	86%	
정 보 교 육	소 계		224	27	-	238	106%	230	29	-	245	107%	
	홈페이지활용반 /블로그활용반	1기	26	3	2.2~2.4	36	138%	26	4	1.25~1.28	32	123%	
		2기	26	3	3.30~4.1	31	119%	26	4	3.29~4.1	35	135%	
		3기	26	3	8.24~8.26	31	119%	26	4	8.23~8.26	29	112%	
	이미지편집반 /포토샵고급반	1기	26	3	2.23~2.25	32	123%	26	3	2.17~2.19	30	115%	
		2기	26	3	4.13~4.15	25	96%	26	3	4.12~4.14	26	100%	
		3기	26	3	11.23~11.25	26	100%	26	3	9.6~9.8	22	85%	
	전자상거래	1기	16	2	3.23~3.24	10	63%	18	2	3.3~3.4	15	83%	
	마케팅반	2기	16	2	6.22~6.23	18	113%	18	2	11.22~11.23	15	83%	
	전자상거래 리더반		16	2	12.14~12.15	14	88%	18	2	12.14~12.15	16	89%	
	프리젠테이션반		20	3	6.8~6.10	15	75%	-	-	-	-	-	
	Q마크농산물사이버마케팅		-	-	-	-	-	20	2	3.16~3.17	25	125%	
체 험 교 육	소 계		180	36	-	228	127%	180	36	-	216	120%	
	토 마 토		20	4	4.2~4.3, 11.24~11.25	16	80%	20	4	4.1~4.2, 11.18~11.19	18	90%	
	사 과		10	2	2.5~2.6	26	260%	10	2	2.4~2.5	17	170%	
	딸 기		20	4	4.16~4.17, 11.26~11.27	24	120%	20	4	2.25~2.26, 8.19~8.20	23	115%	
	백 합		10	2	6.25~6.26	8	80%	10	2	6.3~6.4	11	110%	
	기능성양잠		10	2	9.3~9.4	10	100%	10	2	6.10~6.11	13	130%	
	국 화		20	4	6.18~6.19, 10.15~10.16	23	115%	20	4	6.17~6.18, 10.14~10.15	25	125%	
	구 기 자		10	2	7.9~7.10	7	70%	10	2	3.18~3.19	7	70%	
	포 도		10	2	2.12~2.13	17	170%	10	2	11.4~11.5	9	90%	
	고 추		10	2	3.26~3.27	13	130%	10	2	2.9~2.10	14	140%	
	느타리버섯		20	4	2.26~2.27, 9.10~9.11	25	125%	20	4	2.18~2.19, 9.9~9.10	27	135%	
	장 미		10	2	3.19~3.20	10	100%	10	2	6.24~6.25	10	100%	
	가공제품		30	6	3.5~3.6, 5.28~5.29, 9.17~9.18	49	163%	30	6	3.4~3.5, 5.27~5.28, 9.16~9.17	42	140%	

<표 3-4>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실적(2)

과정	반 별	2009년					2010년				
		인원	일수	교육 기간	실적	비율	인원	일수	교육 기간	실적	비율
상설 교육	소 계	323	14		323	100%	557	20		557	
	교육동우회농기계상설교육	14	1	1.14	14	100%	-	-	-	-	-
	09년 제3기 교육동우회	-	-	-	-	-	14	1	1.18	14	100%
	전자상거래반	70	1	2.6	70	100%	-	-	-	-	-
	전자상거래 연구회 교육	-	-	-	-	-	91	1	1.21	91	100%
	농업경영종합정보제공시스템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회	14	1	2.13	14	100%	-	-	-	-	-
	2010년 사이버농업인워크숍	-	-	-	-	-	152	1	2.23	152	100%
	전자상거래연구회 정기교육	60	1	2.16	60	100%	-	-	-	-	-
	명품농산물 브랜드전략반	-	-	-	-	-	15	2	3.16	15	100%
	유전자원 DB구축 확대보급 업무협의	15	1	2.19	15	100%	-	-	-	-	-
	농기계 기능검정반	-	-	-	-	-	14	2	3.17 ~ 3.18	14	100%
	농업경영종합정보제공시스 템 관리자교육	15	1	3.3	15	100%	-	-	-	-	-
	토마토수경재배기초반	-	-	-	-	-	15	6	2.23 ~ 3.30	15	100%
	농기계국가기능검정 대비교육	15	2	3.16~3.17	15	100%	-	-	-	-	-
	e-비즈니스마케팅홍보전략	-	-	-	-	-	41	1	6.25	41	100%
	교육 동우회 상설교육	13	1	6.18	13	100%	-	-	-	-	-
	경영마케팅상설교육	-	-	-	-	-	70	1	7.7	70	100%
	백합체험반	9	2	6.25~6.26	9	100%	-	-	-	-	-
	녹색농촌체험마을관계자	-	-	-	-	-	36	1	7.27	36	100%
	농업인 홈페이지 마케팅반	12	1	7.7	12	100%	-	-	-	-	-
	고품질쌀유통경영반	-	-	-	-	-	56	2	7.27~7.28	56	100%
	천안연암대학교학생 전학에 따른협조요청	72	1	9.4	72	100%	-	-	-	-	-
	농기계안전사고예방반	-	-	-	-	-	28	1	12.14	28	100%
	교육동우회농기계상설교육	14	1	9.28	14	100%	-	-	-	-	-
	충남농사랑마케팅반	-	-	-	-	-	25	1	12. 20	25	100%

자료 : 충남 도 농업기술원

<표 3-3>과 <표 3-4>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교육의 과정별 실적을 살펴 보면, 2009년의 경우 전체 64회의 교육 중 15회는 교육수료자가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의 경우는 총 65회의 교육 중 18회가 계획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에서 과정별 미달실태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전문기술교육과정에서 전체교육 11회 중 45.5%에 해당하는 5회가 계획에 비해 교육이수자가 부족했으며, 정보화교육도 총 10회의 교육과정 중 4회가 계획에 미달했고 체험교육도 총 12회의 교육 중 3회가 계획에

미달했으며 전체 교육대비 미달율은 23.4%였다. 2010년의 경우는 전문기술교육이 총 15회의 교육 중 6회(미달율 40%), 정보화교육이 총 9회 중 4회(미달율 44.4%), 농기계교육이 총 16회의 교육 중 4회(미달율 25%), 체험교육이 총 12회 중 3회(미달율 25%), 경영교육이 총 1회 중 1회가 미달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65회의 교육 중 18회가 미달해서 미달율이 27.7%에 달했다.

<표 3-5>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 교육 미달실태

과 정	2009년			2010년		
	교육회수(a)	미달회수(b)	비율(b/a)	교육회수(a)	미달회수(b)	비율(b/a)
전문기술교육	11	5	45.5%	15	6	40.0%
농기계교육	17	3	17.6%	16	4	25.0%
경영교육	2	-	-	1	1	100.0%
정보화교육	10	4	40.0%	9	4	44.4%
체험교육	12	3	25.0%	12	3	25.0%
상설교육	12	-	-	12	-	-
	64	15	23.4%	65	18	27.7%

자료 : <표 3-3> <표 3-4>로부터 정리

<표 3-3>와 <표 3-4>에서 교육과정별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체험교육과정의 ‘사과반’ 농기계교육과정의 ‘도서지역반’과 ‘오지반’ 전문기술과정의 ‘자생화, 허브반’ 체험교육과정의 ‘가공제품반’ 등의 이수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계획 대비 교육이수 실적이 가장 좋은 교육은 체험교육과정의 ‘사과반’으로 10명 계획에 26명이 이수하였고(계획 대비 이수율 260%), 다음으로는 농기계교육과정의 ‘도서지역반’으로 25명 계획에 61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244%)하였으며, 체험교육과정의 ‘가공제품반’이 30명 계획이 49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163%)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역시 2009년과 마찬가지로 계획 대비 교육이수실적이 가장 좋은 교육은 체험교육과정의 ‘사과반’으로 10명 계획에 17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170%)하였고, 다음으로는 농기계교육과정의 ‘도서지역반’이 30명 계획에 48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160%)하였으며, 농기계교육과정의 ‘오지반’이 30명 계획이 45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150%),

전문기술과정의 자생화·허브반 역시 30명 계획에 45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150%)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교육과정과 전문기술교육과정의 이수실적이 낮았으며 은 구체적으로는 정보화교육과정의 ‘전자상거래마케팅반(제1기)’과 체험교육과정의 ‘구기자반’, 전문기술교육과정의 ‘GAP실무반’과 ‘신규귀농반’, 농기계교육과정의 ‘공무원반’ 등의 이수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계획 대비 교육이수 실적이 가장 낮은 교육은 정보교육과정의 ‘전자상거래마케팅(제1기)’으로 16명 계획에 10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63%)하였고, 다음으로는 체험교육과정의 ‘구기자반’으로 10명 계획에 7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70%)하였으며, 정보교육과정의 ‘프리젠테이션반’으로 20명 계획에 15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75%)하였으며, , 체험교육과정의 ‘백합반’과 ‘토마토반’, 전문기술교육과정의 ‘양송이전문반’ 농기계교육과정의 ‘여성농기계반’과 ‘공무원반’ 등도 모두 계획 대비 이수율이 80%에 불과했다.

2010년의 경우는 계획 대비 교육이수 실적이 가장 낮은 교육은 전문기술교육과정의 ‘GAP실무반’으로 23명 계획에 15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65%)하였고, 역시 전문기술교육과정의 ‘신규귀농반’도 40명 계획이 26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65%)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기계교육과정의 ‘영농사양성반(제2기)’이 33명 계획에 23명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70%)하였고, 역시 농기계교육과정의 ‘공무원반’도 30명 계획이 21명만이 이수(계획 대비 이수율 70%)하였으며, 체험교육과정의 ‘구기자반’ 역시 10명 계획에 7명만이 이수하여 계획 대비 이수율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기가 교육실적이나 교육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를 <표 3-6>을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2월과 4월에 실시된 교육은 참여율(=이수율)이 높은 반면, 3월과 6월에 실시된 교육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계획대비 이수율이 높은 상위 3개 반을 보면, 2009년의 경우는 (체험교육)사과반, (농기계)도서지역반, (체험교육)포도반인데, 교육시기가 2월과 4월이며, 2010년 역시 (체험교육)사과반, (농기계)도서지역반, (전문기술교육)자생화·허브반인데, 교육시기가 2월과 4월이다.

반면에 계획대비 이수율이 낮은 하위 3개 반을 보면, 2009년의 경우는 (정보교육)전자상

거래마케팅반, (전문기술교육)구기자반, (정보교육)프리젠테이션반인데, 교육시기가 3월, 7월, 6월이며, 2010년은 (전문기술교육)GAP실무반과 신규귀농반, (농기계)영농사양성반과 농기계공무원반 그리고 (체험교육)구기자반, (정보교육)전자상거래마케팅반인데, 교육시기가 3월과 6월, 11월이다.

<표 3-6> 교육시기와 교육이수율의 관계

순위	2009년			2010년		
	과정명	이수율 (%)	교육시기	과정명	이수율 (%)	교육시기
상위	1 (체험교육)사과반	260	2.5~2.6	(체험교육)사과반	170	2.4~2.5
	2 (농기계)도서지역반	244	4.14~4.15	(농기계)도서지역반	160	4.20~4.21
	3 (체험교육)포도반	170	2.12~2.13	(전문기술)자생화,허브반	150	4.21~4.23
하위	1 (정보교육)전자상거래마케팅반	63	3.23~3.24	(전문기술)GAP실무반	65	11.19
				(전문기술)신규귀농반	65	6.23~25
	2 (체험교육)구기자반	70	7.9~7.10	(농기계)영농사양성반	70	6.28~7.9
				농기계공무원반	70	6.14~6.16
				(체험교육)구기자반	70	3.18~3.19
	3 프리젠테이션반	75	6.8~6.10	전자상거래마케팅반	83	11.22~11.23

자료 : <표 3-3> <표 3-4>로부터 정리

3. 교육예산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농업인 교육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표 3-7>). 2011년의 전체 교육예산은 221,210천원(도비 73.9%)으로 2009년 98,300천원(도비 79.7%)에 비해 약 2.25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예산의 증가는 2010년부터 시작된 농업인대학과 귀농대학의 교육예산이 새롭게 편성된데도 영향이 있지만, 기존에도 시행해 온 농업인전문교육 예산도 2009년 98,300천원에서 2011년에는 133,210천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5.5% 증가했다.

농업인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자 1인당 교육예산을 보면 2009년의 경우는 44,120원인데 반해 2010년에는 48,545원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63,433원(계획인원 기준)으로 지난 2년동안 1인당 교육예산은 43.8% 증가했다.

<표 3-7> 충남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예산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98,300	20,000	78,300	206,800	65,000	141,800	221,210	60,000	161,210
농업인 전문교육	소 계	98,300	20,000	78,300	116,800	20,000	96,800	133,210	20,000	113,210
	사무관리비	74,000	20,000	54,000	85,000	20,000	65,000	103,000	20,000	83,000
	행사비	21,500		21,500	28,300		28,300	26,885		26,885
	재료비	2,800		2,800	3,500		3,500	3,325		3,325
농업인 대학	소 계	-	-	-	60,000	30,000	30,000	48,000	20,000	28,000
	사무관리비				60,000	30,000	30,000	40,000	20,000	20,000
	행사비							8,000		8,000
귀농대학		-	-	-	30,000	15,000	15,000	40,000	20,000	20,000

자료 : 충남 도 농업기술원

제2절 충남도청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현황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 운영현황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UR타결과 WTO출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1994년, 충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하였다. 1994년, 도 자체 시책(도비지원)으로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오다가 1997년부터 단국대에도 개설하여 현재는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의 농업관련 학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2010년까지 17기, 2,762명 수료하였으며 단국대는 14기, 776명이 수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총 3,538명이 충남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표 3-8> 충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현황 (1994~2010)

대학별	개설연 도	학과명	교육과정	수료인원			비고
				계	남	여	
계	-	5개 품목		3,538	2,868	670	
충남대	1994	시설채소, 양돈, 유통·마케팅	· 기간: 1년 · 수업: 주 1회 · 위탁교육	1,249	1,053	196	
공주대	1994	시설채소, 한우, 유통·마케팅		1,513	1,176	337	
단국대	1997	배, 양돈		776	639	137	

자료 : 충남도청 농정과

(1) 모집인원 및 운영학과

모집인원은 총 190명이며,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원예·축산 분야 70명, 공주대가 원예·축산분야 70명, 단국대가 과수·축산분야 50명이다.

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도청에서는 각 과정의 입학자격과 인원배정을 담당하고, 각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교육생 선발(정원 외 선발도 가능하며, 이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대학별 응시지역은 도내로 한정하되 시군별 제한은 없다.

각 과정의 교육 수료기간은 1년이며, 주당 1일, 연간 36주 이상 수강해야 한다.

(2) 예산지원

1998~2006년은 정부의 정책시책으로 반영되어 전체 예산의 20%를 국비에서 지원했으나, 2007년 이후는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연간 380백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이론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여타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에 실패함으로써 입학생모집의 곤란과 출석을 저조 등으로 인해 2011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과정이 중단되었으나 지역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존치 건의에 따라 필요예산(150백만원)을 1회 추경에 마련하여 단국대를 제외한 공주대와 충남대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2)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문제점과 한계²³⁾

(1) 문제점

현상적으로 드러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출석율이다. 2010년 교육생 출결상황 점검결과, 출석율은 평균 32%로 나타났는데, 대학별로는 단국대 50명정원에 9명 출석(출석율 18%), 공주대 70명 정원에 19명 출석(출석율 27%), 충남대 70명 정원에 34명 출석(출석율 48%)에 불과했다.

2011년 9월 19~21일, 충남도에서 실시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입학생 확보의 어려움이다. 2011년의 경우 충남대의 경우, 모집정원 50명의 54%인 중 27명만이 입학하였으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둘째, 교육생 출석관리 부실이다. 학교직원이 출석부를 연필로 체크(→언제든 수정가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결석자에 대한 누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생 선발기준 위반이다. 충남대의 경우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을 5명 입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정수료자 사후관리 부실이다. 당초 사후관리 예산을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23) 충남도 농업정책과(2011.10),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점검결과」 참조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생 자부담율 저조이다. 당초 교육생이 전체교육비(=년간 250만원)의 20%를 자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생의 자부담비율을 제대로 이수하는 경우는 충남대 98%, 공주대 50%에 불과했다.

여섯째, 간접비지원 금지 위반이다. 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대학본부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한 협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일곱째, 운영위원회의 미개최이다. 운영계획들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도(道)와 학교가 협약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2)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한계

농업인구의 고령화·과소화와 WTO, FTA 등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각종 보조금이 감축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교육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 농업기술원(글로벌인재대학/1년)과 시군단위의 유사교육(농업대학/1년) 과정 개설에 따른 입학가능 인원이 분산되고 있으며,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과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참여자를 확보는 물론 출석을 제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3)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개선방향²⁴⁾

첫째, 교육수요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와 교육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교육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조사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각 시군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 평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24) 충남도 농업정책과(2011.4),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개선, 운영계획 보고」 참조

들과 행정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 및 모집품목과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미, 교육수요의 감소에 따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운영대학을 3개 대학에서 2개 대학으로 축소(단국대에서 참여를 포기함)하였으며, 당초 5개 과정(시설채소, 양돈, 한우, 배, 유통·마케팅), 모집정원 190명에서 2개과정(농업경영, 한우), 100명으로 규모를 축소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농업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내용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율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석율과 학습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비 중 자부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부담의 확대는 초기에는 참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욕있는 학습자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업인들의 자주의식을 높이고 교육 효과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조정은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교육내용 및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참여율과 출석율이 저조한 배경에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내용을 현행의 공급자 중심의 구성에서 교육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교육의 방법도 현행의 이론중심 강의식에서 현장학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장교육은 교육생들의 영농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군 행정의 관심과 교육성과의 향상을 위한 시·군비 부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사전교육수요조사에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교육생이 거주하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수료 후 지역 내 정책사업과 교육이수자를 연계시키는 것이 용이해 짐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농장과 선도농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선도실습농장 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품목별로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이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현장학습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1) 운영현황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농업마이스터대학은 교육생 중심의 교육, 다양하고 효율적인 현장위주의 수업,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우수강사를 보유하고,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충남도의 10개 핵심품목(전공과정)에 대해 품목별 2년 4학기(40학점)의 표준교육과정을 운영(1주 1일, 연 30주)하며, 본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농업인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마이스터 시험을 거쳐 인증 및 농업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총 10개 전공과정, 정원은 269명이지만, 실제 모집정원은 응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표 3-9> 충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현황(2010)

설치대학	전공과정	정원(명)
충남대	딸기	24
	시설채소	25
	인삼	34
공주대	버섯	29
	친환경 채소	26
	친환경 경종	30
	사과	30
천안연암대	한우	29
	양돈	22
	배	20
	10개 과정	269

자료: 농업인재개발원. 2010. 내부자료

<표 3-10>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교육과정 체계

과목 구분 (전공교과 및 일반교과로 구분)					학점기준(%)
Ⅰ	전공 교과	1	필수	품목별 전문기술 교과목	80% 이상
		2	선택	대학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교과	
Ⅱ	일반 교과	1	자율과목(대학자율 신설과목)		20% 미만
		2	특강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일반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공교과는 품목별 전문기술을 배우는 전공필수과목과 대학별로 선택가능한 전공선택과목이 있고, 일반교과에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강하는 대학자율 선택과목과 특강이 있다.

마이스터대학은 100% 실용교육과 품목별특화교육, 평생교육차원에서 운영되며, 농업인의 기술 및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1>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모집현황(2011)

설치대학	학과	전공과정	모집정원
충남대 (본교)	원예	딸기	-
	원예	시설채소	-
	특용작물	인삼	-
공주대 (캠퍼스 1)	친환경	채소(엽채류,과채류)	-
	친환경	수도작	-
	과수	사과	20명
	특용작물	버섯(새송이,양송이,느타리)	-
천안연암대 (캠퍼스 2)	축산	한우	-
	축산	양돈	-
	과수	배	-
계		10개 과정	-

자료 : 충남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모집요강, 2011

제4장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평가

-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 결과 분석 -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대상

1) 설문조사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자가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대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각 교육과정이 개설,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²⁵⁾

첫째,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농업인교육시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본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둘째, 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역시 해당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협조를 받아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본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중 전문기술교육과정의 생활원예반과 블루베리반 그리고 마을리더반, 정보교육과정의 포토샵고급반, 농기계교육과정의 영농사양성반, 농업인대학²⁶⁾반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수료자들과 충

25)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교육과정의 경우는 연중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을 특정시기(10월말~11월)의 교육과정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정 운영자(담당공무원)와 협의한 결과 시기적으로 유사한 교육과정이 반복,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제로 전체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표본의 대표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26)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장기교육과정(100시간 이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주로 품

남 도청에서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의 참여자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전체 응답자는 245명이며, 내용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여자 122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강자 59명, 마이스터대학 수강생 64명 등이다.

2) 지역리더 심층인터뷰 조사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지역 내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리더 1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심층인터뷰 조사의 대상자는 홍성 3명, 논산과 천안, 예산이 각각 2명, 보령, 서천, 공주, 아산이 각각 1명씩이다.

심층 인터뷰조사의 내용은 설문조사표와 연계하여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리더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 교육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육운영 기관에 대한 의견, 농업리더교육과 농촌리더교육에 대한 의견, 향후 충남도 농업·농촌리더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응답자 245명의 성별은 남 202명, 여 43명의 비율로 남녀의 비율은 4:1 정도였으며, 연령대는 20~30대 6.9%, 40대 17.1%, 50대 55.5%, 60대 이상 20.4%로 생산 활동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50대에서 절반 이상에 달했다. 학력은, 초·중졸 17.1%, 고졸이 45.3%, 대졸 이상의 비율이 37.6%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과정 모두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마이스터과정이 남녀비율이 95 : 5로 가장 심한 불

목교육)과 차별화를 위해 교과목편성을 공통과목(문화체험, 현장연찬, 건강관리 등)과 전문기술(리더십 배양, 경영관리, 브랜드개발, 성공사례, 출하전략), 현장실습(자가실습 및 인근농장 사례 습득) 등 내용적으로는 지역리더양성에 중점이 있지만, 리더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님

균형을 보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70 : 30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모두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50대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농업기술원 교육에 대졸 이상의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나 농업마이스터대학은 고졸이 절반 이상 혹은 그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총 응답자 수 분류 및 각 분류)

총 응답자 수 및 비율		각 응답자 수 및 비율(%)			
성별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남	202	82.4	101 (82.8)	61 (95.3)	40 (67.8)
- 여	43	17.6	21 (17.2)	3 (4.7)	19 (32.2)
- 합계	245	100.0	122(100.0)	64 (100.0)	59 (100.0)
			100.0		
연령대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20대	2	.8	1 (0.8)	1 (1.6)	- (0.0)
- 30대	15	6.1	8 (6.6)	3 (4.7)	4 (6.8)
- 40대	42	17.1	21 (17.2)	9 (14.1)	12 (20.3)
- 50대	136	55.5	61 (50.0)	38 (59.4)	37 (62.7)
- 60대이상	50	20.4	31 (25.4)	13 (20.3)	6 (10.2)
- 합계	245	100.0	122(100.0)	64 (100.0)	59 (100.0)
			100.0		
최종학력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초졸	9	3.7	1 (0.8)	4 (6.3)	4 (6.8)
- 중졸	33	13.5	10 (8.2)	8 (12.5)	15 (25.4)
- 고졸	111	45.3	47 (38.5)	37 (57.8)	27 (45.8)
- 대졸	84	34.3	61 (50.0)	13 (20.3)	10 (16.9)
- 기타	8	3.3	3 (2.5)	2 (3.1)	3 (5.1)
- 합계	245	100.0	122(100.0)	64 (100.0)	59 (100.0)
			100.0		

응답자의 95.9%인 235명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非 영농종사자가 4.1%로 나타났다.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간과 품목을 설문한 결과, 영농기간은 20년 이상 종사자가 33.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28.9%, 5~10년이 21.3%, 10~20년이 16.6%로 나타났다. 영농품목은 원예 32.2%, 과수 12.7%, 수도작 19.5%, 축산 16.9%, 기타작물 및 무

응답이 18.6%로 나타났는데, 기타 응답의 경우 특작물인 인삼, 소규모 밭작물, 체험농장 운영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및 <그림 4-1>)

영농기간의 경우, 농업기술원 교육참여자들은 비교적 짧은 5년 이하의 영농기간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반면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응답자는 20년 이상의 영농기간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표 4-2> 응답자의 영농 종사여부 (총 응답자 수 분류 및 각 분류)

영농종사	총 응답자 수 및 비율		각 응답자 수 및 비율(%)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영농 종사함	235	95.9	113 (92.6)	64 (100.0)	58 (98.3)
- 종사하지 않음	10	4.1	9 (7.4)	- (0.0)	1 (1.7)
- 합계	245	100.0	122(100.0)	64 (100.0)	59 (100.0)
			100.0		
영농기간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5년 이하	68	28.9	52 (46.0)	5 (7.8)	11 (19.0)
- 5~10 년	50	21.3	28 (24.8)	10 (15.6)	12 (20.7)
- 10~20 년	39	16.6	16 (14.2)	16 (25.0)	7 (12.1)
- 20년 이상	78	33.2	17 (15.0)	33 (51.6)	28 (48.3)
- 합계	235	100.0	113 (100.0)	64 (100.0)	5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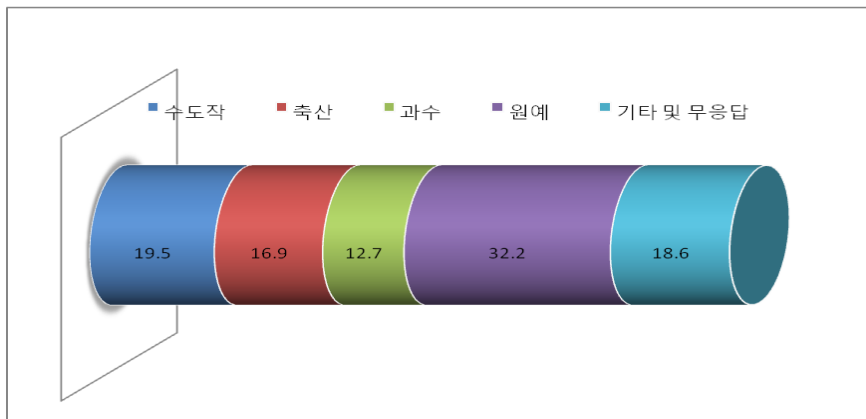
영농기간이 짧은 응답자의 대부분은 귀농·귀촌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한 농업인들이 취약한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학력수준과 비교해 보면, 귀농·귀촌자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영농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참여자들의 특성과 성격,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상과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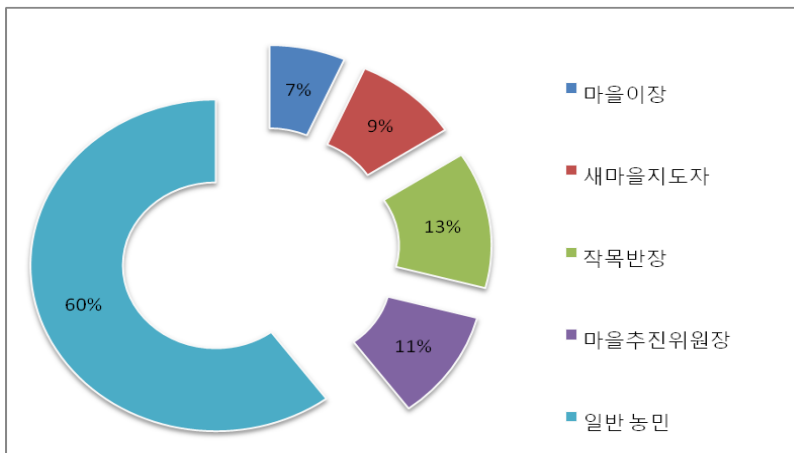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영농기간과 학력관계를 비교해 보면, 고졸의 학력에서 영농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농업인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대학 학위를 수여하거나 전문화된 농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즉, 학력은 낮지만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쌓은 50대 이상의 농업인들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통해 대학학위를 취득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1> 응답자의 종사작물 (총 응답자 수 분석)



<그림 4-2> 응답자의 지역 내 역할 및 위치 (중복응답 가능)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현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특히 도농업기술원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주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설문과 병행한 의견청취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일반 주민이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주부의 이외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영농기간과 지역 내 역할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는데, 영농종사자 235명의 영농기간과 지역 내 역할 중 중복응답을 1차 응답으로 맞추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응답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영농종사기간을 가진 응답자였다(<표 4-3>). 이는 영농기간이 짧은 사람은 지역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농기간이 짧은 응답자 중 대부분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영농기간이 짧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농업기술원의 교육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귀촌·귀촌자라는 것을 뜻한다.

<표 4-3> 지역 내 역할과 영농기간과의 상관관계(총 응답자 수 분석)

		영농기간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년 이상	전체
지역 내 역 할	마을이장	1	0	3	14	18
	새마을지도자	3	5	2	13	23
	작목반장	2	0	8	15	25
	마을추진위원장	1	2	7	7	17
	기타	61	43	19	29	152
전체		68	50	39	78	235

이러한 결과로 유추 해볼 때, 농업기술원의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며, 영농기간이 짧은 귀농·귀촌인들 일수록 교육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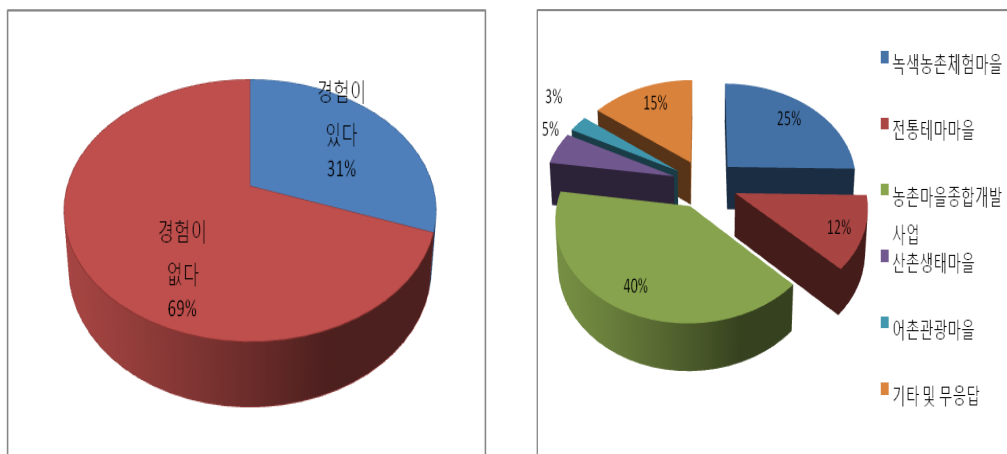
이는 교육참여자의 성취욕구 여하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지역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성취욕구도 큰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교육참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교육효과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농업·농촌교육내용의 방향은 교육참여자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조금 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 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무를 묻는 설문에서는 사업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정책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응답자의 40%는 자기지역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응답했다(<그림 4-3>).

이러한 응답결과는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사업시행경험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이 지역개발인력의 양성보다는 농업인력육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농업기술원의 교육내용을 농촌개발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농촌개발사업의 시행여부 및 종류 (총 응답자 수 분석)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도 기술원, 최고경영자, 마이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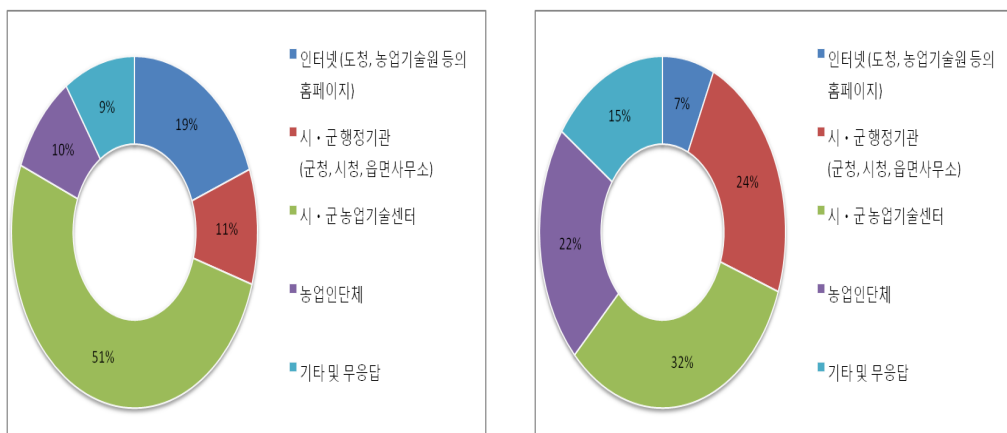
1. 교육접근방식 및 참여계기

1) 교육관련 정보취득 경로

평소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농촌리더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얻고 있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청,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인터넷과 농업기술센터 양측 모두에서 얻고 있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지인을 통해 얻고 있다는 의견, 제대군인종합센터, 소식지를 통한 정보입수 등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정보입수 방법과 관련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응답자들은 총 응답자수 분석과 매우 유의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농업기술원 응답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입수의 비중이 높았으나(29.5%), 결론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가장 높게 (59%) 나타났다.

<그림 4-4> 농업·농촌리더교육 정보입수 방법 (총 응답자 수와 최고농과정 분석)



그러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정기관과 농업인 단체를 통한 정보입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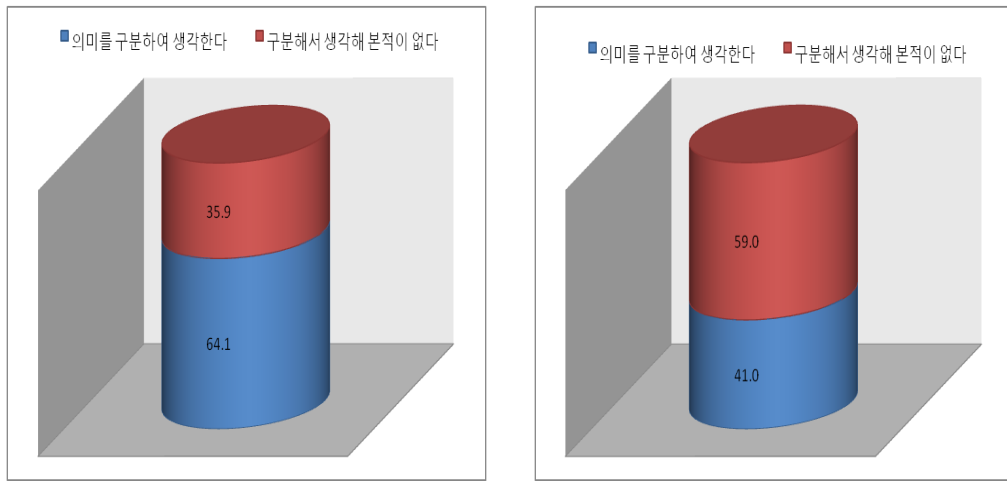
인터넷환경의 발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점은 도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를 얻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본인이 얻은 정보의 출처를 확실히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려는 농업·농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의 발신과 송신을 위한 인터넷 활용능력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실제로 이에 대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농업리더와 농촌리더에 대한 인식

‘농업리더’와 ‘농촌리더’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농업리더교육’과 ‘농촌리더교육’의 의미를 구분하는 내용을 첨부하고 이를 인지시킨 후 설문에 응하도록 안내를 하였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리더와 농촌리더를 구분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총 응답자 분석과 농업기술원 교육참여자 분석에서는 양자의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의견이 높게(50.6%, 59%) 나타났지만,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리더의 의미’를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64.1%, 50.8%) 나타났다. 특히, 농업마이스터대학과 농업기술원 교육참여자 간의 ‘리더의미’ 구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도농업기술원교육에서는 농업기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농업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농촌리더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같이 전문농업인양성과정의 응답자들은 농업리더와 농촌리더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5>, <표 4-5>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행정(도청,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경쟁력제고와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농업리더’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농촌리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5> 농업리더와 농촌리더의 의미 구분 정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기술원)



<표 4-4> 교육과정의 의미 분류 및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 빈도 (중복응답)

<농업리더과정>	
①정보화 교육	: 컴퓨터 운영, 블로그 활용, 홈페이지 활용 등 컴퓨터 관련 교육
②농업생산 및 품목 교육	: 과수재배, 원예특작, 약초, 화훼 등 농업품목 교육
③농업전문기술 관련 교육	: 친환경 농업,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산물 가공, 생활원예, 분경 조경수 등 전문기술 교육
④농업생산기술 교육	: 농기계 관련 교육, 오지·도서지역, 영농사양성반, 농기계 자격증 등 생산기술 전문화 교육
<농촌리더과정>	
⑤농촌개발교육	: 마을리더반, 농촌문화관광반, 신규귀농인반 등 지역발전 교육
⑥전문농업인양성과정	: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응답자 수	비율(%)
정보화 관련교육	139	17.9
농업생산 및 품목교육	140	18.0
농업전문기술 관련교육	161	20.7
농업생산기술 관련교육	104	13.4
농촌개발교육	102	13.1
전문농업인양성과정	124	16.0
기타 및 무응답	6	0.8
합계	776	100.0

이는 농업·농촌의 총괄적인 관리주체인 도와 농업기술원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교육프로그램과 운영과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은 농업리더와 농촌리더를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교육방향이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리더교육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농업리더’와 ‘농촌리더’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농업리더 육성에 집중해 온 교육을 농촌리더 육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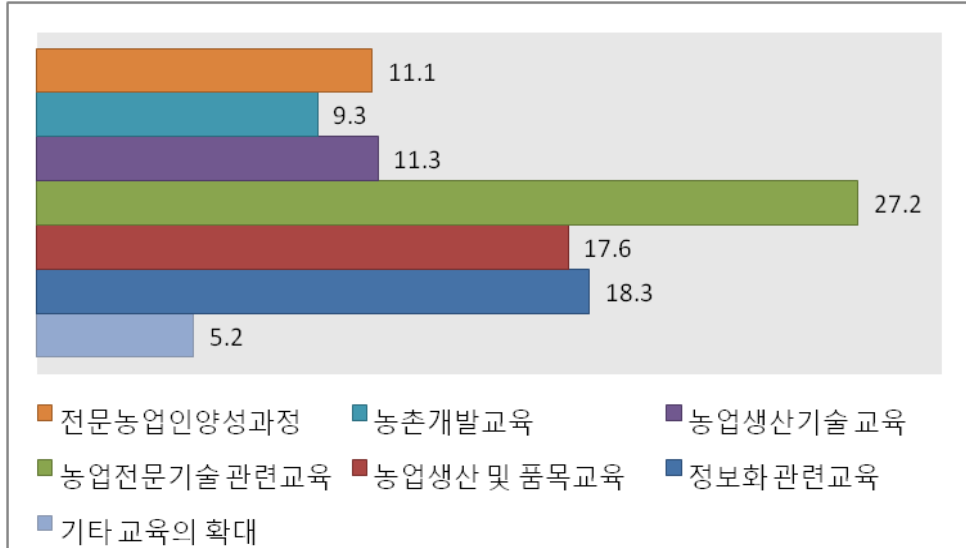
3) 확대 희망 교육과정과 축소 희망 교육과정

지난 3년간 충남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교육과정에 참여 적이 있는가, 참여했다면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했는가를 묻는 설문(중복답변 허용)에서는 총 776개의 유효 응답 중 참여빈도수가 가장 높은 교육과정은 친환경 농업,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산물 가공, 생활원예, 분경 조경수와 같은 전문농업기술교육과정(20.7%)이었고, 다음으로는 농업생산 및 품목에 대한 교육과 정보화 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농업기술과 생산성 향상, 농업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부분에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과정과 시간을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육과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을 묻는 설문에서는 “전문적인 농업기술 관련 교육”이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반면에, 이른바 농촌리더를 양성하는 ‘농촌지역개발교육’은 응답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첫째,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과정 자체가 농업인육성을 주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참여자들도 농업인교육 희망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 교육참여자들이 귀농·귀촌자들 등 영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개발과 관련한 경험이 적어서 ‘지역개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교육흐름을 고려할 때, 농촌리더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림 4-6>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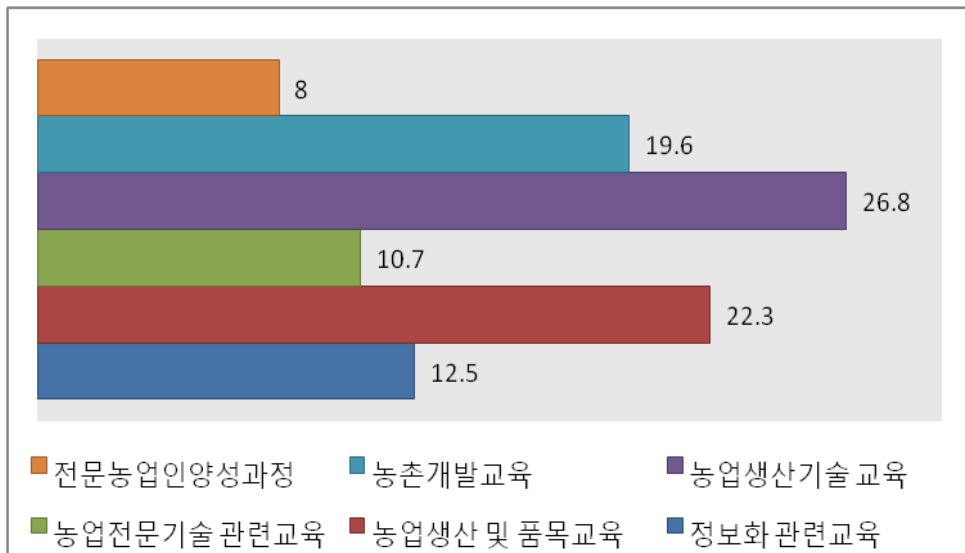


제시된 보기 이외에도, 신규 교육으로서 새롭게 교육과정을 확대하였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응답되었는데 수도작 관련반, 약초과정을 확대한 산약초 전문과정과 같이 농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분야의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신제품제작반, 포토샵보다 쉬운 포토스케이프 과정, 전문 세무회계반과 같은 경영능력 향상과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생활 속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용접과정이나 침·뜸을 가르치는 생활의학과정,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정원예반, 블로그나 홈페이지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전문활용과정과 소셜네트워크 활용과정과 같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확대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고, 마을간 이익다툼의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쟁조정반, 농업정책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농업정책지원반과 같이 실질적으로 마을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발전 차원의 교육에 대한 바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축소하였으면 하는 과정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육과정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확대에 관한 의견보다 응답수가 현저하게 낮았는데, 주관식의 대답 중 현행 교육과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답들도 상당수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위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는 다르게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관련교육과 농업생산 및 품목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상위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4-7> 축소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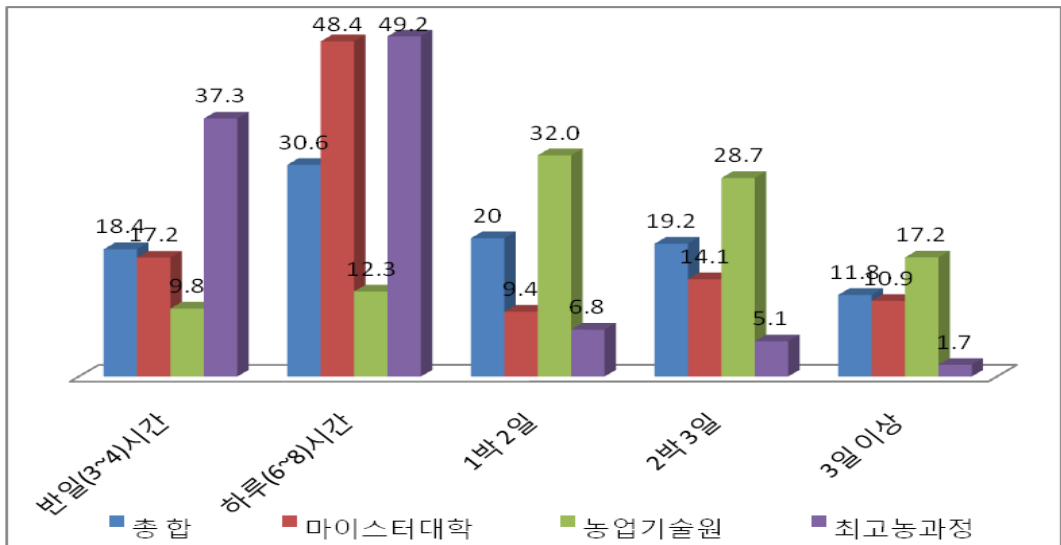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점은 농촌리더교육과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교육확대 설문이나 축소해야 할 과정에서도 비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참가자들이 ‘농촌 지역리더 육성교육’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과 ‘희망마을가꾸기’사업의 성공적 추진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2. 교육기간 및 내용에 관한 분석

1) 적절한 교육기간과 횟수

향후 교육과정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기간, 교육 횟수, 수강인원, 교육방식에 대해 선호도를 설문하였는데, 먼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1회당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당일치기(6~8시간)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1박 2일과 2박 3일의 교육기간이 다음을 차지했다(<그림 4-8>).

<그림 4-8> 적정 교육기간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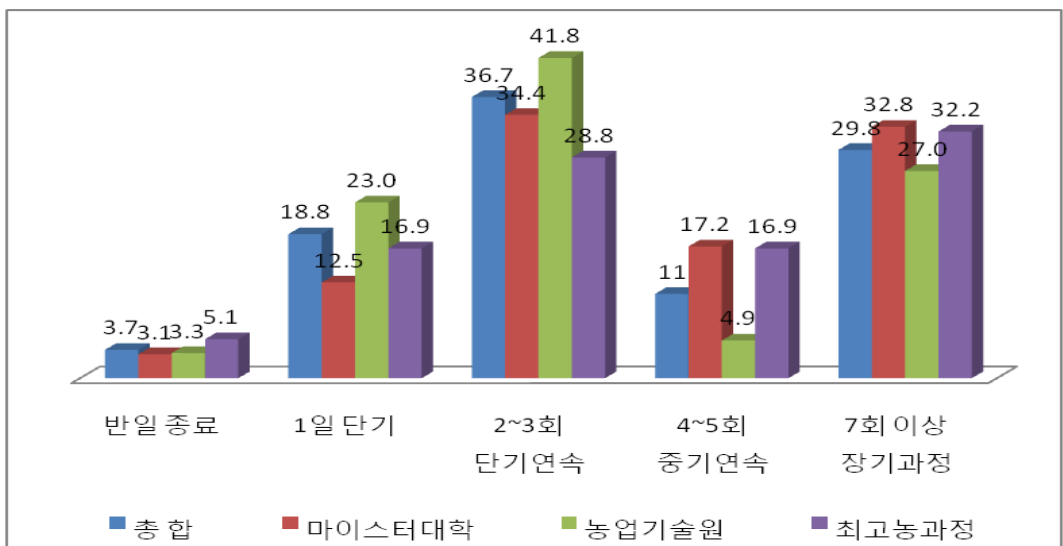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반일에서 하루(6~8시간) 교육을 선호하는 의견이 전체의 86.5%로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기술원 교육참여자들은 1박2일에서 2박3일의 기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고경영자과정과 마찬가지로 반일에서 하루의 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당 적절한 횟수에 대한 설문에서는

2~3회 연속과정에 대한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7회 이상의 연속·장기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9.8%나 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교육참여들은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과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기간의 결정시에는 교육참가자들의 선호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1회로 종료되는 단기 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하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일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속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9> 적정 교육과정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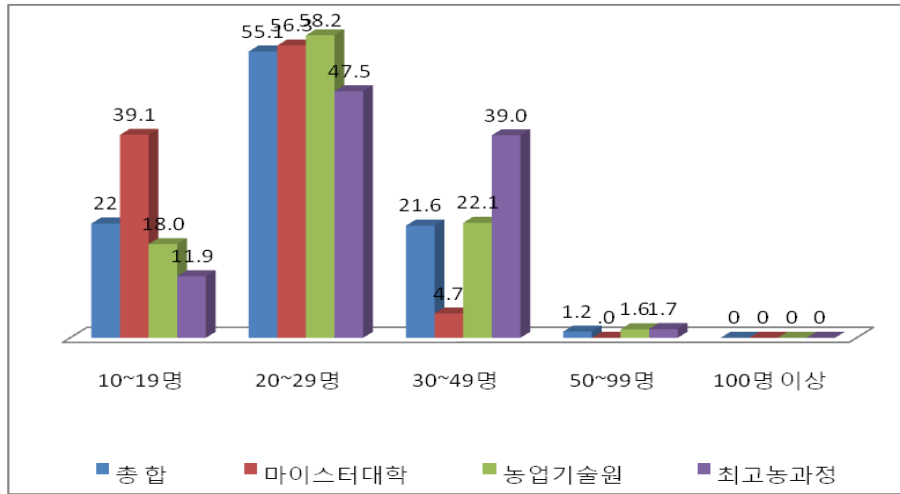


2) 적정 수강인원과 교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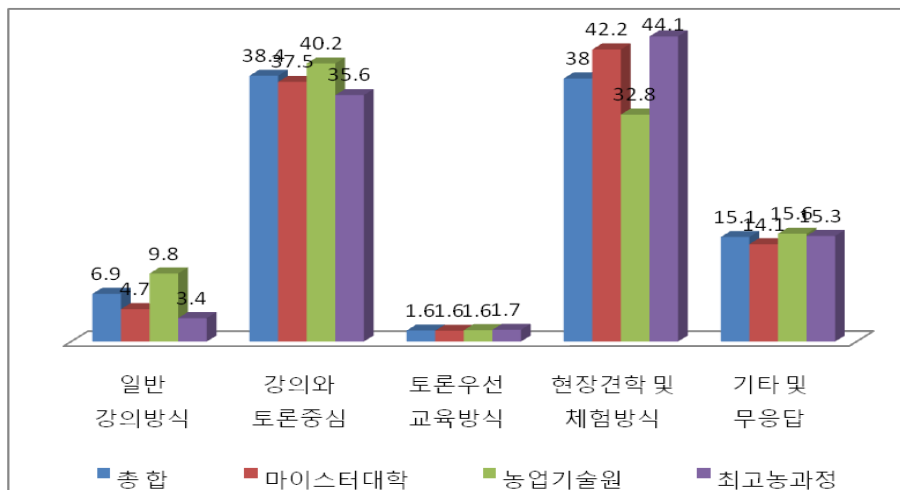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이수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강인원에 대한 설문에는 20~29명의 수강인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방식에 대해 설문에서는 강의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교육방식과 현장학습 중심의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10>).

응답자의 대부분이 너무 많은 수강인원은 오히려 교육의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10~19명 정도의 소수 수강인원을 선호하는 응답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적정 수강인원은 30명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적정 교육 수강인원 선호도



<그림 4-11> 적정 교육방식의 선호도



그리고 교육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강사가 진행하는 일반적 강의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교육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직접 실습이 가능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교육방식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응답의 50%는 ‘강의+토론+현장견학’의 통합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식을 전환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토론식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참여자들이 토론에 대한 의지 및 사전준비에 대해 질문했는데,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세가 된 응답자는 1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4-6>). 본인의 준비와 희망하는 교육방식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육 참여자들이 토론방식의 수업을 선호하더라도 이러한 교육방식이 실시될 때, 이러한 교육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론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진행자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현장견학과 체험·실습의 교육과정도 강의 진행 후 교육 참여자들 간에 토론을 통해 피드백 시간을 주어 체험과 실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의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표 4-5> ‘토론식’교육을 위한 교육참여자의 준비태도

	응답자 수	비율(%)	각 분류별 응답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과정
-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	15	12.9	10.7	12.1	18.5
- 준비가 부족한 편이다	16	13.8	14.3	9.1	18.5
- 보통이다	41	35.3	42.9	24.2	33.3
- 준비가 된 편이다	27	23.3	26.8	27.3	11.1
- 적극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17	14.7	5.4	27.3	18.5
합 계	116	100.0	100.0	100.0	100.0

3. 교육평가 및 성과

1)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먼저 응답자가 참여했던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는데, ‘만족’과 ‘매우 만족’이 전체의 49.8%로 ‘불만’과 ‘매우 불만’을 합한 비율 24.5% 보다는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표 4-7>). 하지만,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치는 결코 높은 만족도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의 경우, 전체 참여자의 85% 이상이 ‘만족’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것(본 보고서 p.35 참조)과 비교하면 이 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 육성교육에 대한 교육수료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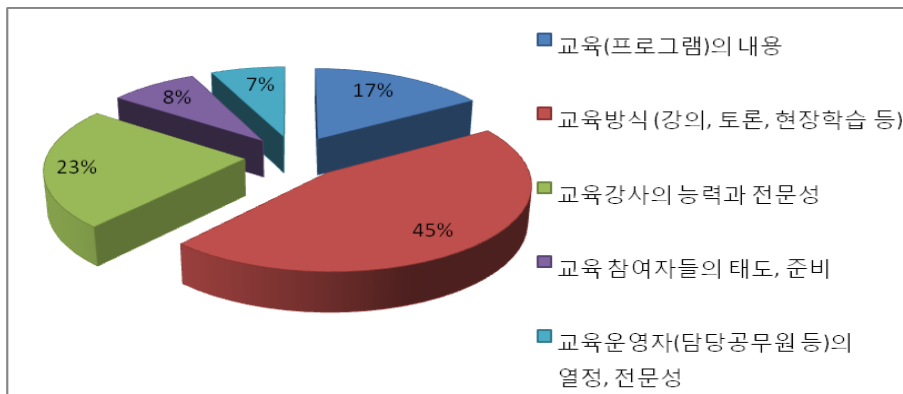
이러한 전제 위에서 ‘만족’이라는 응답한 이유를 알아 봤는데, 교육내용과 방식의 우수성과 교육 분위기가 좋았다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으며, 반대로 교육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서는 ‘교육강사의 무성의’와 ‘교육장 분위기 불량’ 때문이라는 의견이 겹쳐 있어 특별한 유의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표 4-6>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그 이유

	응답자 수	비율(%)
이수과정의 내용 만족도	245	100.0
-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25	10.2
- 불만족스러웠다	35	14.3
- 보통이다	63	25.7
- 만족스러웠다	79	32.2
- 매우 만족스러웠다	43	17.6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60	100.0
- 기대했던 교육내용이 아님	12	20.0
- 강사의 교육방식 불만	6	10.0
- 교육운영자의 무성의	18	30.0
- 교육 분위기 불량	18	30.0
- 기타	6	10.0

다음으로,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강의형태, 토론, 현장학습 등 교육방법이 교육효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강사의 능력과 전문성이 23%, 그 다음으로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그림 4-12>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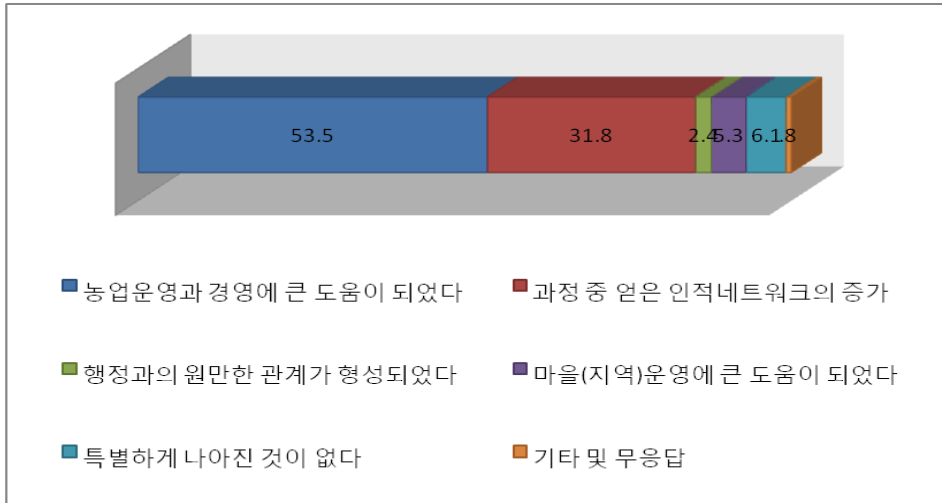
2) 교육성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다양한 농업·농촌리더교육을 이수 한 후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농업운영과 경영적 측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절반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교육과정 중에 맺은 인적네트워크로 인간관계가 넓어졌다는 의견도 31.8%로 상위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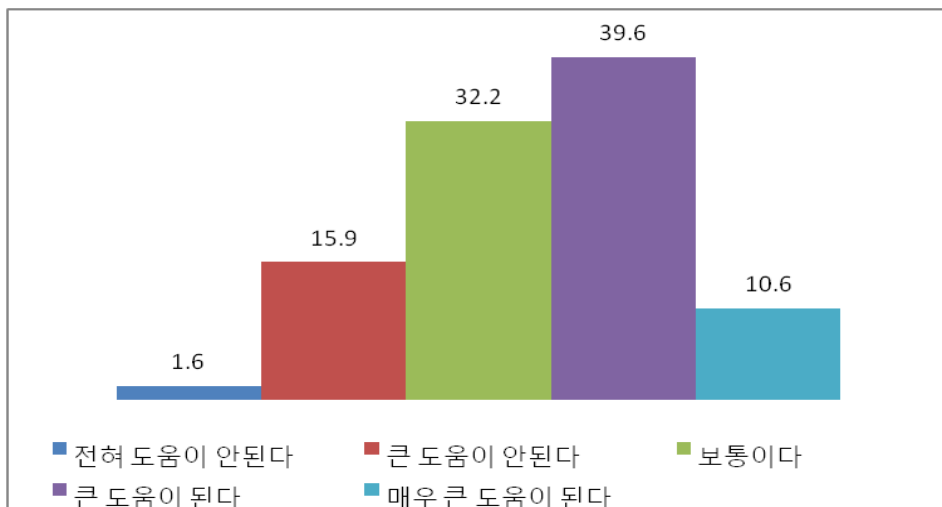
그러나 반대로, 교육운영기관이나 개인 이외의 단체생활에 이익이 되는 성과를 얻었다는 응답은 미비하게 나타났는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마을운영 등 단체생활에 이익이 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운영기관이나 담당자가 열의와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교육프로그램상의 내용 부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참가자의 태도가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성과를 우선시하여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교육운영자나 교육참여자 모두가 고려해

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3> 교육 이수 후 얻은 성과



<그림 4-14> 충남도 농업·농촌교육이 정책사업 수행에 미치는 효과



다음으로 응답자가 이수한 각종 농업·농촌관련 교육들이 정부의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9.6%가 ‘각종 농업·농촌 교육들이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14>).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정부의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본인들의 농업·농촌생활에 농업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농업교육의 이러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농촌교육에 대한 점수를 책정하도록 하는 설문에서는 80~89점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고, 70~79점이 29.8%, 60~69점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8>).

<표 4-7> 충청남도 농업·농촌교육에 대한 점수 및 그 이유

교육에 대한 점수	총 응답자 수 및 비율		각 응답자 수 및 비율(%)		
	응답자 수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60점 미만	22	9.0	2 (1.6)	12 (18.8)	8 (13.6)
- 60~69점	49	20.0	18 (14.8)	22 (34.4)	9 (15.3)
- 70~79점	73	29.8	31 (25.4)	19 (29.7)	23 (39.0)
- 80~89점	79	32.2	53 (43.4)	10 (15.6)	16 (27.1)
- 90점 이상	22	9.0	18 (14.8)	1 (1.6)	3 (5.1)
- 합계	245	100.0	122(100.0)	64 (100.0)	59 (100.0)
			100.0		
낮은 평가의 이유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 과정의 동일함 및 비현실성		45.1	11 (55.0)	16 (47.1)	5 (29.4)
- 교강사의 전문성과 열정 부족		12.7	2 (10.0)	5 (14.7)	2 (11.8)
- 교육참가자들의 열의, 준비 부족		19.7	4 (20.0)	3 (4.7)	7 (41.2)
- 교육운영자들의 형식적인 태도		16.9	1 (5.0)	10 (29.4)	1 (5.9)
- 기타 및 무응답		5.6	2 (10.0)	- (0.0)	2 (11.8)
- 합계		100.0	20 (100.0)	34 (100.0)	17 (100.0)
			100.0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농업·농촌교육에 대해 매우 큰 점수를 부여하지도 않고,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교육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정적으로도, 크게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점수를 낮게 평가한 응답자에게 추가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매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내용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의 4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참가자들의 열의 및 준비부족, 교육운영자들의 형식적인 태도가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 보면 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교육과정의 동일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급변하는 농업정책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우리의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충청남도의 농업·농촌리더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향후 교육 개선방향으로 ‘농업리더교육’으로의 집중이 46.9%, ‘농촌리더교육’으로의 집중이 3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이 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어떠한 길로 가더라도 현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있으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어느 방향이 가장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길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향후 농업·농촌리더교육의 개선방향

	총 비율(%)	각 응답자 수 및 비율(%)		
		기술원	마이스터	최고농
지금처럼 계속 현상유지를 하는 게 좋다	4.5	4.9	1.6	6.8
생산성·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리더’ 육성	46.9	39.3	54.7	54.2
농촌지역개발의 주체육성을 위한 ‘농촌리더’ 육성	37.1	40.2	40.6	27.1
잘 모르겠다	9.4	11.5	3.1	11.9
기타 및 무응답	2.0	4.1	-	-
		100.0		

충청남도의 농업·농촌리더교육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초빙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교육과정을 분쟁조정이나 소득보장이 가능한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 리더발굴과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교육 신청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의견,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교육 참가자의 연령대를 낮춰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가치정도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문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영농기간이 짧은 귀농·귀촌인이 많은 관계로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경영능력제고와 관련된 단기성 교육을 중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러한 농업인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필요한 리더십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교육 참가자들이 기존교육의 확대나 강사의 전문성 확대 등 운영기관과 운영담당자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 교육운영담당자의 대한 열정과 성의가 더욱 더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운영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제3절 전문농업인교육과정의 설문결과 분석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기존 3개 대학운영체계에서 충청남도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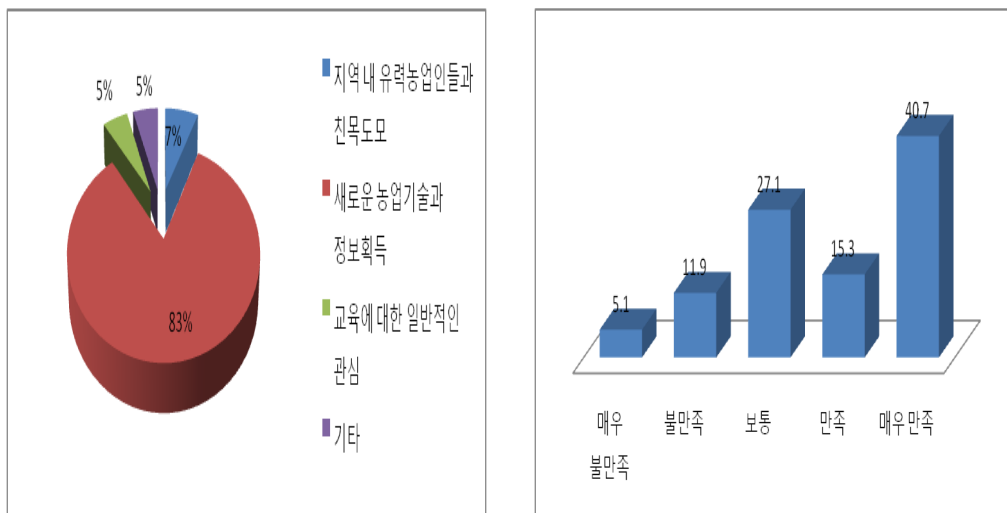
운영 계획 이 후, 현재는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와 충남대학교 등 2개교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과목은 화훼조경(시설채소, 배), 축산(양돈), 한우, 경영(유통, 마케팅)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총 59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에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59명의 과정별 분포는 화훼조경 20명(33.9%), 한우 21명(35.6%), 농업경영 11명(18.6%), 축산 7명(11.9%)으로 나타나, 다양한 교육이수생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표 4-9>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과목 현황

	응답자 수	비율(%)
화훼조경	20	33.9
한우	21	35.6
경영	11	18.6
축산	7	11.9
	59	100.0

<그림 4-1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목적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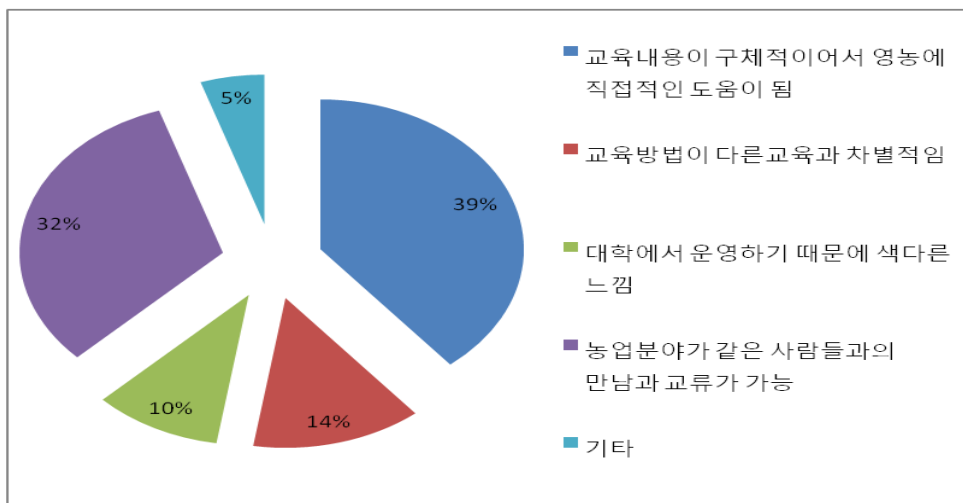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참여한 1차적인 목적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거

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새로운 농업기술과 정보획득의 목적을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응답(83.1%)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40.7%, ‘만족’이 15.3%로 절반 이상은 입학당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농업마이스터대학 보다 만족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그림 4-15>).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장점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영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9%, ‘같은 농업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점’이 32.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마이스터대학과 매우 유사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영농기술과 인맥형성의 측면이 큰 성과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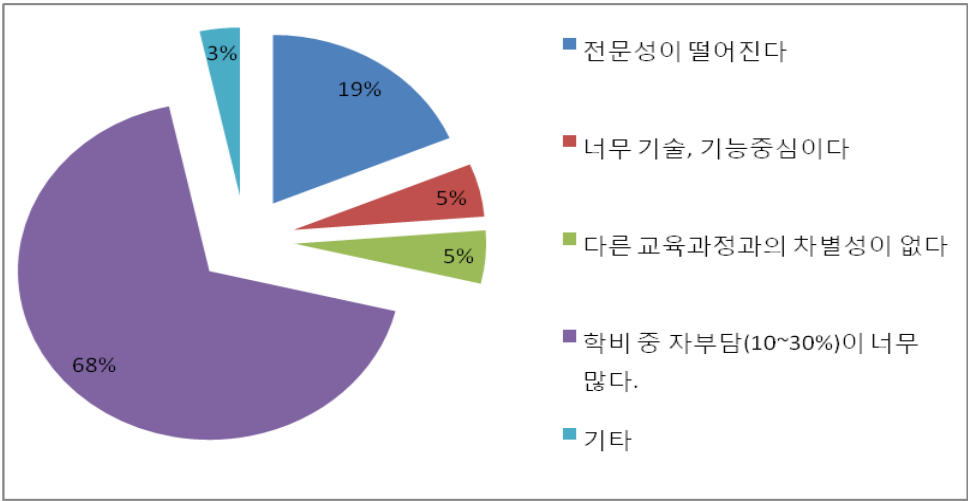
<그림 4-16>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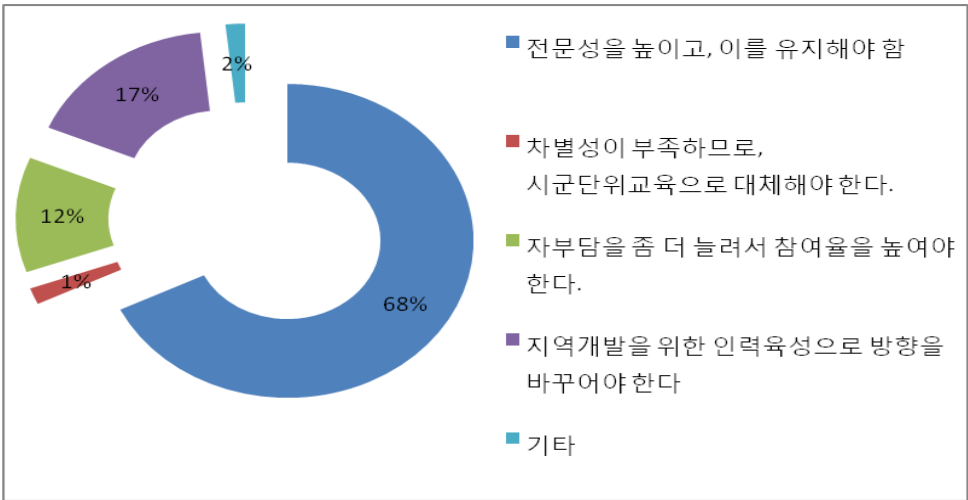
반면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단점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비 중 자부담 비율(10~30%)이 너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67.8%)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19.1%로 나타났다(<그림 4-17>). 이는 장점에 대한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본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자부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봤듯

이 출석율이나 학습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부담 비율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에서도 자부담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행정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4-17>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단점



<그림 4-18> 향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개편방향



마지막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67.8%의 응답자가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인력육성으로 방향을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16.9%,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11.9%로 나타났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개편에서 적극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된다.

2. 농업마이스터대학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현재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천안연암대학, 충남대학교에서 원예, 특용작물, 과수, 친환경, 축산의 5개 학과에 딸기, 시설채소, 인삼, 사과, 버섯, 친환경경종, 친환경 채소, 한우, 양돈, 배의 10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이번 설문에는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협조를 통해 총 64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의 과정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64명 중 원예 28명(43.8%), 특용작물 27명(42.2%), 친환경 9명(14.1%)이다(<표 4-10>).

<표 4-10>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과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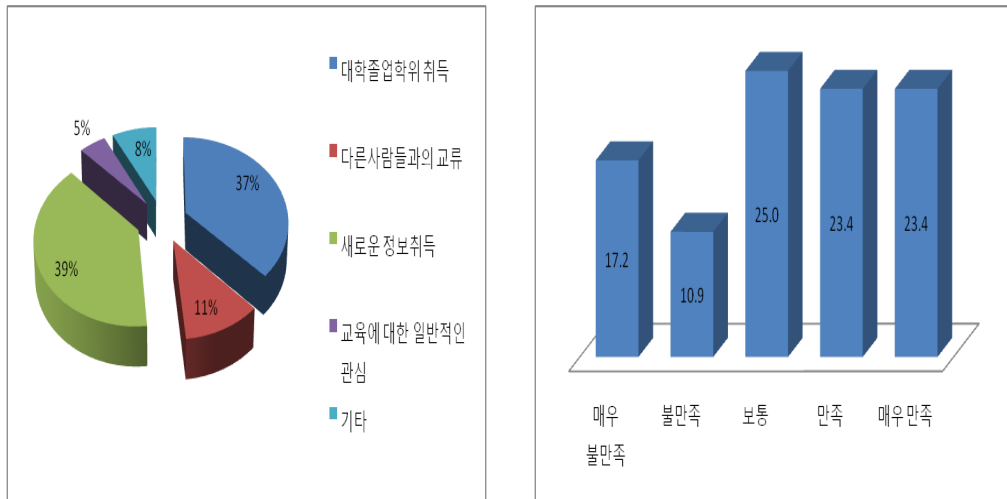
	응답자 수	비율(%)
원예	28	43.8
친환경	9	14.1
특용작물	27	42.2
	64	100.0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입학한 목적과 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39.1%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입학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학위취득이라는 응답도 37.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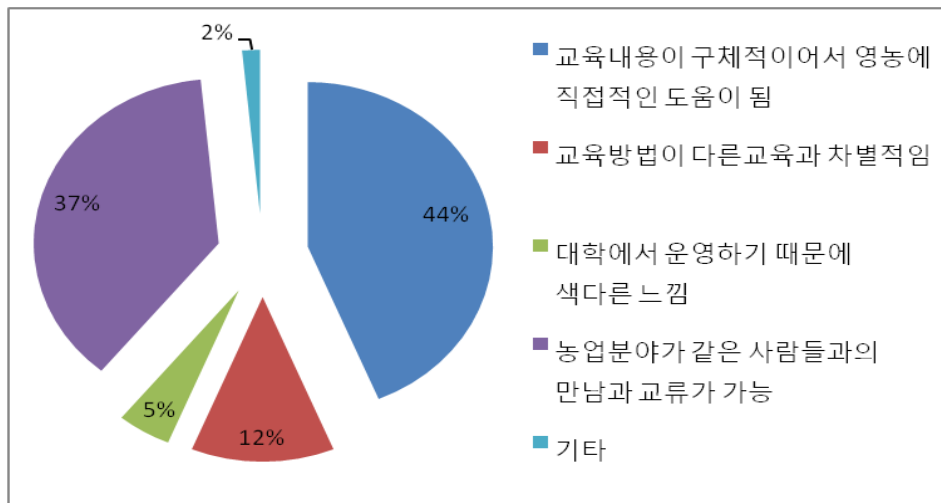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25%, ‘만족’과 ‘매우 만족’이 23.4%로 대다수의 응답자는 입학당시의 목적에는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그러

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만족도는 사회 농업교육으로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재편과 새로운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4-19>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목적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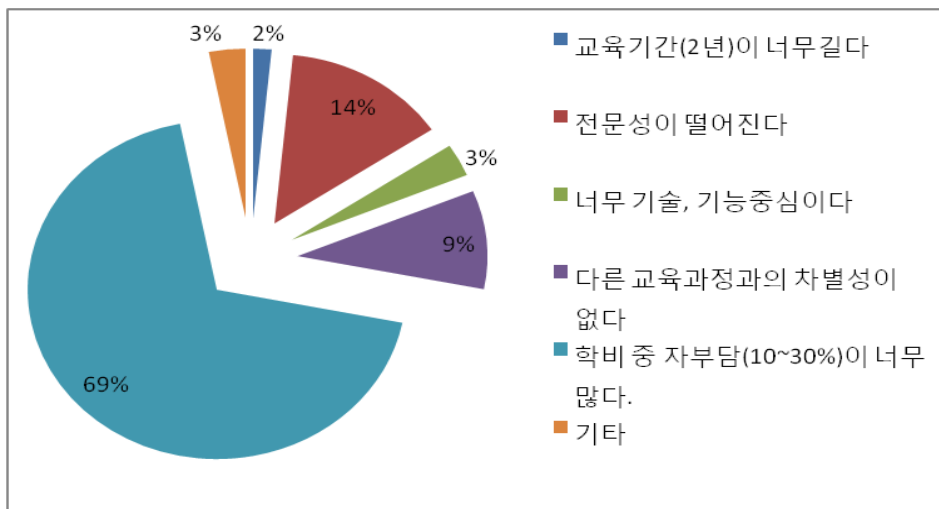
<그림 4-20>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장점



마이스터대학의 수강 중에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육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영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농업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점’이 3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기 농업·농촌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장점인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과 참여자간의 교류와 친분 등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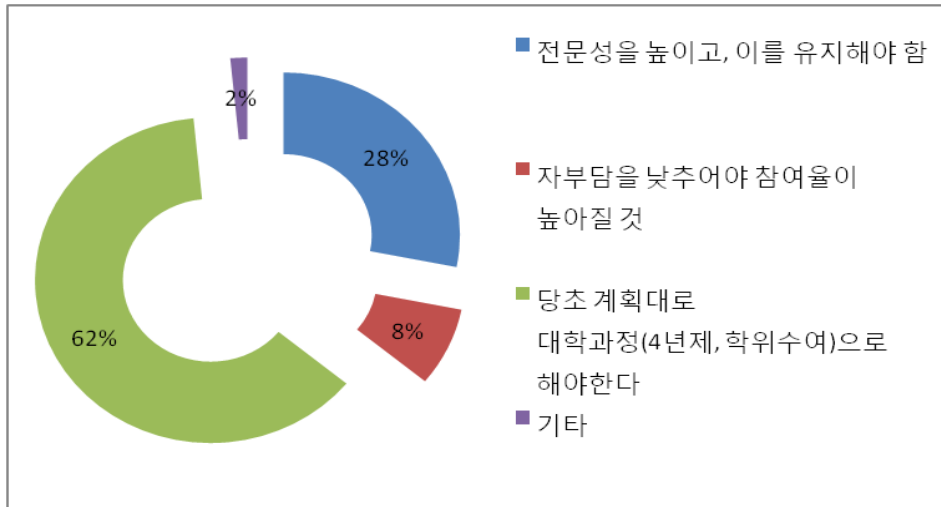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농업마이스터대학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8%가 ‘학비 중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의 응답으로는 ‘강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14.1%,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9.4%로 나타났다(<그림 4-21>).

<그림 4-21> 농업마이스터대학의 단점



마지막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의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62.5%의 응답자가 당초 계획대로 4년제 교육 및 학위수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28.1%, 자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8%로 집계되었다(<그림 4-22>)

<그림 4-22> 향후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개편방향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참여자들이 보여준 ‘입학 목적’에 대한 불만족의 대부분(90% 이상)은 출발 당시 학위취득을 보장했다는 내용이 변경된 사실에 대한 불만인데, 이는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자부담의 증가를 현실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초 입학 목적 중 중요한 부분이 4년제 대학 학위취득에 있었기 때문에 학위수여와 4년제 운영과 같은 당초계획이 지켜진다면 여타의 불편과 불만은 상당부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교육생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 및 열의를 감소시킨 것은 교육내용과 방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초기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 다시 말해 교육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4절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지역리더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방법 및 내용

1) 인터뷰 방법 및 인터뷰대상자의 지역분포

인터뷰는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에 방문 약속을 하고, 인터뷰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인터뷰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교감을 한 연후에 연구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설문조사지와 연동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지역 내에서 농업 혹은 농촌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focus group)에서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지역적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고,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4-23>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지역분포



<표 4-11> 인터뷰조사 대상자의 지역분포와 특성

지역	특성 I (지역관련활동)	특성 II (농업관련활동)	비고
논산	권역사업사무장/예비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	귀농·귀촌인
"	권역사업추진위원장	과수원(농장)대표	-
홍성	향토산업육성단 사무국장	친환경농업단체 실무자	귀농·귀촌인
"	충남형 사회적기업 대표	영농조합법인 대표	-
"	전 권역사업추진위원장	친환경농업마을 대표	-
예산	전 권역사업추진위원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
"	향토자산관리센터 이사장	농업인	농민운동가
청양	마을사업 위원장	식당대표	귀농·귀촌인
"	권역사업추진위원장	-	귀농·귀촌인
아산	한살림전국생산자연협회 회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민운동가
보령	지역언론사 대표	농업인	농민운동가
공주	전 면(面)새마을금고 이사장	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대표	-
서천	충남형 사회적기업 대표	로컬푸드실천단체 사무국장	귀농·귀촌인

인터뷰대상자의 지역 내 역할과 특성을 보면, 총 13명 중 6명이 권역사업 혹은 마을단위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맡은 적이 있으며, 2명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5명은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식당대표, 로컬푸드 단체의 대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심층인터뷰 내용

(1) 청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추진위원장 A

1년에 70일 가량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연계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강제로 동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적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육에 대한 참여를 일

(보수 등 반대급부를 요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교육운영기관의 통합·조정으로 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과정별로 단계별·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주고, 다음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료증을 주는 과정도 있지만, 일회성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유사한 내용의 다른 교육을 또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2) 논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장 A

귀촌하여 농촌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해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받은 교육이 리더십 중심의 기초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회계, 세무, 노무 등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향후에는 전국의 선진사례 및 현장견학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운영기관과 참여하는 강사에 따라 똑 같은 제목의 교육인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교육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정부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논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추진위원장 B

전체적으로 교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운영기관이나 큰 제목은 다르지만 유사한 교육이 너무 많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수준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같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사업 첫 해인 위원장이나 사무장과 이미 사업을 몇 년 진행한 권역의 위원장이나 사무장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매년 똑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 또는 권역의 리더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교육기관의 통합 또는 내용별 구분이 필요하다. 농업생산, 마을만들기 등 특정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별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참여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참여자들이 찾아가서 듣고 싶은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4) 아산지역 영농조합 대표 A

현재 아산지역에 콩나물 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자 지원과 생산자를 위한 사회적 복지차원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아산 내에 공동축사 5개소를 건설하여 개별축사를 공동형태로 변경해 향후 FTA에서 가장 큰 여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조합에 소속된 30개 회원마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FTA를 대비한 10년 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마을 리모델링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현재 일정한 분류 없이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술이나, 영농기술교육의 방향이 현재 고령 농업인층을 실용적인 측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가업을 이어 농업을 시작한 영농후계자 혹은 새로이 영농을 시작하려는 귀농자는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농업에 대한 의지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방식에서, 젊은 농업인층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서, 젊은 농업인층의 교육 방안을 다양한 농업기술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영농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농업철학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의 교육과 농업경영의 조직과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관련 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신적, 기술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마을리더교육 혹은 경영, 마케팅과 같은 마을개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점차적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역에서는 평생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농사꾼을 키우게 되는 것이므로 농업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풀뿌리부터 교육한다”는 철학이 교육전반에 필요하다. 또한, 리더를 통한 조직(영농조합 등)화는 영농생활 성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자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농민은 소득보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이다. 그러한 농민의 상황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활용하는 것이 농업과 농민교육의 성공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의 리더들에 대한 교육 역시, 세무나 회계, 노무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을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을 통해 그 사람이 농업에 대한 의지를 기르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5) 예산 문화관리센터 이사장 A

현재 예산지역에서 향토산업추진단을 조직하여 지역단위 사업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 된 이후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단을 결성하게 되었고, 현재 예산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일과 예산지역의 김정희 추사체를 위탁 관리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과거 다양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 추진단 내에서 자본보조, 디자인

지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 자체교육을 1달에 한번 씩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방식과 형태는 정보공유 및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교육의 형태는 띄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과거 농업인 교육을 경험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느꼈던 점은 교육이 획일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와 교육을 통한 농업 혹은 농촌개발의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기관의 존속을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은 가산점 부여를 받아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농업인교육은 첫째, 연령에 맞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층의 농업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에는 마을의 특성부분과 연계되는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농업생산과 기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리더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굳은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지도자는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아이디어와 의지를 형성하는데 교육은 하나의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실질적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1차적인 목표는 소득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마을의 특색을 살려 브랜드화 하기까지의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교육을 통해 농민 스스로 추가적인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강의의 형태는 당장 교육장 안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이 정보를 가지고 농민이 직접 활용, 응용을 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현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소모임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즉 찾아가는 교육이 농민들로 하여금 더 도움이 되고 의지를 갖고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의견으로, 교육과정이나 내용의 변경, 신규개설 등과 같은 교육관련 예산의 변화폭이 즉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과 지자체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시간적인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예산 지역마을학교 이사장 B

과거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농업은 생명창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재 한방체험사업과 약초·건강사업, 관련교육을 병행하는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숲길 조성, 지역문화체험코스 등 지역과 마을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성을 가진 마을로서의 발전 중에도 하나의 중심된 생각을 통해 퍼져나가는 방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보통 교육의 정보성은 우수하지만, 차후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나 운영자가 주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받는 이수생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진행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촌리더교육과 관련해서는, 마을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교육과 마을사업에 많은 신경과 노력과 시간을 쏟는 반면에 그 대가가 전무하다는 부분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교육내용이 우수하더라도 리더가 소득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더교육을 받는 마을의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적 방안을 채택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거 구제역발생과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어주는 농산물이 오히려 전국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가적 측면으로 수급조절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생산품목을 특화시키거나 지역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진 말아야 할 것이다.

(7) 공주지역 영농조합 대표 A

영농조합 법인 설립 이전에 권역개발사업과 산촌마을개발사업의 경험이 있으며, 임업과 그 생산물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영농조합 설립에 앞장서게 되었다.

충청남도나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임업인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업인의 소속은 산림청에 속해 있지만, 산림청은 산림자원보호에 주력할 뿐 임업과 그 생산물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업에 대한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인 대상 교육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친환경 매뉴얼에도 임산물과 산촌마을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업종사자와 산촌마을에 대한 의지는 법인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임업인이 많은 공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임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종사자 대상의 교육보다는 그 규모와 교육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임업에 대한 종사와 임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임산물이 주식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농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Well-Being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서 임산물은 건강보조식품의 일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경쟁력을 가진 우리 땅의 임산물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업종사자와 임산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지원은 임산물의 수확 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임업의 특성상 임산물에 대한 관리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측면이 강해 한 해 임산물의 생산량이 높다고 해도 이를 보관·관리하는 방법이 없어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산물의 공급량을 맞출 수 있게 임산물의 다양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산적 측면에선 임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품질관리의 측면을 교육하여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산촌마을은 그 특성상 농업지역에 비해 관광적으로 개발할 자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이 기업의 도움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그 자원을 개발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산촌마을의 개발은 사업 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측면을 갖추거나, 아예 개발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마을의 입장이나 산림 보호의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청양 녹색농촌마을 위원장 B

현재 녹색농촌휴양마을의 콘셉트를 가지고 녹색농촌마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체험객이 원하는 방향과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워크숍이나 포럼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생각해 본 점은, 교육에 대한 흥미를 과연 교육 관련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나 마을의 리더가 교육을 받고 혜택을 얻는 등 기본적인 흥미와 집중의 요소를 현재의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에선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교육에 참가하는 단지 의무적 형태를 띠고, 그 안에서 배운 정보는 말 그대로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 현실에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의지만 있다면 마을단위나 소모임 단체에서도 직접 시행하고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합에서는 자체교육계획을 갖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청이나 기술센터, 지자체가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질의 콘텐츠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농업인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파악하고 부가적으로는 농민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농촌문화관광 사업이 통합관리 형태로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 기준을 투자가 많이 들어간 마을이나 적은 마을이나 같은 대상으로 보고 매출액과 방문객 수로 향후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기준선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과 투자액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지원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 흥성 자활형 농업마을 대표 A

과거 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는 20세대의 전원마을을 구성해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는 등 지역민이 스스로 자활하는 모델을 개발·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활적인 농업마을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많은 교육에 참여하면서, 얻은 것은 먼저 현장중심의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강의중심의 교육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물론 정보의 입수에서는 훌륭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완성된 내용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해 가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고, 이를 적용시킬 방안을 스스로 연구하게끔 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은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자신의 농업이나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나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부가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하루나 반일의 단기교육보다는 2박3일 과정에 일정 횟수 이상 지속되는 반복되는 교육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렇게 해야 교육참여자가 얻는 학습효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이나 농촌리더과정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일반인들이 리더육성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단체나 연합회의 대표로 선정이 될 때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질을 더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리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리더교육을 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조직강화와 관련한 교육을 우선 시시해야 하며 그 속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 중에서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심화교육을 하는 것이 리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하나의 스타트 역할, 기능으로서만 생각해야 하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 대학이나 시군기술센터 등 기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초교육에만 집중하도록 정책적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심화된 교육은 그 교육을 정말로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의 선정은 성공·인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가진 사람을 강

사로 초빙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최종목적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전문가는 지식의 전달만 가 능할 뿐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강사 를 최대한 오래 접촉하게 함으로서 노하우와 정보, 마인드를 교육 이수생이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교육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은 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무작정 지원만 받아서는 그 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농민단 체가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관이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법 을 선정하고, 그를 통해 리더를 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지역의 자활도 이루어지고 교육효과도 커지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10) 홍성지역 영농조합 대표 B

현재 친환경지구 조성사업과 장비지원사업, 친환경 생산조직 육성사업 등 지역에서 친환 경농업을 실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지구와 영농조합의 설립을 위해 다 양한 심포지엄과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스스로도 로컬푸드 교육과 농업마이스터과 정 이수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해 왔다.

마이스터 대학을 이수하면서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분명히 농업경영 과 생산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인원을 배출하면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스터과정을 수료하고 농업에 대한 능력과 스킬을 갖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들을 충남도의 다양한 농 업관련 정책사업에 투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료자와 정책사업 을 연계시킴으로써 교육참여의지도 높이고 정책사업의 성공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농촌마을 혹은 영농조합 내 많은 농업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피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변을 둘러보면 지역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모임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의지를 가진 소모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또 다른 교육정책의 일종으로 충분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귀농인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11) 홍성지역 지역산업육성단 사무국장 C

과거 마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인적자원의 부족, 생산작목의 부족, 공급루트 부족 등 단위마을의 한계를 실감하고 좀 더 광역화된 지역발전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의지의 실현을 위해 농업기술원 친환경 리더과정의 커리큘럼 작성에 참가하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발전의 주제와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관련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벤처농업대학도 이수하였다.

벤처농업대학을 이수하면서 농업교육의 기본적 문제제기를 생각하게 된 점은 벤처농업대학은 기자재를 활용하고, 90만원의 수강비에 기간도 짧고 수면시간도 부족한 상당히 짝차여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항상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급화된 농업교육을 받는 이유는 고급정보의 획득 및 교환, 인맥형성의 장점, 고급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벤처농업대학은 이에 더하여 짧은 시간동안 농업경영의 전반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점은 현장에서는 이념과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지는 기술 및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결국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교육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지는 꼭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준비가 된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단위마을의 수준에서는 전문인력이나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시군단위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광역단위의 전문인력을 육성·파견 할 수 있는 전문교육·양성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실무자들에 대해 농업특성을 반영하는 스킬을 가르치고 지원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 및 관리기관은 필수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과 귀촌자를 가르치는 교육들이 정확한 교육초점을 못 잡는 경향이 있다. 귀농 귀촌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순 이주민을 구분하는 선별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귀촌을 한 이주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농업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치는 정신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보령 지역형기업 대표이사 A

현재 대표이사의 직함을 얻기 전까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대표이사직과 농업을 병행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할 때는 농민회 활동에 주력해 왔고, 농업교육은 영농기술에 관련된 교육을 다수 받아왔다. 그리고 시군단위의 농업대학에서 농업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농업교육은 본인의 농업에 대한 생각과 시각의 폭을 넓혀줬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농업기술원에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은 지역활당에 따른 교육의 참여로 인해 흥미와 취향, 의지에도 맞지 않아 교육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 농업기술원에 가야하는 시간적 문제와 교육시기가 농번기에 실시되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시군단위의 기술센터 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고, 지역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흥미와 의지를 갖고 교육에 참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교육에 대한 개선에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욕심은 있으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측면

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대적 흐름은 개인화와 개별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만큼은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어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진 민족적 끈끈함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분명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내용이 참여자의 소득보전 혹은 새로운 소득창출 등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는 탁상공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농협의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농정을 봤을 때, 이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민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마을사업이 되었던 교육사업이 되었던 모범사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범사례에 대한 견학이나 교육은 모두가 모범사례와 같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심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실정을 먼저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으면서 지역민도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사업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진행방식이라고 생각한다.

(13) 서천지역 영농조합 사무국장 A

현재 유정란, 두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직판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서천군 학교급식 납품처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서천군 내 생산자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일전에 포토샵이나 온라인 유통판매 방법과 같은 정보화 교육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유통과 축산에 관련된 특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소비지 직접방문판매에 대한 교육이나 최종소비

자, 소비자의 현황, 실정 등 소비자의 생각을 생산자가 알 수 있는 교육이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업인교육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은 없지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왔다.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 이유는 먼저 교육기획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농업교육이 과연 농민의 필요에 맞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수요와 필요가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교육생들의 실정을 고려해 기관·지역단체가 농민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시간,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참여율과 교육에 대한 의지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영방식도, 교육과정에 참가를 해야 차후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과 생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열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하고 지원은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교육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교육효과는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지역단위에서는 그들이 자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소모임이 주체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할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농촌그룹에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공모하게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심층인터뷰의 시사점

1) 교육과정 및 내용,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시사점

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각 과정별·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 참여자들에게도 이들이 수료한 과정과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정을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과정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불필요 노력을 줄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이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② 지역민을 고려하는 교육과정을 채택해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 농업기술원에 가야하는 시간적 문제와 교육시기가 농번기에 실시되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대로, 시군단위의 기술센터 교육은 주변 농민의 실정에 맞춰 농한기에 실시하고, 지역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적 측면을 충청남도와 도 농업기술원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보통 교육의 내용 자체는 우수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을 받는 이수생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진행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교육의 기획과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농촌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삶의 유지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지역에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수요와 필요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피교육생들의 실정을 고려해 기관·지역단체가 농민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시간, 장소를 선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교육이 획일적이고 타성에 젖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기관의 존속을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은 가산점 부여를 받아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옳지 못한 인식과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도청이나 기술원도 시군단위의 기술센터와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나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업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다. 임업종사자의 소속은 산림청이지만, 산림청은 산림자원보호에 주력하고 임업과 그 생산물에 대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임업의 규모가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이 주식재료로서 쓰이지 않아 임업과 임업종사자 대상의 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의중심의 교육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물론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중요지만, 이미 완성된 내용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고, 이를 적용시킬 방안을 스스로 연구하게끔 하는 교육진행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피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지역의 흐름을 보면, 지역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모임이 상당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진 소모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찾는 것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일종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의 선정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경험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교육운영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운영기관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은 중앙대로 도나 농업기술원은 자기의 의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수 많은 기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은 의지만 있다면 마을단위나 소모임 단체에서도 직접 시행하고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청이나 기술센터, 지자체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농업인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그 위에서 농민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수료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들을 충남도의 다양한 농업관련 정책사업에 투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료자와 정책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교육참여의지도 높이고 정책사업의 성공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⑥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농업인 교육은 대상자를 분류하지 않고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대상자 선정을 기준에 정해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고과정까지 수료한 사람과 교육이 처음인 사람이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대상자 선정 시 수준별·분야별로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령층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와 집중 그리고 활용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연령층의 농업인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생산기술이나 영농기술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농후계자나 귀농인은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농업에 대한 의지를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리더들만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를 주민까지 확대하고, 동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마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대상자 선정을 추후 인센티브 제공을 빌미로 대상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농업인력육성교육과 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생각

① 지역리더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풀뿌리부터 교육한다.”는 철학이 교육전반에 필요하다. 리더를 통한 조직(영농조합 등)화는 성공적인 농업생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자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돕는 길이다.

굳은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지도자는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진 지역리더를 형성하는데 교육은 하나의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리더교육을 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조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강화 교육을 선행하고, 그 과정 중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 중에서도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심화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리더교육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② 리더의 존립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교육내용이 우수하더라도 리더가 소득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더교육을 받는 마을의 대표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적 방안을 채택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마을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마을의 특색을 살려 브랜드화 하기까지의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교육을 통해 농민 스스로 추가적인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농업이나 농촌리더과정의 교육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리더육성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연합회의 대표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리더교육보다는 단체장들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심화된 리더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3) 향후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① 교육프로그램 개선

리더십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현장견학과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하다.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 제시가 필요하다. 농업 생산과 관련된 교육,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 공동체회사 등 마을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 등 구체적인 과정과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촌의 리더들에 대한 교육을 세무나 회계, 노무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을 하되,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영농후계자나 귀농인의 경우, 다양한 농업기술과 영농기술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농업철학을 가질 수 있는 정신·철학 교육과 농업조직 및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관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신적, 기술적으로 준비된 농업인에게 점차적으로 마을리더교육이나 마을개발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 평생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농업리더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 농민은 소득보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이 된다. 그러한 농민의 상황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활용하는 것이 농업과 농민교육의 성공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농업인은 연령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층의 농업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에는 마을의 특성부분과 연계되는 측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②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나 반일의 단기교육보다는 2박3일의 과정에 횟수를 일정수준 이상 지속하는 중기교육의 형태로 진행해 교육참가자가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종 마을사업과 개발사업에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이수생을 멘토로서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소모임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즉 찾아가는 교육이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단위에서는 그들이 자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소모임이 주체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할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농촌학습그룹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위마을의 수준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시군단위로 보고 광역단위의 전문 인력 육성·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양성기관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농업특성을 반영하는 스킬을 가르치고 지원하고, 그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 및 관리기관은 필수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

③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 확보

교육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을 통해 그 사람이 농업·농촌에 대한 의지를 기르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할 것이고, 둘째, 지역에서 생활과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업과 관련된 교육이 개설된다면, 임산물의 수확 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임산물에 대한 관리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측면이 강해, 한 해 임산물의 생산량이 높다고 해도, 이를 보관·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그냥 임산물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물의 공급량을 맞출 수 있도록 임산물의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품질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일정한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귀농인 대학이나 시군기술센터 등 농업종사자와 인접한 거리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초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심화된 교육은 그 교육을 정말로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특화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은 지역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지역이 스스로 필요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민·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먼저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과 단순히 생활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긴 귀촌자를 선별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공통적인 과정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치는 정신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직접 방문판매에 대한 교육이나 최종소비자, 소비자의 현황, 실정 등 소비자의 생각을 농촌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교류가 필요하다.

4) 기타 의견 및 시사점

교육과정이나 내용의 변경, 신규개설 등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보오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급화된 농업교육을 받는 이유는 고급정보의 획득 및 교환, 인맥형성의 장점, 고급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벤처농업대학의 경우, 이에 더하여 짧은 시간동안 농업 경영의 전반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팅이 필요하다.

제5장 충남도 농업·농촌리더육성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개선의 기본방향

1. 관련정책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1)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정책의 변화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력육성의 총괄부서(경영인력과)가 농업정책국에서 농촌정책국의 이관되었으며, 농촌정책국이 농식품부의 주무국의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주된 업무로 해 왔으나 이제 ‘농촌정책’ 주된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육성사업 역시 ‘농업인력육성’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농어농촌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인력육성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에 발표된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농식품부, 2011. 9)은 첫째, 교육기관의 기능에 따른 전문교육의 추진 둘째,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셋째,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대국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농식품부)은 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계획의 총괄·조정, 교육운영모니터링 및 평가총괄,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에서는 광역단위 혹은 전국단위의 교육과정을 (위탁)운영하고, 농업인재개발원에서는 관련정책개발과 평가지원, 관련기관 네트워크 운영, 신규수요개발 및 모델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역개발리더교육 등 기관별 특화영역을 운영하고,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최신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리더 육성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고, 이것이 각종 ‘지역리더교육’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대표적인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이다.

<표 5-1>과 <표 5-2>에서 보면 마을단위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된다면 전국적으로 950개 이상의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이 생겨날 것이다. 이외에도 권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이나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유사사업까지 합하면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추진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마을이 4~5천²⁷⁾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표 5-3>에서 보는 대로, 충남도 내에도 2010년 말 현재, 155개의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희망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도에서는 2014년까지 도내 4,54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역량수준에 따라 일반마을(3,128개), 희망 새싹마을(1,126개), 희망 꽃마을(231개), 희망열매마을(59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희망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 형성을 위해 2014년까지 9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2명씩 총 1,800명의 지역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인력 육성 중심의 농업인교육의 상당비중을 농촌인력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27) KBS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이미 4,700여개의 농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5-1> 마을단위 농어촌개발사업의 현황

사업명	해당부처	지원내용	특징	비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식품부	개소당 2억 원	마을단위 추진 도농교류, 지역활성화	2009년까지 442개소 지정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안전부	개소당 10억 원	"	2003년 사업 중단 (23개소 지정)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개소당 1억 원 (1억 추가지원)	마을단위 추진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환경농업	2009년 사업 중단 (170개소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부	마을지정, 홍보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 경기초시설 등 예산 신청 시 우선 배정
산촌종합개발 사업	산림청	개소당 14억 원	"	연계사업 지원 가능 2009년까지 204개소 지정
어촌체험마을	농식품부	개소당 5억 원	"	2009년까지 112개소 지정
팜스테이사업	농협중앙회	마을지정, 홍보	"	홈페이지 등록
새농어촌건설 사업	강원도	마을당 5억 원	"	사업성과에 따라 10억 원 까지 추가지원 가능
으뜸마을가꾸기	진안군	주민요구 수렴	"	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원

<표 5-2>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9년 말 현재)

구분	계(개소)	비고
녹색농촌체험마을	442	2002년 시작/2017년까지 850개소 지정 예정
어촌체험마을	112	1994년 시작/2013년까지 122개소 지정예정
전통테마마을	170	2002년 시작/2009년 사업종료
산촌생태마을	204	1995년 시작/2012년까지 300개소 지정 예정
아름마을	23	2001년 시작/2003년 사업 중단
합계	951	-

<표 5-3>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 현황(2010년 말 현재)

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 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155	75	6	11	39	24

3)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체육성

최근 일자리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관련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관련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총괄하는 ‘광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이미 충남형사회적기업 58개, 마을기업 37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사회의 지속성확보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육성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 육성교육은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1)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마련

<표 3-3>과 <표 3-4>에서 보듯이 참여도가 높은 과목과 참여도가 낮은 과목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는데도 거의 유사한 교과목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참가와 무관하게 유사과목이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해당교육과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교육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과목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참여도가 높은 과목은 증설될 것이며, 참여도가 낮은 과목은 시간과 내용이 줄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 과목이 의례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교육과정이나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모두 매년 유사한 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과정의 반복적 시행은 설문조사와 지역리더 심층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고 교육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결과에 대한 교육참여자의 의견청취와 교육이수 후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유사교육과정의 통합과 간소화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교육과정을 보면 2009년 6개 과정 40개 반, 64회, 2010년 6개 과정 41개 반, 66회, 2011년 5개 과정, 38개 반, 52회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이 시행되었는데, 많은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유사해서 그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가령, 전자상거래마케팅반과 전자상거래반, 대형농기계반 트랙터 과정과 트랙터반, 이미지편집반과 포토샵반 등이 그것이다.

<표 5-4>에서 보면, 2009년에 개설된 ‘이미지편집반’과 ‘2010년에 개설된 ’포토샵고급반‘은 과목명만 다를 뿐 교육내용은 100% 동일하다. 개설시기(2월 하순, 3월 중순, 4월 하순)와 인원(26명×3회=78명)도 거의 동일하다.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름을 달리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에도 유사과목이 중복적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교육수요가 많을 경우 동일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교육운영자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교육수요가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농업인교육재편 방향도 유사교육과정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

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및 FGI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중복과정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교육프로그램 비교

이미지 편집반 (2009)			포토샵 고급반 (2010)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전문과목	20	▶ 디지털카메라 활용 ▶ 포토샵 기능익히기 ▶ 이미지편집, 합성 ▶ 이미지 명암 제작, 이미지 레디	○전문과목	18	▶ 디지털카메라 활용 ▶ 포토샵 기능익히기 ▶ 이미지편집, 합성 ▶ 이미지 명암 제작, 이미지 레디
○자유토론	1	▶ 자기소개 및 정보교환	○자유토론	1	▶ 자기소개 및 정보교환
○기타	2	▶ 등록, 입·수료, 설문 등	○기타	2	▶ 등록, 입·수료, 설문 등

자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전문교육계획」 2009년도, 2010년도.

3. 교육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시·군의 농업인대학,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대학 등은 유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참여도(2010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평균 출석률 32%)가 떨어지고 2011년에는 급기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간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인 교육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인교육 관련주체의 역할분담을 ①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총괄·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②관련정책개발과 평가지원, 관련기관 네트워크 운영, 신규수요개발 및 모델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③지역개발리더교육 등 기관별 특화영역을 운영하는 기관, ④마이스터대학과 같이 위탁교육 전담기관, ⑤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교육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최신기술 전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역할분담방식을 준용해서 각 주체의 역할배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충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같은 다양한 주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도 농업기술원이 이러한 통합기능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운영주체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농업인력육성전문기관’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합운영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교육편중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교육기관 간 역할재설정을 위해서는 관련주체들의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초단위와 광역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예산분담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하나의 과제는 ‘교육참가자의 자부담율 조정’ 문제이다. 특히, 장기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부담액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그림 4-17>, <그림 4-21>). 그렇지만, 경험적으로는 자부담율이 높은 교육일수록 교육 참여율과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률을 경감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벤처농업대학 참조). 해당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오히려 교육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다. 즉,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부담에 대한 저항은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률을 낮추는 대신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참여자 자부담율 조정문제는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교육성과 도출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도입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교육내용과 성과간의 상호관련성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내용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것 즉, 교육이 교육 그 자체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참여도가 낮았고, 사업 확보를 위한 억지참여가 다반사였던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벤처농업대학’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교육개편의 원칙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교육성과의 도출이 가능한 교육’을 농업인 교육개편의 큰 방향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육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교육메뉴를 제시하고, 수요자(농업인, 교육참여 희망자)의 선택·주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예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참여자들의 의견 개진한 후 프로그램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전국 단위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충남도 단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1년 교육 계획을 현재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혹은 농업인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제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발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적 필요성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농업인재개발원 등 중앙단위의 농업인 교육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교육사업을 공모방식을 추진할 경우,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에 교육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과정을 설명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참여희망자가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시기와 장소 등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운영과 성과도출이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5. 학습자조직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농업인력육성이든 농촌인력육성이든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참여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의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목표그룹을 설정하는 것도 용이치 않다. 또, 앞서서도 보았듯이 자발적인 교육 참여라기보다는 관련사업의 유치를 위한 강요된(?) 과정으로서 교육

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육참여자의 의지를 자극하고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학습자조직 지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관련제도 일반이나 추상론적인 원리,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학습’은 현실적 여건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과제나 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면과제 해결이 주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습은,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자기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은 교육이 전제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며, 교육 역시 학습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서도 교육과 학습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현장단위의 학습조직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교육사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연구단체(4-H 등) 육성·지원과 동일하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지원이어야 하고, 학습조직을 운영하고자하는 주체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충남도 내 각 지역에는 자체적인 학습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기초단위의 학습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품목별 학습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연구조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표방하는 조직들(예: 홍성 지역활력소, 서천 귀농귀촌협의회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성과를 분석하여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제2절 개선방안

1.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의 종합적 점검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그리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지역리더들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황파악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별로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이나 운영현황, 교육방법의 문제점 등에 구체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각 교과과정별로 해당 교육과정이 어떠한 목적 하에 개설되었고,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쌀전업농 CEO반」을 이수한 농업인이 해당 교육을 마치고 ‘고품질 쌀 생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쌀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경영마케팅반」을 이수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기 전과 이수한 후에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쇼핑몰 운영반」을 이수한 농업인인 교육을 마친 후에 얼마나 쇼핑몰을 운영하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이 연구성과를 가지고 어느 교육과정이 효과가 적고(=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교과목) 반대로 어느 교육과정이 효과가 크다(=교육과목을 확대하거나 신설해야 할 교과목)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역량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진 원초적인 한계 즉, 연구시기와 기간, 연구비지원 규모 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지만, 충남 농업·농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삼농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인력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같은 단편적이고 임시방

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종합점검 및 개선방안]

- 교육과목, 참여인원, 예산 파악 : 본 연구수준
- 각 교육과정의 개설목적과 목적 대비 성과분석
 - 왜 그러한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개설목적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 2011년도 경우,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설한 교과(반)가 38개반이고, 교육기수가 52기였으며 참여인원이 2,100명(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방대한 작업이 필요함
 - 또한, 각 교육과정의 개설 시기가 연중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기간도 장기간(=최소 1년)이 필요함
- 농정목표(=‘삼농혁신’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달성을 위한 교육수요조사
 - ‘삼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내용과 량을 파악
 - 삼농혁신을 위한 인력조달을 위한 교육과정 파악
 - 농업·농촌 현장의 교육수요 파악
 -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 육성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축소/폐지해야 할 교과목과 확대/신설해야 할 교과목 정비
 - 축소/폐지해야 할 교과목
 - 교과과정 개설목적이 시대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과목
 - 교과과정 개설목적 대비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과목
 - 현장의 교육수요가 줄어 교육생모집에 애로가 있는 교과목
 - 확대/신설해야 할 교과목
 - 개설목적 대비 성과달성도가 높은 교과목
 - 현장의 교육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교과증설이 필요한 교과목
 - 삼농혁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과목
 - 중앙정부의 농정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 교과관리(교과구성, 평가 등) 및 운영능력 제고방안 마련
 - 합리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신설
 - 교과운영자의 역량강화방안 마련
 - 교과운영의 민간위탁활성화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강구
 -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시키는 체계 구축 →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심층인터뷰),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도 제고와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 수료자를 중심으로 한 상호학습조직 지원방안 강구
 - 유사 교육수료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군단위에서의 (가칭)지역역량종합관리센터 운영방안 마련
-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표준지침」 마련
 - 사전수요조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교육운영(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및 모니터링, 피드백 방안 등 규정
 -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2.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의 확충

1) 교육 운영인프라 확충

교육의 성과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강사의 열정과 교육방식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4-12>에서 보듯이 이번 설문결과에서도 ‘강의형태, 토론, 현장학습 등’의 교육방법이 교육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방식의 개선이나 운영역량의 강화, 교육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참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강사의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교육운영인력의 확충과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셋째, 사이버교구재와 사이버교육기법의 개발 등 교육컨텐츠의 강

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 앞서 우선, 기존 교육운영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업인교육을 전담해 오고 있는 교강사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교육운영자들의 인식과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의 교육컨텐츠 현황,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충남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운영인프라 확충방안]

○ 강의교수의 능력향상 및 현장교수제도 강화

- 기존 교강사 및 신규교강사들을 대상을 한 합동워크숍 개최 : 년 중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미확정강사가 있어 모든 강사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확정된 강사나 내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기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강의기법을 습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교육기법 매뉴얼 개발·보급, 농어업인 정서 및 행동이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강의 능력 향상

- 독농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한 현장교수제도 강화 :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실습 전문교수 양성 사업’이나 ‘농업마이스터강사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품목·분야별로 경영능력, 기술력, 창의력 등 역량이 있는 선도농가, 신지식농업인, 농업CEO, 농업마이스터, 농어업컨설턴트 등을 현장교수로 위촉

☞ 농업기술원에서는 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교수 List를 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분기별로 ‘삼농혁신을 위한 현장교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현장교수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현장교수의 강의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 교강사의 정보를 DB로 구축,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기관 간 공유

☞ 교수의 전문장의 분야, 강의이력 등을 DB화(AgriEDU.net)

○ 교육운영인력의 확충 및 역량강화

- 교육운영자의 열정과 헌신성, 전문역량은 교육효과 제고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따라서 현재의 교육운영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자의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대책이 필요함

☞ 교육운영자와 농업인대표들과의 협의기구 구성 및 미팅의 정례화

☞ 교육사업의 시작 전과 종료 후, 합동워크숍 개최

☞ 교육운영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 민간기관과의 인사교류 : 민간교육기관 파견제도 활용(예 : 완주군과 희망제작소간의 인사교류 사례 참조)

○ 교육 콘텐츠의 구축 및 쌍방향 소통강화

- 중앙정부의 농업교육포털(AgriEDU)과 연계하여 충남도의 콘텐츠 구축방안 강구
- 집합교육에 필요한 선행학습, 보습교육과 기초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과정 개발, 운영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정보 제공
- 교육 및 인력육성 목표 설정, 능력진단을 위한 핵심요구역량, 능력표준 등 개발
- 농업교육 수요자 요구(Needs) 파악 및 운영 정보제공

☞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교육시기 등 수요(Needs) 파악 및 교육기관, 교육시설, 강사 운영 등 교육운영 관련 정보제공

2) 현장교육 시설의 확충

<그림 4-11>과 심층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현장견학과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교육, 교육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체험교육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비단 충남도 농업인들만의 의견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단위의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11년 8월 말 현재, 현장실습교육장은 ‘신농업교육체계 구축 계획(2008.8)’에 따라 전국 대표실습장 8곳, 선도농가실습장 57곳이 지정되어 있다.

<표 5-5>에서 보듯이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전국 8곳이 대표실습장 중에 충남에 2곳이 있으며, 역시 농식품부에서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전국 57곳의 선도농가실습장 중 충남도내에는 6곳이 있는데(<표 5-6>) 당진, 논산,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몰려 있으며 절반은 부여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5-5> 전국 대표실습장

지역	기관명	분야	전화번호	주소
경기	한과문화박물관	가공	031-533-812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20
강원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한우	033-340-6933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활마루길 109
충남	천안연암대	축산	041-580-1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산3-1
	세실	친환경 원예	041-740-8066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35
전남	전남대 나주실습장	축산	061-331-2827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산86
	순천대	IT기반 첨단	061-750-3266	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
경북	경북 축산기술연구소	축산	054-638-6011	경북 영주시 안정면 묵리 275
경남	경남ATEC	원예	055-771-6172	경남 진주시 초전동 1085-1

<표 5-6> 농식품부 지정 충남도내 전국 선도농가 실습장

지역	농장명(농장주)	품목	연락처	주소
당진	은일농산(최성태)	사과	041-353-0105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35-6
논산	산과들애딸기농장(윤여신)	딸기	041-741-3501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670-5
금산	(주)청정인삼(강원구)	인삼	041-752-7103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330-1
부여	증산목장(김정숙)	한우	041-836-6796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969
"	버섯뜰농장(최병국)	느타리	041-836-1126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282-3
"	세도영농회사(표희운)	미곡	041-833-5377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554

자료 : 농식품부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장교육시설 확충방안]

○ 도(道) 지정 현장실습장 확대

-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현장교육시설을 활용하되, 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현장교육시설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품목수요, 교육운영기관의 수요 등을 조사하여 실습교육의 요건을 갖춘 농장위주로 실습교육시설을 추가로 지정
 - ☞ 현장교수제도와 연계하여 현장교수 농장을 중심으로 시군별 혹은 품목별로 최소 1개 이상씩 지정

- 현장교육시설의 교육기자재 확보
 - 지정된 현장실습농장에는 현장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장, 실습시설, 교재, 강사 등에 대한 DB 구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과정 및 운영의 종합적인 조정

1) 수요자 요구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조정

(1)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시기적인 불일치로 인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수요자가 교육기관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인교육에서 바우처제도는 ‘친환경농업교육’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후계농·창업농교육, 귀농·귀촌교육, 여성농업인교육 등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가능한 교과목부터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시기의 조정

<표 3-6>에서 교육 이수율이 교육시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2009년, 2010년 모두 2월과 4월의 교육 이수율이 높은 반면, 3월과 6~7월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았다. 이 자료는

농번기에는 교육과정이 개설되더라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반면 농한기에는 농업인들의 교육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인의 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기를 농작물 수확이 종료된 이후부터 새로운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시설의 문제, 교강사 확보의 문제 등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연중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고려해서 교육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의 농한기에 집중 배치하고, 비농업인 많이 참여하는 교육은 농번기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한기인 연초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기사행을 강조하고 있다.

(3) 과정별 교육기간의 조정

2009년의 경우 반별 혹은 횡차별 교육기간은 평균 2.48일이었으며, 2010년과 2.45일, 2011년에는 2.61일이었다. 3년간 총 182회의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교육일수는 각각 2009년 159일, 2010년 162일, 2011년 136일(계획)로 총 457일로 1회당 평균 교육기간은 2.51일로 나타났다.

<표 5-7> 횡차 당 교육기간 분포

교육기간	횡차		비고
	2009	2010	
1일	19	17	-
2일	20	23	-
3일	14	13	-
4일	4	7	국화, 딸기, 토마토반, 느타리버섯반 등
5일	2	-	농업경영·유통반
6일	1	2	가공제품반, 농기계국가기능검정반
10일	4	4	영농사양성반, 농기계기능사반
합계	64회	66회	

<표 5-7>은 <표 3-3>을 기준으로 반별 교육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2009년의 경우 1일

짜리 교육이 19회, 2일짜리 교육이 20회, 3일짜리 교육이 14회였으며, 2010년에는 각각 17회, 23회, 13회 이었다. 교육기간이 긴 교육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대비반이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반면에 교육기간이 짧은 교육은 농기계 교육과 상설교육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4-8>과 지역리더 심층인터뷰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당 교육기간은 1박2일 혹은 2박3일 나타났다. 특히, FGI에서는 교육효과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합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해 교강사로 부터 특정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참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구축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간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당일치기교육이 중심이며 2일 혹은 3일 이상의 장기교육도 대부분 합숙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참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목이나 내용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간이 짧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보다 2박3일 정도의 합숙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촌리더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교과목의 조정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그림 4-6>, <그림 4-7>)를 토대로 한다면, ‘전문화된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일반적인 농업생산기술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즉,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으로서 ‘전문화된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반면, ‘일반적인 농업생산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교육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며 충남 농업·농촌발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에 의거하여 특정 교과목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이 의견을 교육프로그램 개편에 참고하고자 한다면, 먼저 왜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교과목의 내용 자체의 문제인가 혹은 교과목을 담당한 교강사(교수법)의 문제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교과목의 축소 혹은 확대 여부나 아니면 교강사의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부터 개별적인 농업인의 요구에 이르기 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견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교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가정원예, 가정 의학, 회계정리, 갈등관리, 전기용접, 산야초재배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인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조정방안]

-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교육 바우처제도의 확대 도입
- 교육시기의 조정
 - 익년도 교육계획 : 전년도말까지 수립완료, 년 초부터 교육실시
 - 교육시기와 교육이수율의 관계를 고려한 시기조정 : 3, 6월 교육 축소 → 1, 2, 4월 교육 확대
- 교육기간의 조정
 - 교육내용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 : 당일치기 교육 중심 → 2박3일 합숙교육 중심으로 !
- 교과목의 조정
 - 유사교과목의 통합과 간소화
 - 축소해야 할 교과목 : 일반적인 농업생산교육

- 확대해야 할 교과목 : 전문화된 농업기술교육, 가정원예·가정의학·회계 관리·갈등관리·전기용접 등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

2) 교육참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조정

<표 3-5>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교육참여자를 계획에 미달했던 교육이 각각 23.4%, 27.7%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기술교육과정이나 정보화교육과정의 미달률이 높았다. 내용적으로 보면 체험교육과정의 ‘사과반’과 ‘가공제품반’, 농기계교육과정의 ‘도서지역반’, ‘오지반’ 그리고 전문기술과정의 ‘자생화반’과 ‘허브반’의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에 정보화교육과정은 ‘전자상거래마케팅반’과 체험교육과정의 ‘구기자반’ 그리고 전문기술교육과정의 ‘GAP실무반’과 ‘신규귀농인반’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2009년도에 교육참여율이 저조한 교과목은 대부분이 2010년도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수요가 기본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차기교육계획 수립 시에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임의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2년 혹은 3년 연속 교육참여자가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라든가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교과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교육참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조정방안]

○ 프로그램 조정방향

- 교육수요가 많은 교과목 : 확대 혹은 신설
- 교육수요가 적은 교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프로그램 조정원칙

- 2~3년간 연속해서 교육참여자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교육수요조사에서 수요가 계획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특정한 정책목표(예: 삼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 친환경농업육성 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목 : 확대 혹은 신설
- 단, 축소/폐지나 확대/신설 여부의 결정은 관련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3) 농촌인력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1)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정부의 농정은 농업정책중심에서 농촌정책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농업인교육에서는 여전히 농촌인력육성 보다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력육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은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는 충남도만의 특성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계획과 지도하에 놓여 있는 농업기술원의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변했다. 중앙정부에서도 생산기술, 농산물마케팅, 경영능력향상 위주의 교육을 지역개발, 지역산업육성, 농어업공동체육성, 농업회의소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인력육성 교육의 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농산업경쟁력제고 및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개편, 2011.9). 충남도에서 이른바 ‘삼농혁신’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인력육성도 이러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교육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충남도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 방안]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의 목표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력 강화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실현
- 순환과 공생의 희망마을만들기를 위한 주체육성

○ 충남도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계획의 개요

- 육성인원 : 1,000명 (250명×4년) → 지역개발리더 400명, 협동조합리더 300명, 친환경농업리더 300명
- 부문별, 시군별 육성 목표인원
 - 지역개발부문 : 농어촌지역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시·군당 25명 내외
 - 협동조합부문 :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친환경농업인단체와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소요예산 : 4년간 2,220,000천원 → 충남도와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으로 분담

- 충남도 : 888,000천원(1년간 222,000천원), 시·군 및 협동조합 : 1,332,000천원(1년간 333,000천원)
- 지역개발부문 : 1인당 235만원(2박3일, 6회) 과정 : 농식품부주최·한국농어촌공사주관, 2009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기준)×400명=940,000천원(도 376,000천원, 시·군 564,000천원)/4년=1년, 235,000천원 → 도 94,000천원, 시·군 141,000천원(1개 시·군당 8,813천원)
- 협동조합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70,650천원)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시·군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시·군 70,650천원)
- 우수수료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 1년 20명×3개 부문=60명×120만원=72,000천원(도 28,800천원, 시·군 및 농협 43,200천원)×4년=288,000천원(도 115,200천원, 시·군 및 농협 172,800천원) (1인당 자부담 400천원×60명=24,000천원 불포함)
- 수료자 사후관리, 네트워킹 : 50,000천원(도 20,000천원, 시·군 및 농협 30,000천원)×3년=150,000천원(도 60,000천원, 시·군 및 농협 9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불포함)

○ 교육추진방법

- 전문기관위탁 : 관련분야의 교육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2) 사회적 경제 주체육성

최근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충남도에도 이미 충남형사회적기업 58개, 마을기업 37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충남도에서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200개를 육성할 계획이고, 마을기업은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2015년까지 3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주체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 육성교육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주체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충남도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총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서 이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센터’를 통해서 합리적이 방안을 만들도록 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2012년부터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관·광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이를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추진주체 육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새롭게 만들어질 중간지원조직과 협의 하에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다. 더구나 충남도에서는 이미 사회적 경제의 추진주체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서 별도 계획과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주체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관련 주체간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의 경우,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은 농식품부(기본계획수립, 총괄조정, 모니터링과 총괄평가), 농업인재개발원(교육사업시행, 평가지원, 관련정책개발, 네트워크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 농촌진흥청(농업기술전문강사육성) 등에서 각각의 조직성과 업무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에서는 도청(행정)과 도 농업기술원이 각각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하부기관으로 상급기관의 기능을 위임받아 상급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위임받아 추진할 주체가 광역단위에서는 없기 때문²⁸⁾에 중앙단위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 즉, 농촌인력육성교육은 광역단위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을 총괄하게 될 (광역단위의) 도 농업기술원이 (중앙단위에서) 농촌진흥청(농업인력육성)과 농어촌공사(농촌인력육성)가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

또한 광역과 기초단위간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관리의 공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결국,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은 광역단위의 도청과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기초단위의 시군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 방안]

- 충남도/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 전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 예산 계획수립 :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 분담 → 기초단체의 협력(교육참여자 확보, 사업연계 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교육참가자 배분 → 교육우수참여 및 우수협력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8) 광역단위별로 한국농어촌공사 도 지역본부가 있지만, 여기서는 본사가 담당하는 ‘농촌지역개발리더육성’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협동조합과 행정 간의 협력강화방안 마련

- 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역리더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시·군/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

- 도와 연계·협력하여 자체적인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

- 할당된 교육참여자의 선발 및 관리

- 분담된 예산마련

- 우수교육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수립

- 교육과 사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방안 마련

○ 지역농협의 역할

- 중앙회 도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각 지역조합에서도 협동조합리더 육성이라는 목표에 공감하면서, 할당된 예산의 마련과 적절한 교육대상자(이·감사) 선정에 협력

-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지원방안 마련

5. 상호학습 지원의 확대

1) 상호학습조직 지원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조사에서 여러 사람들의 일관된 요구 중의 하나는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호학습조직에 대한 지원 요구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습’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교육의 연장 혹은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교육이든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방안으로서 학습자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현장단위의 학습조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단위 학습 소모임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방식은 공모방식이다. 즉,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습조직에서 연간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광역단위에 제출하면 중앙(교과부)으로 부터 할당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해당 학습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는 지역학습조직의 준비와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충남도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학습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학습조직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도입 및 지원 : 충남형 LEADER프로그램 운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U의 LEADER 프로그램, 캐나다의 Canadian Rural Partnership²⁹⁾,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가꾸기 Challenge사업 및 Try사업 등과 같이 소규모 파일럿(pilot)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즉, 단순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을 통해 배워가는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의 사회자본을 배양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소규모 파일럿(pilot) 프로젝트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진안군의 Green Village사업, 옥천군 향수30리 아카데미 프로젝트만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옥천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향수30리 아카데미’의 후속과정으로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교육내용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실현해 보고자 할 경우, 공모를 통해 소규모자금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과 ‘실천을 통한 학습’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9) 주요 목표는 파일럿 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내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적자본 개발, 공동체 합의의 구축, 지역자산의 식별, 공동계획과 실행능력 배양을 하위목표로 두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rural.gc.ca/rural-dev/guidelines_e.phtml#4.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액션러닝 프로그램 도입방안]

○ 사업추진과정

- 도(道)에서 가이드라인(=대상사업의 종류, 지원 자격, 사업내용, 추진방법, 평가체계 등)만 설정 → 시·군에 가이드라인 송부 :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
- 도(道)에서 연간 적정 사업량을 책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편성(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가령, 1개 사업당 300~500만원),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의 평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차년도의 사업량 추가 혹은 감축)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
- 시·군에서는 도(道)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희망지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집행과정을 감독, 자문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도(道)에 보고함
- 도(道)에서는 1회적인 자금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원하고, 추진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감
-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감

○ 이 사업의 의의

-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
- 작은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주민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진안군의 Green Village 사업 (예)>

◇ 추진방향

-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의 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밝은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적 협동심을 함양
- 관심과 의욕이 있는 마을을 지원하고 심사하여 발굴함으로써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확대
- 선정된 마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료를 지원하고 사업 후 우수마을 선정 주민숙원사업 추가지원

◇ 2010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2 ~ 8. / - 사업대상 : 33개 마을
- 제외대상 :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사업비 : 93백만 원 (마을당 2백만 원 지원, 우수마을 추가지원 : 대상, 10백만 원, 최우수 7백만 원, 우수 2개 마을 각 5 백만 원)
- 사업내용 : 주민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환경 및 경관 등이 조성되는 사업, 취약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선하여 효과가 좋은 사업

- 주요 사업대상 : ①특색 있고 의미 있는 마을담장 벽화, 간이정류장 벽화 등 환경개선. ②마을회관 및 공터 등에 소규모 썸지공원 조성, 생태습지 조성, ③도로변, 마을회관 주변 등에 꽃밭, 꽃길, 소하천 가꾸기 사업, ④마을의 더럽고 지저분한 취약지역의 정화 및 녹화사업

※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

◇ 시행절차

- 마을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마을⇒읍면)
- 접수마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마을 선정 추천
- 대상마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읍면별 자체평가 후 우수마을 추천
- 군 합동평가 후 우수마을 시상사업비 추가지원

◇ 우수마을에 대한 특전

-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되고 농업·농촌리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도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참여자들과 지역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 충남도(농업기술원)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목표는 “충남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농업경영인 육성”이다. 이는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원 스스로 농업인력과 농촌인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은 전체적으로는 영농기술이나 품목별 전문교육 내지 품목별 전문리더 양성(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마이스터대학 등) 육성 등 농업인력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농촌인력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리더’육성에 대한 관심은 2010년부터이지만 2011년에는 다시 농업인력육성으로 회귀하였다. 하지만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 도농교류/농촌관광인력의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주도해 나갈 농촌인력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교육과정을 보면 2009년 6개 과정, 40개 반, 64회, 2010년 6개 과정, 41개 반, 66회, 2011년 5개 과정, 38개 반, 52회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을 통해 총 6,734명(2011년의 계획치)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매년 2,20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도 농업기술원의 교육에 참여 한 셈이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평가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정도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농업생산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4%, 인간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1.8%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8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이라는 의견이 9%, 80~89점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32.2%, 70~79점이라는 의견이 29.8%로 나타나 전체의 71% 정도는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을 70점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나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육비 ‘자부담’에 대한 저항감이 컸으며, 마이스터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위수여라는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업기술원 교육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은 교육 방법과 시기, 계획 대비 이수율 문제, 농촌인력육성교육의 미약, 교육평가시스템의 부재, 유사중복과목의 반복적 개설, 상호하급조직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는 낮은 출석률, 교육생 확보의 곤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외적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이다. 먼저,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력육성업무의 총괄부서(경영인력과)가 농업정책국에서 농촌정책국의 이관되었으며, 농촌정책국이 농식품부의 주무국의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주된 업무로 해 왔으나 이제 ‘농촌정책’ 주된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육성사업 역시 ‘농업인력육성’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농어농촌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인력육성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정책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리더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가져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희망마을 만들기를 삼농혁신의 주요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농촌인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도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농촌인력의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먼저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유사교육과정의 통합과 간소화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미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참여도가 높은 과목과 참여도가 낮은 과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데도 거의 유사한 교과목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참가와 무관하게 유사과목이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결과에 대한 교육참여자의 의견청취와 교육이수 후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시·군의 농업인대학,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대학 등은 유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참여도(2010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평균 출석률 32%)가 떨어지고 2011년에는 급기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간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인 교육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관련 주체를 ①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총괄·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②관련정책개발과 평가지원, 관련기관 네트워크 운영, 신규수요개발 및 모델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③지역개발리더교육 등 기관별 특화영역을 운영하는 기관, ④ 마이스터대학과 같이 위탁교육 전담기관, ⑤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교육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최신기술 전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역할분담방식을 준용해서 각 주체의 역할배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성과 도출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교육내용과 성과간의 상호관련성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내용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것 즉, 교육이 교육 그 자체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참여도가 낮았고, 사업 확보를 위한 억지참여가 다반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교육개편의 원칙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교육성과의 도출이 가능한 교육’을 농업인 교육개편의 큰 방향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육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교육메뉴를 제시하고, 수요자(농업인, 교육참여 희망자)의 선택·주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예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참여자들의 의견 개진한 후 프로그램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자조직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농업인력육성이든 농촌인력육성이든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교육은 참여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의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목표그룹을 설정하는 것도 용이치 않다. 또, 자발적인 교육 참여라기보다는 관련사업의 유치를 위한 강요된(?) 과정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육참여자의 의지를 자극하고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학습자조직 지원이다. 교육이 관련제도 일반이나 추상론적인 원리,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은 현실적 여건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습은,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자기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은 교육이 전제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며, 교육 역시 학습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사업에서도 교육과 학습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현장단위의 학습조직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종합점검 및 개선방안

- 교육과목, 참여인원, 예산 파악 : 본 연구수준
- 각 교육과정의 개설목적과 목적 대비 성과분석
 - 왜 그러한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개설목적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 2011년도 경우,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설한 교과(반)가 38개반이고, 교육기수가 52기였으며 참여인원이 2,100명(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방대한 작업이 필요함
 - 또한, 각 교육과정의 개설 시기가 연중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기간도 장기간(=최소 1년)이 필요함
- 농정목표(=‘삼농혁신’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달성을 위한 교육수요조사
 - ‘삼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내용과 량을 파악
 - 삼농혁신을 위한 인력조달을 위한 교육과정 파악
 - 농업·농촌 현장의 교육수요 파악
 -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력 육성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축소/폐지해야 할 교과목과 확대/신설해야 할 교과목 정비
 - 축소/폐지해야 할 교과목
 - 교과과정 개설목적이 시대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과목

- 교과과정 개설목적 대비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과목
 - 현장의 교육수요가 줄어 교육생모집에 애로가 있는 교과목
 - 확대/신설해야 할 교과목
 - 개설목적 대비 성과달성도가 높은 교과목
 - 현장의 교육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교과증설이 필요한 교과목
 - 삼농혁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과목
 - 중앙정부의 농정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 교과관리(교과구성, 평가 등) 및 운영능력 제고방안 마련
- 합리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신설
 - 교과운영자의 역량강화방안 마련
 - 교과운영의 민간위탁활성화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강구
-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시키는 체계 구축 →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심층인터뷰),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도 제고와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 수료자를 중심으로 한 상호학습조직 지원방안 강구
 - 유사 교육수료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군단위에서의 (가칭)지역역량종합관리센터 운영방안 마련
-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 표준지침」 마련
- 사전수요조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교육운영(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및 모니터링, 피드백 방안 등 규정
 -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2.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운영인프라 확충방안

- 강의교수의 능력향상 및 현장교수제도 강화
- 기존 교강사 및 신규교강사들을 대상을 한 합동워크숍 개최 : 년 중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미확정강사가 있어 모든 강사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확정된 강사나 내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기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강의기법을 습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업교육기법 매뉴얼 개발·보급, 농어업인 정서 및 행동이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강의 능력 향상
- 독농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한 현장교수제도 강화 :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실습 전문교수 양성 사업'이나 '농업마이스터강사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 품목·분야별로 경영능력, 기술력, 창의력 등 역량이 있는 선도농가, 신지식농업인, 농업CEO, 농업마이스터, 농업컨설턴트 등을 현장교수로 위촉
 - ☞ 농업기술원에서는 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교수 List를 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분기별로 '삼농혁신을 위한 현장교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현장교수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현장교수의 강의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 교강사의 정보를 DB로 구축,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기관 간 공유
 - ☞ 교수의 전문강의 분야, 강의이력 등을 DB화(AgriEDU.net)
- 교육운영인력의 확충 및 역량강화
 - 교육운영자의 열정과 헌신성, 전문역량은 교육효과 제고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따라서 현재의 교육운영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자의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대책이 필요함
 - ☞ 교육운영자와 농업인대표들과의 협의기구 구성 및 미팅의 정례화
 - ☞ 교육사업의 시작 전과 종료 후, 합동워크숍 개최
 - ☞ 교육운영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 민간기관과의 인사교류 : 민간교육기관 파견제도 활용(예 : 완주군과 희망제작소간의 인사교류 사례 참조)
- 교육 콘텐츠의 구축 및 쌍방향 소통강화
 - 중앙정부의 농업교육포털(AgriEDU)과 연계하여 충남도의 콘텐츠 구축방안 강구
 - 집합교육에 필요한 선행학습, 보습교육과 기초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과정 개발, 운영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정보 제공
 - 교육 및 인력육성 목표 설정, 능력진단을 위한 핵심요구역량, 능력표준 등 개발
 - 농업교육 수요자 요구(Needs) 파악 및 운영 정보제공
 - ☞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교육시기 등 수요(Needs) 파악 및 교육기관, 교육시설, 강사 운영 등 교육운영 관련 정보제공

3.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장교육시설 확충방안

- 도(道) 지정 현장실습장 확대
 -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현장교육시설을 활용하되, 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현장교육시설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품목수요, 교육운영기관의 수요 등을 조사하여 실습교육의 요건을 갖춘 농장위주로 실습교육시설을 추가로 지정
 - ☞ 현장교수제도와 연계하여 현장교수 농장을 중심으로 시군별 혹은 품목별로 최소 1개 이상씩 지정
- 현장교육시설의 교육기자재 확보
 - 지정된 현장실습농장에는 현장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장, 실습시설, 교재, 강사 등에 대한 DB 구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조정방안

-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교육 바우처제도의 확대 도입
- 교육시기의 조정
 - 익년도 교육계획 : 전년도말까지 수립완료, 년초부터 교육실시
 - 교육시기와 교육이수율의 관계를 고려한 시기조정 : 3, 6월 교육 축소 → 1, 2, 4월 교육 확대
- 교육기간의 조정
 - 교육내용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 : 당일치기 교육 중심 → 2박3일 합숙교육 중심으로 !
- 교과목의 조정
 - 유사교과목의 통합과 간소화
 - 축소해야 할 교과목 : 일반적인 농업생산교육

- 확대해야 할 교과목 : 전문화된 농업기술교육, 가정원예·가정의학·회계관리·갈등관리·전기용접 등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

5. 교육참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조정방안

○ 프로그램 조정방향

- 교육수요가 많은 교과목 : 확대 혹은 신설
- 교육수요가 적은 교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프로그램 조정원칙

- 2~3년간 연속해서 교육참여자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교육수요조사에서 수요가 계획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 : 축소 혹은 폐지
- 특정한 정책목표(예: 삼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 친환경농업육성 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목 : 확대 혹은 신설
- 단, 축소/폐지나 확대/신설 여부의 결정은 관련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6. 도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 방안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의 목표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력 강화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실현
- 순환과 공생의 희망마을만들기를 위한 주체육성

○ 충남도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계획의 개요

- 육성인원 : 1,000명 (250명×4년) → 지역개발리더 400명, 협동조합리더 300명, 친환경농업리더 300명
- 부문별, 시군별 육성 목표인원
 - 지역개발부문 : 농어촌지역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시·군당 25명 내외
 - 협동조합부문 :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친환경농업인단체와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소요예산 : 4년간 2,220,000천원 → 충남도와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으로 분담

- 충남도 : 888,000천원(1년간 222,000천원), 시·군 및 협동조합 : 1,332,000천원(1년간 333,000천원)
- 지역개발부문 : 1인당 235만원(2박3일, 6회 과정 : 농식품부주최·한국농어촌공사주관, 2009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기준)×400명=940,000천원(도 376,000천원, 시·군 564,000천원)/4년=1년, 235,000천원 → 도 94,000천원, 시·군 141,000천원(1개 시·군당 8,813천원)
- 협동조합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70,650천원)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시·군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시·군 70,650천원)
- 우수수료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 1년 20명×3개 부문=60명×120만원=72,000천원(도 28,800천원, 시·군 및 농협 43,200천원)×4년=288,000천원(도 115,200천원, 시·군 및 농협 172,800천원) (1인당 자부담 400천원×60명=24,000천원 불포함)
- 수료자 사후관리, 네트워킹 : 50,000천원(도 20,000천원, 시·군 및 농협 30,000천원)×3년=150,000천원(도 60,000천원, 시·군 및 농협 9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불포함)

○ 교육추진방법

- 전문기관위탁 : 관련분야의 교육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7.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위한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 방안

○ 충남도/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 전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 예산 계획수립 :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 분담 → 기초단체의 협력(교육참여자 확보, 사업연계 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교육참가자 배분 → 교육우수참여 및 우수협력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협동조합과 행정간의 협력강화방안 마련
- 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역리더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시·군/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

- 도와 연계·협력하여 자체적인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

- 할당된 교육참여자의 선발 및 관리
- 분담된 예산마련
- 우수교육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수립
- 교육과 사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방안 마련

○ 지역농협의 역할

- 중앙회 도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각 지역조합에서도 협동조합리더 육성이라는 목표에 공감하면서, 할당된 예산의 마련과 적절한 교육대상자(이·감사) 선정에 협력
-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지원방안 마련

8. 충남도 농업·농촌인력육성을 액션러닝 프로그램 도입방안

○ 사업추진과정

- 도(道)에서 가이드라인(=대상사업의 종류, 지원자격, 사업내용, 추진방법, 평가체계 등)만 설정 → 시·군에 가이드라인 송부 :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
- 도(道)에서 연간 적정 사업량을 책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편성(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가령, 1개 사업당 300~500만원),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의 평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차년도의 사업량 추가 혹은 감축)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
- 시·군에서는 도(道)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희망지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집행과정을 감독, 자문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도(道)에 보고함
- 도(道)에서는 1회적인 자금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원하고,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감
-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감

○ 이 사업의 의의

-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
- 작은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주민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참고문헌>

- 강대구 외(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_____(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 연구」 농림부
 _____ 외(2008), 「농업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 농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김지수 · 정지용 · 임형백 · 고운미 · 김정태 · 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김정호(2007), 「농업 인력 및 경영체의 동향과 미래수요 전망」 2007 농업교육학회 학술대회
 김진모 외(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김철규 외(2011),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회학
 회/농식품부)
 나승일 외(2005),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농림부(2004),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농식품부(2008), 「신 농업교육체제 구체계획」
 _____(2008), 「2008 농업인교육담당자 종합워크숍 자료집」
 _____(2010), 「농업교육 3개년기본계획(2011-2013)」
 _____(2011),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2005),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사업 보고서」
 농촌진흥청(2007), 「농업경영비즈니스의 성공조건」
 _____(2010), 「농촌지도사업보고서」
 마상진(2008), 「농업인의 전문역량강화」 (『농업동향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2009),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활성화 방안」 『2009 농업교육학회 학술대회』
 _____(2009),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교육 강화방안」 농업기술회보 제46권 제4호
 _____(2010), 「농업교육의 반성과 과제」 (『농정연구』 통권35호) 농정연구센터
 _____ · 김영생(2005),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선방
 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최경환(2006),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최경은(2007),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박대식(2008),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박대식(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정기환(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 박성재 · 김강호(2011), 「농림수산식품(분야)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승규 · 양주환(2008),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 박 경(2005),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지역재단
- 박진도 · 황수철 · 양병찬 · 유정규(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 서규선 · 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
- 서종석 · 김사균(2010),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육성정책 연구」 농촌진흥청
- 서종석 · 김석현 · 조규대 · 강혜정(2009), 「고소득 농업경영체 성공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0권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소순열 · 유정규 · 황영모(2008), 「농업경영리더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농촌진흥청
- 송두범 · 김남선(1991),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연구』 제10집),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 유정규 · 정환영(2010),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송미령 · 박시현(2002), 「주민자율적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성과분석」 (『국토계획』 제37권제1호)
- 안덕현(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양병찬(2005),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학습체계구축」 지역재단

유정규·황수철(2004), 「지역리더의 농정참여실태 및 개선방안」 지역대단·농림부

_____(2009), 「새로운 지역발전시대의 지역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제2차 정책
토론회자료집』) 농어업희생을 위한 국민의원연구모임·지역재단

_____. 박경·정재호·송두범(2006), 「충청남도 농촌지역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
발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조영재·정혜영(200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
안」 충남발전연구원

정득진(1990), 「농촌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요인」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정하성·우룡(1988),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평택대학교 논문
집』 제11집), 평택대학교

(사)지역농업연구원·(주)지역파트너(2007),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구축 방안」 진안군

최경은(2006), 「농촌지역발전과 학습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충남도 농업기술원(2009), 「농업인 전문교육 계획」

_____(2010), 「농업인 전문교육 계획」

_____(2011), 「농업인 교육계획」

충남도청(2011.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개선, 운영계획 보고」

_____(2011.1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점검결과」

_____(2011.1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개선계획」

충남 마이스터대학(2011), 「2011학년도 충남 마이스터대학 모집요강」

한국농어민신문(2009.2.19), 「기존 농업교육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_____(2009.2.26), 「신농업교육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2006), 「중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2006년 추진결과
보고서」

_____. 도농교류센터(2007), 「중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2007년 추진결과보고서」

_____. 도농교류센터(2008), 「중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2008년 추진결과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2009년 전문계 고교 현황」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지역재단 유정규 운영이사(경제학박사)

전략연구 2011-08 · 충남 농업 · 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글쓴이 · 유정규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1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78-6 0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